



#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연구용역

2024. 06. 12.



# 제 출 문

광 주 시 장    귀 하

본 보고서를 귀 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4. 06.



시립 한국응용통계연구원

이 사 장 김 효





# 목 차

<b>I. 연구의 개요</b> .....	<b>1</b>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제2절 과업 범위 .....	3
제3절 연구방법 .....	4
<b>II. 학교 밖 청소년 정책 환경분석</b> .....	<b>5</b>
제1절 학교 밖 청소년 개념 및 유형 .....	7
1) 학교 밖 청소년 개념 .....	7
2) 학교 밖 청소년 주요 유형 .....	8
제2절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제도 및 법규 .....	9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과 지원 내용 .....	9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	16
제3절 국내 학교 밖 청소년 규모 .....	20
1) 학업중단 현황 및 규모 추이 .....	20
2) 학교 밖 청소년 규모 .....	22
<b>III.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b> .....	<b>27</b>
제1절 설문조사 .....	29
1) 설문조사 개요 .....	29
2) 분석결과 .....	30
제2절 표적집단면접조사(FGI, Focus Group Interview) .....	77
1) 표적집단면접조사 개요 .....	77
2) FGI 조사결과 .....	78
<b>IV. 결론 및 제언</b> .....	<b>93</b>
제1절 연구의 요약 .....	95
제2절 제언 .....	99
<참고문헌> .....	105
<설문지> .....	107

# 표 목 차

<표 II-1> 학교 밖 청소년 주요 유형 .....	8
<표 II-2>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지원 법률 조항 .....	9
<표 II-3>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11
<표 II-4> 진로교육법에서의 진로준비 관련 조항 .....	12
<표 II-5>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내용 .....	13
<표 II-6>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유형 .....	15
<표 II-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16
<표 II-8> 전국 학교급별 학업중단자 수 추이 .....	20
<표 II-9> 경기도 및 광주시 학교급별 학업중단자 수 추이 .....	21
<표 II-10> 전국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 규모 .....	23
<표 II-11> 경기도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 규모 .....	24
<표 II-12> 광주시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 규모 .....	24
<표 III-13> 조사응답자의 특성1 .....	30
<표 III-14> 학업중단 시점 및 기간 .....	33
<표 III-15> 학교를 그만둘 무렵 고민을 나누는 상대 .....	34
<표 III-16> 학교를 그만둔 이유 .....	35
<표 III-17> 학교를 그만둘 당시 학교에서 제시받은 정보 .....	37
<표 III-18> 학교를 그만둘 당시 부모님(보호자)의 태도 .....	38
<표 III-19> 학업중단숙려제 참여여부 .....	39
<표 III-20> 학업중단숙려제 상담기관 .....	40
<표 III-21> 학업중단숙려제 이후 개인정보제공 동의 여부 .....	41
<표 III-22> 학교를 그만두기 전 긍정적인 학교생활 .....	42
<표 III-23> 학교를 그만둘 당시 학교 성적 .....	43
<표 III-24> 학교를 그만둘 당시 계획 .....	44
<표 III-25>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한 후회 여부 .....	45
<표 III-26>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한 후회 내용 .....	46
<표 III-27>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한 후회하지 않은 이유 .....	47
<표 III-28> 기관 및 서비스 이용 시기 .....	48
<표 III-29> 기관 및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던 기간 동안 한 일들 .....	49
<표 III-30> 학교를 그만둔 이후 경험 .....	50
<표 III-31> 학교를 그만둔 이후 지금까지 친밀한 관계 .....	51
<표 III-32> 학교를 그만둔 후 본인의 집 이외에서 지낸 경험 .....	52
<표 III-33> 학교를 그만둔 후 차별적인 경험 .....	53
<표 III-34> 학교를 그만두지 않게 했을 만한 것들 .....	55
<표 III-35> 최근 한 달간 보낸 내용들 .....	56
<표 III-36>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	57
<표 III-37> 가장 오랫동안 일한 아르바이트 .....	58
<표 III-38> 아르바이트 평균 기간 .....	59
<표 III-39> 향후 진로 .....	60
<표 III-40> 진로 결정 시기 .....	61
<표 III-41> 진로 결정에 영향을 준 대상 및 방법 .....	62
<표 III-42> 자아존중감 .....	63
<표 III-43> 학교를 그만둔 후 겪은 폭력(가출 포함) 등의 경험 .....	64
<표 III-44>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 .....	65

<표 Ⅲ-45> 학교를 그만둔 후 겪고 있는 어려움 .....	66
<표 Ⅲ-46> 시설(프로그램) 인지 .....	67
<표 Ⅲ-47> 시설(프로그램) 경험 .....	68
<표 Ⅲ-48> 가장 도움이 된 시설(프로그램) .....	69
<표 Ⅲ-49> 시설(프로그램)의 도움 정도 .....	70
<표 Ⅲ-50>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서비스 참여 의사 .....	70
<표 Ⅲ-51>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서비스 참여 의향의 이유 .....	71
<표 Ⅲ-52>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서비스 참여 의향 없는 이유 .....	72
<표 Ⅲ-53> 가장 필요한 서비스(학업 영역) .....	73
<표 Ⅲ-54> 가장 필요한 서비스(진로/직업 영역) .....	74
<표 Ⅲ-55> 가장 필요한 서비스(건강/상담/복지 영역) .....	75
<표 Ⅲ-56> 가장 필요한 서비스(활동 영역) .....	76
<표 Ⅲ-57>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전문가 FGI 참여자 명단 .....	77

# 그림 목 차

<그림 II-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용 .....	10
<그림 II-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 추진 과제 .....	14
<그림 II-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전달체계 .....	17
<그림 II-4> 서울시교육청 친구랑(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 지원 내용 .....	18
<그림 II-5> 전국 학교급별 학업중단자 수 추이 .....	20
<그림 II-6> 경기도 학교급별 학업중단자 수 추이 .....	21
<그림 II-7> 광주시 학교급별 학업중단자 수 추이 .....	22
<그림 II-8> 전국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 규모 .....	23
<그림 II-9> 경기도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 규모 .....	24
<그림 II-10> 광주시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 규모 .....	25
<그림 III-11> 설문조사 절차 .....	29
<그림 III-12> 태어난 해 .....	31
<그림 III-13> 현재 함께 사는 대상 .....	32
<그림 III-14> 가정의 경제적 수준 .....	32
<그림 III-15> 학업중단 시점 및 기간 .....	33
<그림 III-16> 학교를 그만둘 무렵 고민을 나눈 상대 .....	34
<그림 III-17> 학교를 그만둔 이유 .....	36
<그림 III-18> 학교를 그만둘 당시 학교에서 제시받은 정보 .....	37
<그림 III-19> 학업중단숙려제 참여여부 .....	39
<그림 III-20> 학업중단숙려제 상담기관 .....	40
<그림 III-21> 학업중단숙려제 개인정보제공 동의 여부 .....	41
<그림 III-22> 학교를 그만두기 전 긍정적인 학교생활 .....	42
<그림 III-23> 학교를 그만둘 당시 학교 성적 .....	43
<그림 III-24> 학교를 그만둘 당시 계획 .....	44
<그림 III-25> 교를 그만둔 것에 대한 후회 여부 .....	45
<그림 III-26>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한 후회 내용 .....	46
<그림 III-27>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한 후회하지 않은 이유 .....	47
<그림 III-28> 기관 및 서비스 이용 시기 .....	48
<그림 III-29> 기관 및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던 기간 동안 한 일들 .....	50
<그림 III-30> 학교를 그만둔 이후 경험 .....	51
<그림 III-31> 학교를 그만둔 이후 지금까지 친밀한 관계 .....	52
<그림 III-32> 학교를 그만둔 후 본인의 집 이외에서 지낸 경험 .....	53
<그림 III-33> 학교를 그만둔 후 차별적인 경험 .....	54
<그림 III-34> 학교를 그만두지 않게 했을 만한 것들 .....	55
<그림 III-35> 최근 한 달간 보낸 내용들 .....	57
<그림 III-36>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	57
<그림 III-37> 가장 오랫동안 일한 아르바이트 .....	59
<그림 III-38> 아르바이트 평균 기간 .....	59
<그림 III-39> 향후 진로 .....	60
<그림 III-40> 진로 결정 시기 .....	61
<그림 III-41> 진로 결정에 영향을 준 대상 및 방법 .....	62
<그림 III-42> 학교를 그만둔 후 겪은 폭력(가출 포함) 등의 경험 .....	64
<그림 III-43>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 .....	65
<그림 III-44> 학교를 그만둔 후 겪고 있는 어려움 .....	66

<그림 III-45> 시설(프로그램) 인지 .....	67
<그림 III-46> 시설(프로그램) 경험 .....	68
<그림 III-47> 가장 도움이 된 시설(프로그램) .....	69
<그림 III-48> 시설(프로그램)의 도움 정도 .....	70
<그림 III-49>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서비스 참여 의사 .....	71
<그림 III-50>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서비스 참여 의향의 이유 .....	71
<그림 III-51>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서비스 참여 의향 없는 이유 .....	72
<그림 III-52> 가장 필요한 서비스(학업 영역) .....	73
<그림 III-53> 가장 필요한 서비스(진로/직업 영역) .....	74
<그림 III-54> 가장 필요한 서비스(건강/상담/복지 영역) .....	75
<그림 III-55> 가장 필요한 서비스(활동 영역) .....	76



# I. 연구의 개요

## I. 연구의 개요

1. 과업추진 배경 및 목적
2. 과업범위
3. 연구방법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빠르게 변화하는 세태에 따라 청소년들의 욕구는 날로 다양해지고 있으며, 청소년기에 겪는 문제 역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함
- 학교 밖 청소년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2014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광주시 또한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해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
- 이에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3개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제2절 과업 범위

- 시간적 범위 : 2024년 현재
- 공간적·인적 범위 : 광주시 내 학교 밖 청소년
- 내용적 범위
  - 학교 밖 청소년 정책환경 분석
  -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분석
  -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광주시 내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 결론 및 제언

## 제3절 연구방법

### □ 문헌조사

- 국내·외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선행연구 검토
- 주민등록 인구통계 등 기초자료 분석

### □ 실태조사

- 온라인 설문을 통한 실태조사 진행
- 관련 기관 방문 등을 통한 설문지 배포 및 회수
- (표본)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시설(꿈드림 센터, 4개 대안학교-성문밖학교, LT혁신학교, 카라크리스천학교, 유니스학교) 등록 청소년 대상 463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함
- (조사도구) 본 조사에서 활용한 조사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설문조사를 수행함

### □ 학교 밖 청소년 전문가 의견 수렴

-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전문가 표적집단조사(FGI, Focus Group Interview)
- 일시 : 2024년 5월 22일(수) 16:30~18:30
- FGI참가자 :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센터장 외 팀장급 2명

## II. 학교 밖 청소년 정책 환경분석

### II. 학교 밖 청소년 정책 환경분석

1. 학교 밖 청소년 개념 및 유형
2.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제도 및 법규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사례
4. 국내 학교 밖 청소년 규모



# 제1절 학교 밖 청소년 개념 및 유형

## 1) 학교 밖 청소년 개념

- 과거 학교 밖 청소년은 다양한 용어로 지칭
  - 학업중단청소년·중도탈락자 :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업을 중단했다는 의미에서 중도탈락자와 학업중단청소년이라는 용어로 혼용되다가 중도 탈락의 어감이 갖는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점차 학업중단이라는 용어가 보편화
  - 교육부가 2002년부터 공식적으로 ‘학업중단’이라는 표현으로 이들을 지칭해왔고 2003년에는 「청소년 기본법」에서 공식적으로 학업중단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학교를 떠났다고 꼭 학업을 중단한 것은 아니라는 반론과 함께 현재와 같은 학교 밖 청소년 용어의 사용이 제기
- 2015년 이후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2조에 의거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보편화
  - 이 법률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은 만 9세~24세의 청소년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함
- 본 연구도 이러한 개념적 정의에 따라 국가에서 초·중·고등교육 과정으로 인가한 제도권의 공교육기관에 재학 중이지 않은 청소년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정의함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 출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2) 학교 밖 청소년 주요 유형

-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은 다양한데 발생경로에 따라 학업형, 무업형, 직업형, 비행형, 은둔형으로 나눌 수 있음(관계부처합동, 2015).
- 이 중 검정고시 공부, 대학입시 또는 복교 등을 준비 중인 학업형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
- 다음으로 특정한 목표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업형, 아르바이트 혹은 취업을 하거나 직업기술을 배우며 취업을 준비 중인 직업형과 비행으로 인해 학교를 떠나게 된 청소년 등으로 나눌 수 있음

**<표 II-1> 학교 밖 청소년 주요 유형**

구분	내용	비율
학업형	검정고시 공부, 대학입시 준비, 복교 등	42.0%
무업형	특정목표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	23.0%
직업형	직업기술 배우는 경우, 아르바이트·취업 등	17.9%
비행형	가출하거나 보호시설·사법기관 감독 받는 경우	8.9%
은둔형	사회적 관계를 맺지 않고 집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	미조사*

■ 출처: 관계부처합동(2015)

## 제2절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제도 및 법규

###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과 지원 내용

#### (1) 법률

- 2007년에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프로그램 운영’으로 시작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2014년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이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전국에 확산되면서(2023년 기준 222개소), 큰 전기가 마련(여성가족부, 2023)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내용을 모두 포괄하고 있음
  - 법률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비롯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및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립 근거 등을 포괄
  - 이 법률에 의거해 지방자치단체들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관련된 자치법규 및 지원계획을 수립·운영
  - 특히 구체적으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에 대해 법률 조항들로 규정

**<표 II-2>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지원 법률 조항**

구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지원내용 관련 조항)
제8조 (상담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후략)
제9조 (교육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로의 재취학 또는 고등학교로의 재입학 2.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의 대안학교로의 진학 3.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준비 (후략)
제10조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직업소개 및 관리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후략)
제11조 (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 (중략), 정서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6.>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 법률교육, 문화교육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후략)

■ 자료: 법제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외의 내용으로 꿈드림 청소년단과 건강검진 및 급식지원 내용이 추가 되어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의 전인적인 건강한 성장·발달을 고려할 때 이 역시 매우 중요한 지원
- 또한, 법률 제10조의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의 내용이 실제 지원에서는 '진로직업지원'이라는 명칭으로 법률에서 제시한 직업적성 검사와 진로상담프로그램, 직업체험과 훈련프로그램, 직업소개 및 관리 등 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또 단계별로 제시
- 궁극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히 성장하여 자립하는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처럼 바로 직업체험 및 훈련 단계로의 진입이 아닌 청소년이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진로 준비를 위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지원내용임
- 즉 진로지원은 교육지원 및 진로직업지원 이전에 충분히 시간을 두고 이루어져야 하며, 청소년들이 이에 기반하여 대학에 진학할 것인지, 취업을 준비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취업을 염두에 두고 해당 전공으로 대학입시나 직업훈련 등을 준비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



**<그림 II-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용**

■ 자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https://www.kyci.or.kr/userSite/sub02\\_2\\_info.asp](https://www.kyci.or.kr/userSite/sub02_2_info.asp)

○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에서는 진로상담 및 진로적성검사가 포함
- 이에 더해 자립동기 부여 및 기초기술훈련 후에는 전문직업훈련이나 취업연계, 사후관리까지 이어져 있음

- 그러나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이미 취업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으로 한정하고 있어, 이보다 더 어린 나이를 포함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장기적인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으로 볼 수 없음

**<표 II-3>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프로그램 단계	기간	상세 지원내용	비고
신청		취업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15~24세)	
진로상담 및 진로적성검사	1주	상담, 진로적성검사 등을 통해 기본사항 확인, 맞춤 직업군 탐색 등 실시	
자립동기 부여	2주	프로그램의 전 과정을 잘 수료할 수 있도록 참여 동기 및 또래 관계성 강화	
기초기술훈련	4주	실제 직업체험 전 대비과정으로 필요 기술 선택하여 훈련 진행 (훈련수당 지급), 참여 청소년들의 식생활, 용돈관리 등 생활관리 개선 프로그램 운영	검정고시 대비반, 자격증 취득반 병행 직장체험 3개월 가능
직장체험	3개월	청소년작업장 또는 청소년우호기업 연계로 3개월 이내(1일 3시간 이내) 직장체험 진행(직장체험 수당 지급)	
		전문직업훈련 또는 취업연계	
사후관리	6개월	고충상담 등 지속적으로 청소년과 교류하며 직업훈련 및 취업 현황에 대해 관리	

■ 자료: 꿈드림 홈페이지. 직업역량강화. <https://www.kdream.or.kr:446/user/sub/sub04/sub040302.asp>

- 공교육 상의 진로교육 및 진로교육법과 대비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 제도권 공교육을 중도에 그만두었다고 해서 학교 밖 청소년이 학생 청소년에 비해 빨리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님에도, 많은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둔 이후 서둘러 학업이나 취업을 결정하거나, 또는 무언가를 성취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낌
  - 그래서 진로를 빨리 결정하고, 대학입시를 급히 준비하기도 하며, 학교를 그만두는 과정에서 부모와의 큰 갈등으로, 어떠한 방식으로든 자신을 증명해야 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진입장벽이 낮은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선택하기도 함
  - 이 경우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진로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체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됨
  - 진로교육법 제4조에는 학생들의 진로개발역량 함양을 진로교육의 기본방향으로 명시
  -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는 바로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지원현장에서는 ‘직업역량강화’)에 관한 내용이 제시되면서 바로 자립부분으로 이어짐
  - 진로교육법은 초등학생부터 대상으로 한 것이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의 상당수가 고등학교 단계에서 학교를 그만둠에 따라 연령대가 대부분 높은 것을 고려한 것일 수도 있음
  -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의 저연령화 경향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청소년의 전반적인 발달단계를 고려한 진로관련 역량개발에 대한 재고가 필요

〈표 II -4〉 진로교육법에서의 진로준비 관련 조항

구분	진로교육법(진로교육 주요 내용)
제2조 (정의)32)	1. “진로교육”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학생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후략)
제4조 (진로교육의 기본방향)	① 진로교육은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평생학습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진로개발역량의 함양을 목표로 한다. ② 모든 학생은 발달 단계 및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후략)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전략)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후략)
제9조 (진로전담교사)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초·중등학교에 학생의 진로교육을 전담하는 교사(이하 “진로전담교사”라 한다)를 둔다. (후략)
제10조 (진로심리검사)	① 초·중등학교의 장은 학생이 소질과 적성을 이해하고 진로상담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진로에 관한 심리검사(이하 “진로심리검사”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후략)
제11조 (진로상담)	① 초·중등학교의 장은 학생의 진로 탐색 및 선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진로상담을 제공하여야 한다. (후략)
제12조 (진로체험교육과정 편성·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진로체험 시간은 수업시간으로 본다. (후략)
제16조 (지역진로교육센터 )	① 교육감은 국가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진로정보 제공,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제공,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진로체험 운영·지원 등을 수행하는 지역진로교육 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후략)

■ 자료: 법제처, 진로교육법

○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립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권익 보호,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 지원, 다양한 활동 기회 제공을 통한 자기개발 프로그램 지원, 기본적인 자기관리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아우름
- 학교 밖 청소년 중에서도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에 대해 살펴보면 미흡한 부분이 확인됨.
  -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의 지원 없이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고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족의 역할과 지원 정도가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큼.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를 통한 기본적인 지원에 이어 가정으로부터의 지원에서도 모두 배제되게 됨
  - 현재 지원내용은 정부 및 지자체의 복지수급 대상 여부인지 확인해주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원비 항목 내에서 직접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 내용이 매우 제한적
  - 매우 취약하거나 위기상태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직접지원을 확대해야 하나, 가족과의 갈등이나 문제로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례들을 위한 보편적인 차원에서의 경제적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표 II -5>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내용**

지원내용	상세내용
- 청소년 근로 권익 등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근로 청소년의 권리 등에 필요한 교육/상담 실시</li> <li>•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문자상담(#1388) 등 근로권익 상담 연계</li> <li>• 근로권익침해나 부당처우 사례 발견 시 청소년근로보호센터(1599-0924, 청소년전화 1388), 청소년근로권익센터(1644- 3119) 연계·지원하며, 필요시 노동지청에 신고 등 지원</li> </ul>
-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생활수급, 위기청소년특별지원 대상 여부 확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지자 체별 복지사업 수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위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자체 사례판정을 통해 직접지원 실시</li> <li>• ※ 직접지원비 항목 내에서 운영할 것</li> </ul>
-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기회 향유를 위한 문화·예술, 체육, 봉사활동 등 자기계발 프로그램 지원	
- 법질서 의식, 의사소통 능력향상, 경제원리 이해, 절주·금연 교육 및 마약류 예방교육, 안전교육(심폐소생술 포함),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도박 예방교육 등 기초소양 교육 제공	

■ 자료: 여성가족부(2023) 청소년사업안내 II 권, pp. 603~604

○ 학교 밖 청소년 대학진학 및 취업·직업훈련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있어 최근의 큰 성과 중의 하나는 대학입학을 위한 수시전형에서 매우 중요한 학생생활기록부의 대체 서식으로 청소년생활기록부가 도입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들이 대학입시의 길이 더 확대.
  - 학교 밖 청소년의 대학진학 수요 증가에 발맞추어, 2020년 4개 대학으로 시작하여 2023년 23개 대학으로 확대(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3).
  -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이 점점 많아짐에 따라 원천적으로 수시전형을 통한 대학입시 기회에서 불리한 조건이었던 학교 밖 청소년에게 매우 의미있는 긍정적 변화임
  -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를 지원하는 현장에서의 부담과 함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의 대학입시를 위한 지원범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대목
- 취업 및 직업훈련에 관심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은 내일이룸학교를 통해 다양한 직업훈련 기회를 가짐
  -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진출 및 자립을 위하여 맞춤형 직업훈련 기회 제공을 목표로 한 것으로, 2023년 기준 전국의 13개의 직업훈련기관에서 무료 직업훈련, 자립장려금(월 30만원 한도), 기숙사 제공 또는 교통비 지급과 같은 지원을 통해 직업훈련교육 및 자격증 취득이 가능

**(2) 기본계획**

○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

-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은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
- 기본계획에서는 청소년 자립 지원 강화라는 정책 과제의 하나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각지대 해소’라는 세부 사업을 진행

- 여성가족부와 교육부가 함께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연계 협력을 강화하는 것과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진로지원을 확대하는 사업을 포함. 또한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인프라를 확대하며,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활동 지원 강화 프로그램을 시행
- 또한 청소년 건강 및 생활 지원 차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을 통합관리하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급식 강화 사업을 추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은 정책 대상을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한정된 사업들을 포함
- 사회로 먼저 나와서 내일을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5가지 추진 과제 및 12개의 세부 추진 과제를 포함
-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이나 진로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건강한 마음과 신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심리, 건강지원 제도를 수립하며, 학교 밖에서도 청소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와 활동을 보장받기 위해 금전적 지원이나 활동공간 및 활동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

<b>목표</b>	<b>사회로 먼저 나와 내일을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b>
<b>정책 방향</b>	<b>신속하게 발굴·연계하여 성장단계별 수요 맞춤형 서비스 지원</b>
<b>추진 과제</b>	<b>1. 신속한 발굴·연계 및 진단·지원역량 강화</b> ① [발굴·연계] 신속 발굴·연계하는 온·오프라인 체계 구축 ② [진단·지원역량 강화] 개인별 수요 측정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b>2. 균등한 학습기회 제공 및 진로지원 강화</b> ① [학습 지원] 청소년 발달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② [장학·대입 지원] 장학금 지원 및 대입응시 지원 ③ [진로·직업훈련 지원] 진로동기 및 직업역량 강화
	<b>3. 건강한 성장 기회 보장</b> ① [건강 지원] 학교 밖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지원 강화 ② [심리·정서 지원] 정신건강 위기 측정 및 전문상담 연계
	<b>4. 자유로운 활동 및 생활 지원 확대</b> 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확충] 꿈드림센터 및 전용공간 확대 ② [교통·활동 지원] 자유로운 학습 및 체험활동 지원 ③ [특별지원] 위기 청소년 생활비 등 지원
	<b>5. 보호·안전 지원 및 인식개선 강화</b> ① [보호·안전] 권익보호 및 안전교육 강화 ② [인식 개선] 인식개선 캠페인 및 홍보 강화

<그림 II-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 추진 과제

■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22)



##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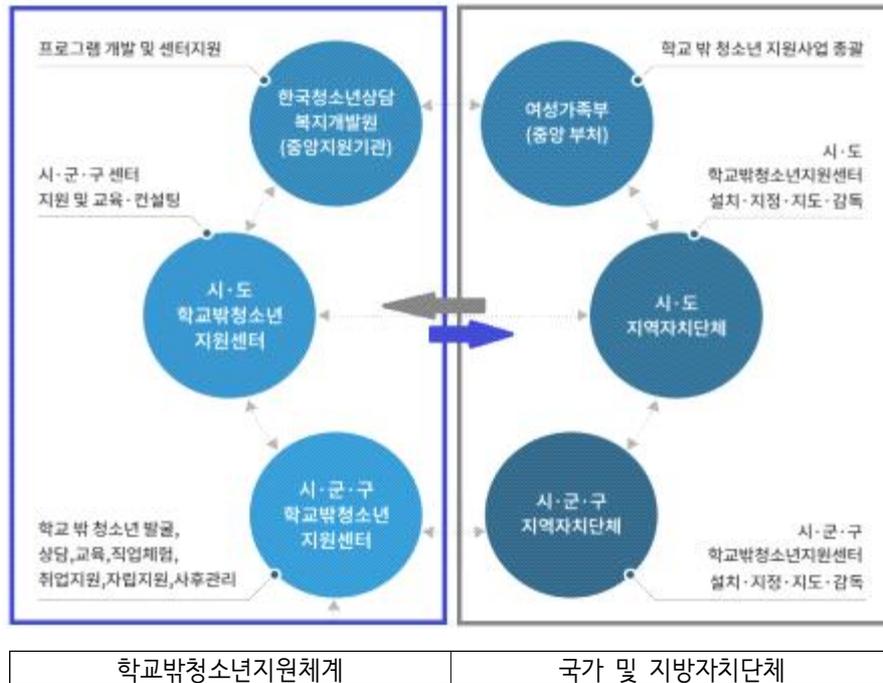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책무가 어디에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
  - 해당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조사, 연구, 교육 및 홍보, 조기 발견, 지원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교육복지 실현, 책무 이행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인,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방안 마련 등을 수행토록 하고 있음
  - 즉, 권리기반접근에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의무이행자(duty-bearer)로서의 역할이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있는 것을 확인

**<표 II-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서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3. 23.>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자료: 법제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전달체계에서 보듯이, 중앙정부와 지자체 및 기초지자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중앙지원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시·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시·군·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매칭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이렇듯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있어 국가와 지원 현장과의 긴밀한 연계와 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전달되는 지원의 양과 질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침
  - 특히 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관심 정도와 실제 지원 내용은 해당 시·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시·군·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역에 차이를 가져옴
  - 즉, 앞에서 언급한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역에서는 지역마다 또는 이용하는 꿈드림센터마다 차이가 있음



<그림 II-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전달체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격차

- 대도시와 읍면지역 등 지역규모와 이에 따른 지자체 예산과 인프라의 차이는 지자체 규모만이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며, 지역규모 및 재정적 차이 외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관심과 주목정도에 따라 실천현장에서의 지원 내역에 큰 차이가 발생
  - 일례로 전라남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등록 청소년을 대상으로(센터 프로그램 월 6회 이상 참여) 만9~12세는 월 5만원, 만13~15세는 10만원, 만16~24세는 월 2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금의 사용처는 교육 및 진로준비를 위한 교통비, 간식비, 문화활동비 등임
  - 일부 지자체(대전, 춘천 등)에서도 교통비와 참여수당의 명목으로 월 5만원이나 월 10만원을 지원
  - 이러한 지원이 전국의 모든 청소년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지원 내역에도 차이가 큼
  - 지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격차는 앞서서의 예시처럼 단순히 지원수당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지원 내용과 인프라 등의 차이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은 자신의 지역에 희망하는 지원이 없거나, 또는 본격적인 취업 준비 및 구직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도 함
  - 이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학교 대신 친숙한 거주지역이 활동의 장(場)으로서 미래를 준비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들에게 지원되는 내용이 지역마다 균등하게 보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격차와 관련하여, 또 다른 변수는 최근 교육체계에서 최근 학교 밖 청소년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제공되고 있다는 점

- 아직 많은 부분에서 지원이 확산되고 있지는 않지만, 서울지역의 경우 서울특별시 차원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친구랑(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 사업의 추진으로 여성가족부를 통한 지원체계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와 매우 유사한 지원을 제공
- 이 중 서울특별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되고 있는 곳으로 서울시 대안교육센터로 시작되었으며, 현재도 여러 유형의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주로 하고 있음
- 지원 내용은 수업료 지원, 학업 지원, 인턴십프로젝트 지원, 위기청소년 지원, 멘토지원, 문화예술 활동 및 관람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성장 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청소년과 가족을 포함한 맞춤형 상담과 근로청소년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상담도 제공
- 서울특별시교육청을 통한 친구랑(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 서비스는 여성가족부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매우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제공
- 2014년에 최초의 신림 ‘친구랑’ 센터가 개소한 이래로, 서울의 마포, 영등포, 고덕, 노원의 총 5개소가 운영중에 있으며, 꿈드림센터의 자립지원에 대한 내용을 제외한 교육지원, 진로지원, 정서지원 등 비슷한 지원을 제공
- ‘친구랑’의 두드러진 지원 내용은 친구랑 프로그램에 등록후 주 2회 이상 60%(월 5회)이상 출석한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교육참여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초등단계 월 10만원, 중등단계 월 15만원, 고등단계 월20만원)



<그림 II -4> 서울시교육청 친구랑(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 지원 내용

■ 자료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 소개.

[https://friend.sen.go.kr/sub/content.do?cntId=CNT\\_0000000000000001&menuNo=1010000](https://friend.sen.go.kr/sub/content.do?cntId=CNT_0000000000000001&menuNo=1010000)

- 이러한 교육참여수당은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이용률 증가에 유의미한 역할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해당 사업에 대한 평가 연구에서, 이 교육참여수당 지급은 학교 밖 청소년 발굴에 효과가 매우 탁월하며, 이 수당을 지급받은 청소년의 교육 프로그램 재참여 의사도 91.2%로 높게 나타나는 등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보인 것으로 보고(강명숙 외, 2019).
-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은 중앙부처(여성가족부)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와 서울시교육청의 '친구랑'센터 지원을 함께 받음
  - 실제로 2022년도의 학교 밖 청소년 연구에서 면접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지방의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이주한 후 꿈드림센터와 친구랑센터에서 모두 지원을 받고 있었으며, 타 지역 친구의 부러움을 받고 있다고 보고(김희진 외, 2022b).
  - 만약 이 청소년이 서울시내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게 된다면,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지원도 가능하고 이렇게 서울에 지원이 집중되고 있는 것에 비해, 규모가 작은 지역에서는 최소한의 교통비 지원도 쉽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례가 관찰
- 이러한 지원서비스가 집중되는 문제는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차원에서 학생 청소년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아야 함과 동시에, 같은 학교 밖 청소년인 상황에서도 격차 없는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줌

### 제3절 국내 학교 밖 청소년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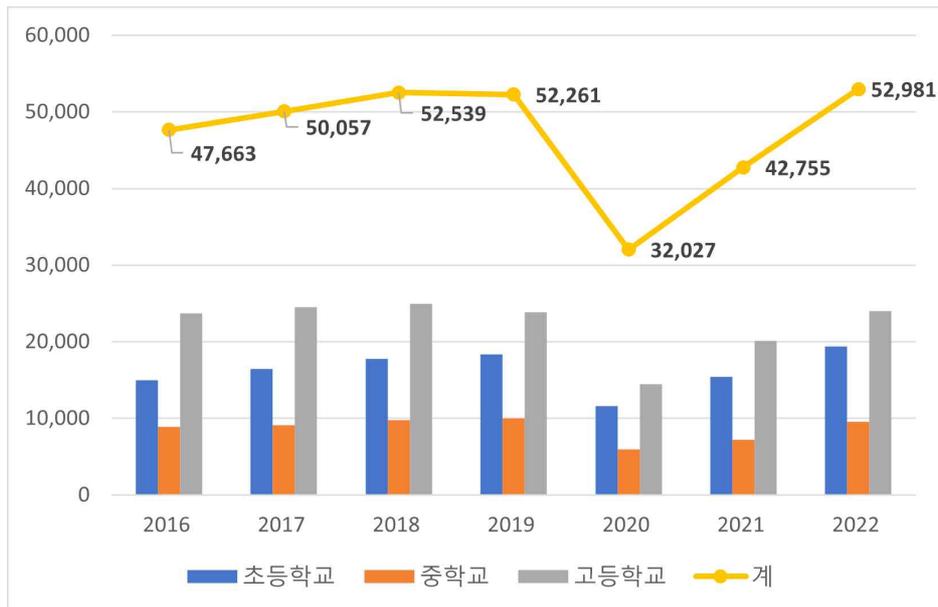
#### 1) 학업중단 현황 및 규모 추이

- 학교를 그만두는 전국 청소년의 수는 코로나19 발생 전까지 매년 5만 명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학령기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서도 그 수에 큰 변동이 없음
-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원격교육이 보편화된 시기에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의 수가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학교에서의 원격교육 전환으로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 등에 따른, 즉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임

<표 II -8> 전국 학교급별 학업중단자 수 추이

시점	학업중단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2016	14,998	8,924	23,741	47,663
2017	16,422	9,129	24,506	50,057
2018	17,797	9,764	24,978	52,539
2019	18,366	10,001	23,894	52,261
2020	11,612	5,976	14,439	32,027
2021	15,389	7,235	20,131	42,755
2022	19,415	9,585	23,981	52,981

■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학업중단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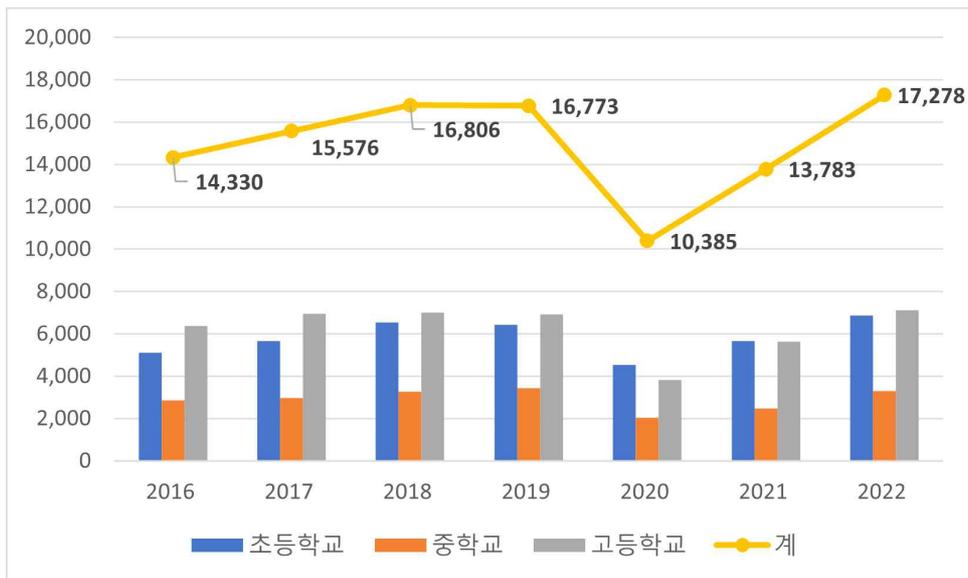
<그림 II -5> 전국 학교급별 학업중단자 수 추이

- 학교를 그만두는 경기도 청소년의 수는 코로나19 발생 전까지 매년 14천~16천명 수준을 보였으며, 학령기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서도 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의 수가 크게 감소. 2022년에 17천명대까지 증가
- 학교를 그만두는 광주시 청소년의 수는 코로나19 발생 전까지 매년 200~300명 수준을 보였으며, 학령기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서도 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의 수가 크게 감소. 2022년에 300명대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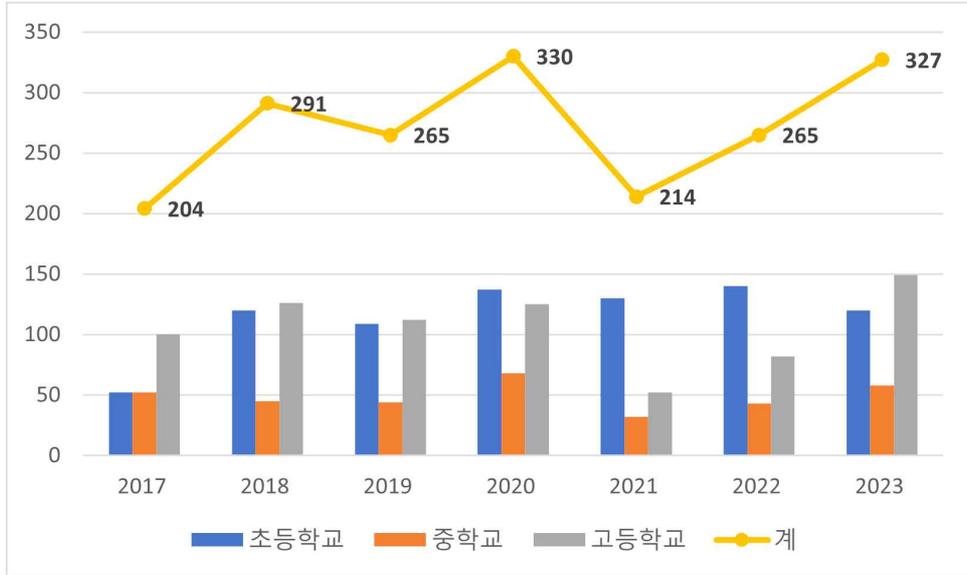
〈표 II-9〉 경기도 및 광주시 학교급별 학업중단자 수 추이

시점	경기도 학업중단자				광주시 학업중단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2016	5,104	2,860	6,366	14,330	52	52	100	204
2017	5,650	2,974	6,952	15,576	120	45	126	291
2018	6,528	3,280	6,998	16,806	109	44	112	265
2019	6,422	3,432	6,919	16,773	137	68	125	330
2020	4,528	2,036	3,821	10,385	130	32	52	214
2021	5,670	2,473	5,640	13,783	140	43	82	265
2022	6,866	3,302	7,110	17,278	120	58	149	327

■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학업중단현황



〈그림 II-6〉 경기도 학교급별 학업중단자 수 추이



<그림 II-7> 광주시 학교급별 학업중단자 수 추이

## 2) 학교 밖 청소년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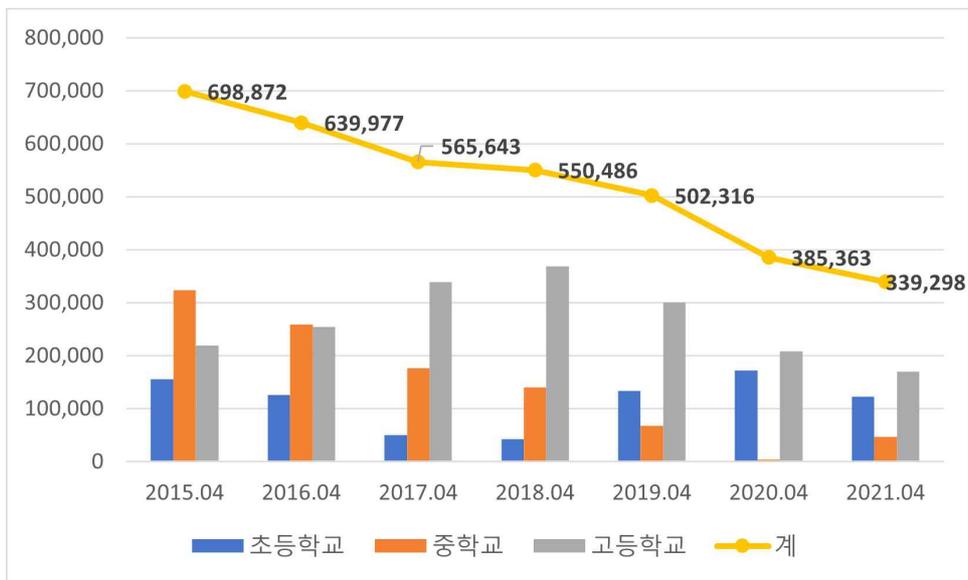
### □ 학교 밖 청소년수 추정방법

- 본 연구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를 추정하는 방법은 백혜정, 송미경(2015) 및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정혜원, 노자은, 2017)의 기본적인 추산 방식을 따름
  - 이는 청소년의 주민등록 인구에서 해당 연령의 학생인구를 제한 수치를 이용
  - 광주시 학령인구(만7~18세) 중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를 7년간 추정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21년까지의 학령인구와 해당 학령인구중 공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 인원내 대한 통계를 활용
  -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 중 연령별 인구 현황 자료(각 년도의 4월 통계: 3월까지 인구를 발표)와 교육부의 교육통계연보 학생 수 자료(각 년도의 4월1일 기준 학생수)를 수집
  - 정혜원, 노자은(2017)은 주민등록상 학령인구(12월 31일 통계)와 재학생 수(4월 1일 통계)의 산출 기준일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 즉 매년 4월 교육통계연보 상 통계로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할 학업중단자수를 추정하여 학생 수에서 감해 주는 과정을 추가함. 그러나 본 연구는 같은 날 기준인 주민등록 인구통계와 교육통계연보 재학생 수를 사용함으로 추정해서 계산해주는 과정을 생략함
  
- 전국 학령기(만7~18세) 학교 밖 청소년 수는 코로나19 발생 전까지 매년 줄어드는 경향을 보임
  -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원격교육이 보편화된 시기에 학교 밖 청소년의 수가 크게 감소
  - 감소율은 2016년 -8.4%, 2017년 -11.6%, 2018년 -2.7%, 2019년 -8.8%, 코로나19가 유행하던 해인 2020년 -23.3%, 2021년 -12.0%로 나타남

<표 II-10> 전국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 규모

시점	주민등록인구				학생수				학교 밖 청소년수(추정)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감소율
2015.04	2,828,820	1,781,302	1,971,540	6,581,662	2,672,843	1,457,490	1,752,457	5,882,790	155,977	323,812	219,083	698,872	
2016.04	2,800,648	1,640,608	1,923,981	6,365,237	2,674,227	1,381,334	1,669,699	5,725,260	126,421	259,274	254,282	639,977	-8.4%
2017.04	2,761,351	1,511,337	1,877,204	6,149,892	2,711,385	1,334,288	1,538,576	5,584,249	49,966	177,049	338,628	565,643	-11.6%
2018.04	2,789,491	1,434,494	1,779,306	6,003,291	2,747,219	1,294,559	1,411,027	5,452,805	42,272	139,935	368,279	550,486	-2.7%
2019.04	2,826,949	1,383,945	1,638,296	5,849,190	2,693,716	1,315,846	1,337,312	5,346,874	133,233	68,099	300,984	502,316	-8.8%
2020.04	2,844,353	1,355,388	1,508,697	5,708,438	2,672,340	1,350,770	1,299,965	5,323,075	172,013	4,618	208,732	385,363	-23.3%
2021.04	2,787,050	1,395,329	1,431,973	5,614,352	2,664,278	1,348,428	1,262,348	5,275,054	122,772	46,901	169,625	339,298	-12.0%

■ 자료: 주민등록인구: 통계청, 학생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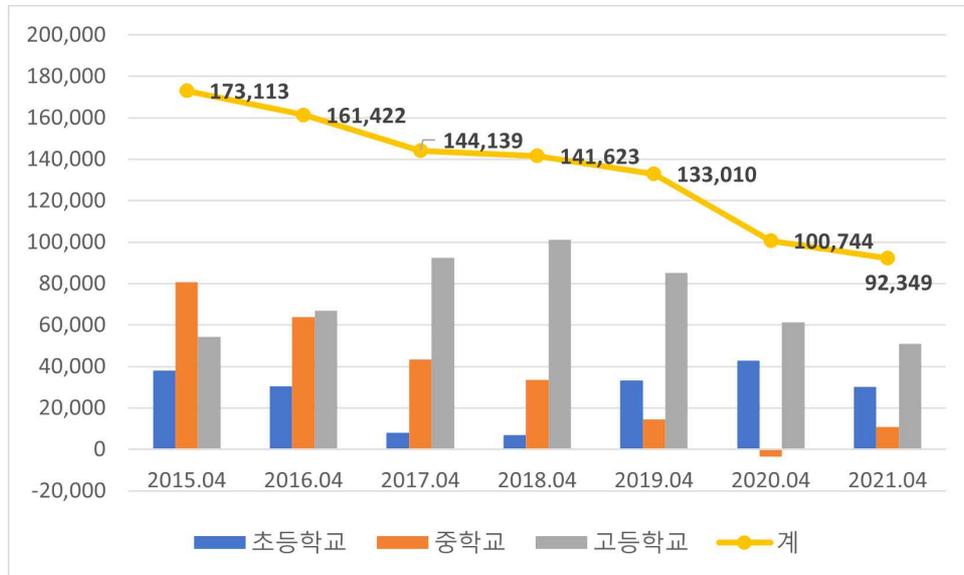
<그림 II-8> 전국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 규모

- 경기도 학령기(만7~18세) 학교 밖 청소년 수는 코로나19 발생 전까지 매년 줄어드는 경향을 보임
  -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수가 크게 감소
  - 감소율은 2016년 -6.8%, 2017년 -10.7%, 2018년 -1.7%, 2019년 -6.1%, 코로나19가 유행하던 해인 2020년 -24.3%, 2021년 -8.3%로 나타남

<표 II-11> 경기도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 규모

시점	주민등록인구				학생수				학교 밖 청소년수(추정)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감소율
2015.04	765,422	461,748	494,724	1,721,894	727,380	381,082	440,319	1,548,781	38,042	80,666	54,405	173,113	
2016.04	764,449	430,715	489,894	1,685,058	733,941	366,856	422,839	1,523,636	30,508	63,859	67,055	161,422	-6.8%
2017.04	760,681	401,845	485,558	1,648,084	752,499	358,438	393,008	1,503,945	8,182	43,407	92,550	144,139	-10.7%
2018.04	776,632	386,649	465,286	1,628,567	769,744	353,032	364,168	1,486,944	6,888	33,617	101,118	141,623	-1.7%
2019.04	795,132	377,446	435,279	1,607,857	761,731	362,917	350,199	1,474,847	33,401	14,529	85,080	133,010	-6.1%
2020.04	806,620	375,045	406,487	1,588,152	763,912	378,472	345,024	1,487,408	42,708	-3,427	61,463	100,744	-24.3%
2021.04	797,692	391,336	391,907	1,580,935	767,346	380,345	340,895	1,488,586	30,346	10,991	51,012	92,349	-8.3%

■ 자료: 주민등록인구: 통계청, 학생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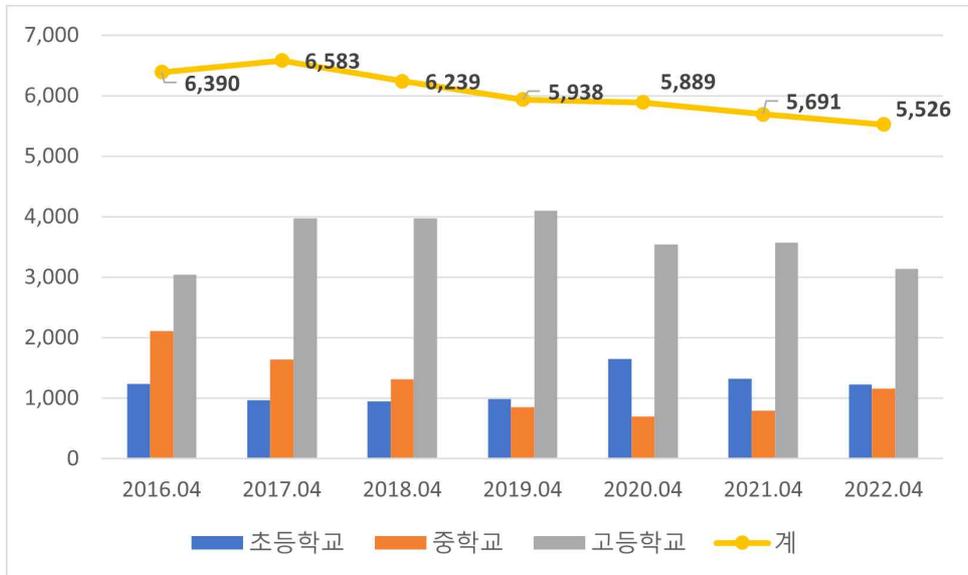
<그림 II-9> 경기도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 규모

- 광주시 학령기(만7~18세) 학교 밖 청소년 수는 매년 줄어드는 경향을 보임
  - 그러나 전국과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수와 달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는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감소율은 2017년 3.0%, 2018년 -5.2%, 2019년 -4.8%, 코로나19가 유행하던 해인 2020년 -0.8%, 2021년 -3.4%, 2022년 -2.9%로 나타남

<표 II-12> 광주시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 규모

시점	주민등록인구				학생수				학교 밖 청소년수(추정)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감소율
2016.04	18,281	9,610	10,613	38,504	17,042	7,501	7,571	32,114	1,239	2,109	3,042	6,390	
2017.04	18,577	9,232	11,343	39,152	17,608	7,589	7,372	32,569	969	1,643	3,971	6,583	3.0%
2018.04	19,764	9,154	10,801	39,719	18,814	7,841	6,825	33,480	950	1,313	3,976	6,239	-5.2%
2019.04	20,855	9,152	10,586	40,593	19,866	8,301	6,488	34,655	989	851	4,098	5,938	-4.8%
2020.04	21,584	9,398	9,931	40,913	19,933	8,706	6,385	35,024	1,651	692	3,546	5,889	-0.8%
2021.04	21,828	10,011	9,916	41,755	20,505	9,217	6,342	36,064	1,323	794	3,574	5,691	-3.4%
2022.04	22,155	10,433	9,661	42,249	20,931	9,271	6,521	36,723	1,224	1,162	3,140	5,526	-2.9%

■ 자료: 주민등록인구: 통계청, 학생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그림 II-10> 광주시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 규모



## III.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III.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1. 설문조사
2. 표적집단면접조사



# 제1절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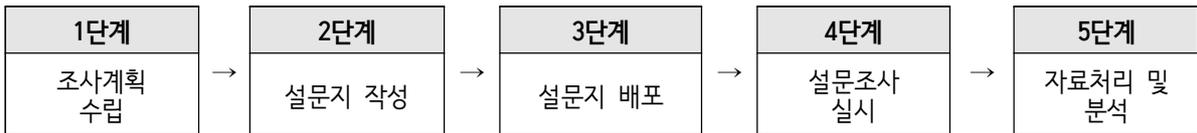
## 1) 설문조사 개요

### □ 개요

- 본 조사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중단 현황, 학업 중단 이후 생활 실태, 심리상태 및 이들을 위한 정책 지원을 위하여 온라인 및 현장 기관 방문을 통한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실시함

### □ 조사 설계

- (조사도구) 본 조사에서 활용한 조사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설문조사를 수행함
- (표본크기)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시설(꿈드림 센터, 4개 대안학교-성문밖학교, LT혁신 학교, 카라크리스천학교, 유니스학교) 등록 청소년 대상 463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함
  - 조사결과, 온라인 설문조사 94명, 꿈드림 센터 현장 설문조사 14명의 설문조사를 마쳤으며, 이중 빈약한 조사 내용의 설문지로 판단되는 2개를 제외한 온라인 설문조사 94명, 꿈드림 센터 현장 설문조사 12개를 분석에 사용함
- (조사시기) 2024년 5월



<그림 Ⅲ-11> 설문조사 절차

### □ 분석방법

- SPSS 통계분석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교차분석, 빈도분석을 실시함

### □ 조사내용

- 본 조사에서 활용한 조사내용은 크게 4개의 영역으로 구분함
  - 학업 중단 관련 일반사항
  - 학교를 그만 둔 이후의 생활실태
  -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
  - 배경요인

## 2)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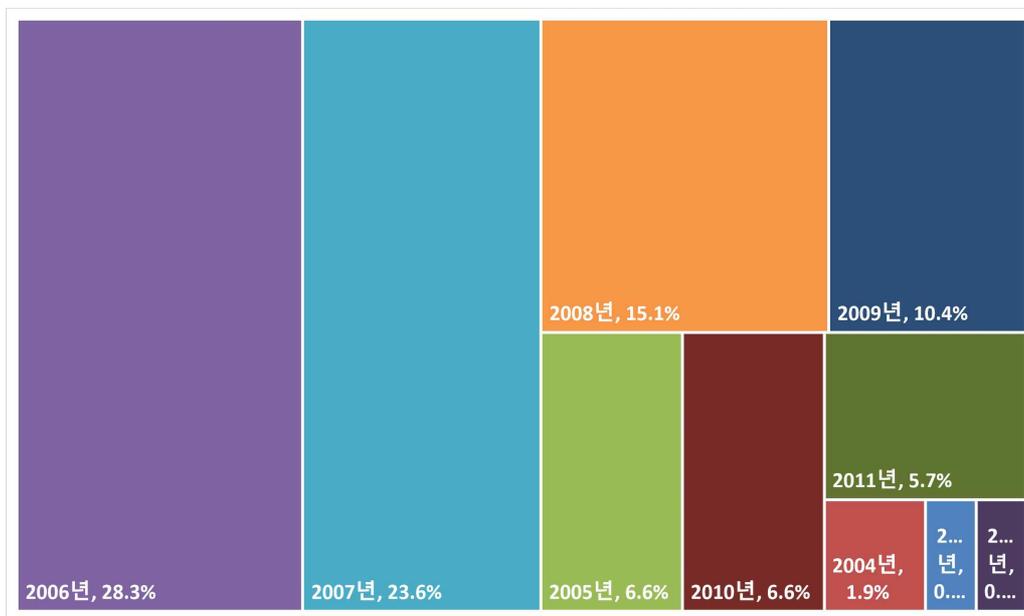
### (1) 조사 응답자의 특성

-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는 학교밖지원센터(꿈드림), 4개의 대안학교, 성문밖학교, LT혁신학교, 카라크리스천학교, 유니스학교를 대상으로 조사되었으며, 조사 응답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 총 조사 응답자는 106명으로 나타남
  - 성별은 남자 45.3%, 여자 54.7%로 나타났으며, 태어난 해(생년)는 후기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하는 2001년~2005년생은 9.4%로 나타났으며, 그외는 2006년생 28.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7년생 23.6%, 2008년생 15.1% 순으로 조사됨
  - 현재 함께 사는 대상은 어머니 34.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 29.4%, 형제자매 27.7% 순으로 나타남
  -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매우 못 산다 1단계 ~ 매우 잘 단다 7단계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4단계 보통이 32.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5단계 31.1%, 3단계 18.9%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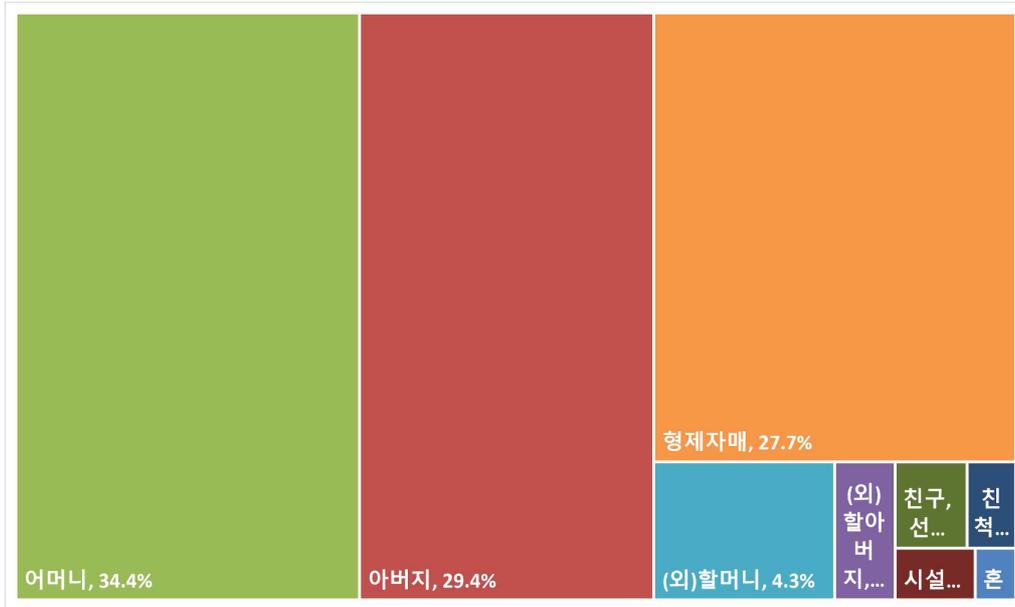
〈표 Ⅲ-13〉 조사응답자의 특성1

구분		빈도	비율	
총계		106	100.0%	
성별	남자	48	45.3%	
	여자	58	54.7%	
생년	후기 학교밖 청소년	2001	1	0.9%
		2004	2	1.9%
		2005	7	6.6%
	학교 밖 청소년	2006	30	28.3%
		2007	25	23.6%
		2008	16	15.1%
		2009	11	10.4%
		2010	7	6.6%
		2011	6	5.7%
		2012	1	0.9%
현재 함께 사는 대상 (다중응답)	혼자	1	0.4%	
	아버지	83	29.4%	
	어머니	97	34.4%	
	(외)할아버지	4	1.4%	
	(외)할머니	12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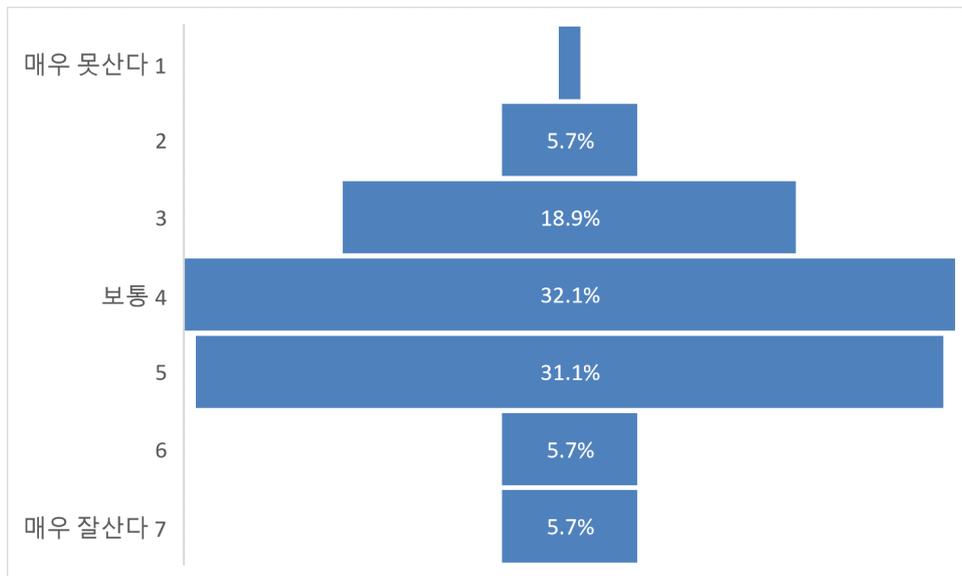
	형제자매		78	27.7%
	친척		2	0.7%
	시설 및 기관 선생님		2	0.7%
	친구, 선후배		3	1.1%
	계		282	100.0%
가정의 경제적 수준	매우 못 산다	1단계	1	0.9%
		2단계	6	5.7%
		3단계	20	18.9%
	보통	4단계	34	32.1%
		5단계	33	31.1%
		6단계	6	5.7%
	매우 잘 산다	7단계	6	5.7%



<그림 Ⅲ-12> 태어난 해



<그림 Ⅲ-13> 현재 함께 사는 대상



<그림 Ⅲ-14> 가정의 경제적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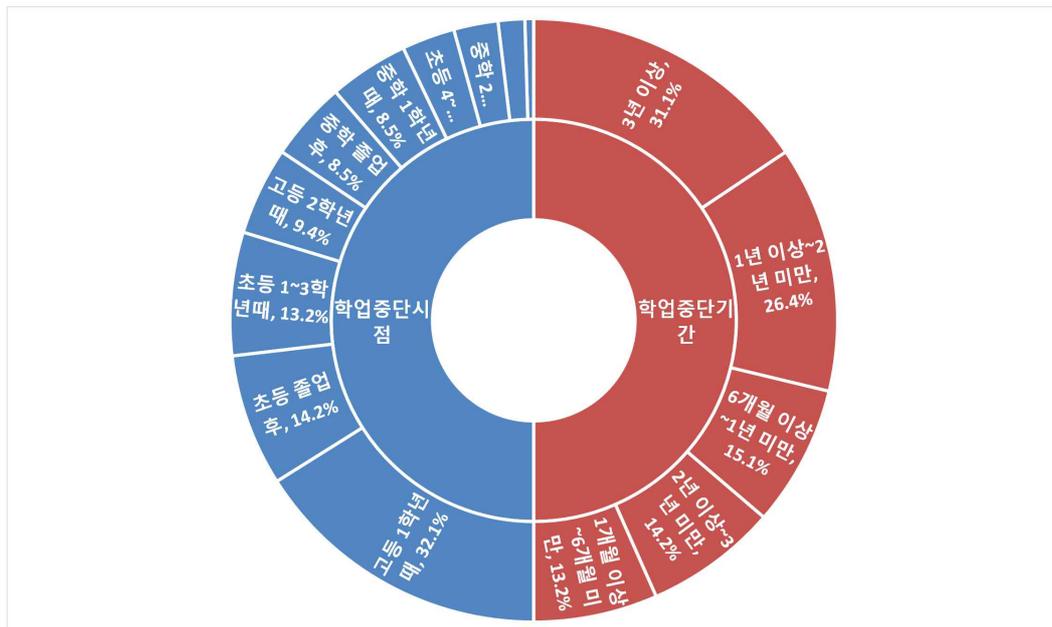
## (2) 학업 중단 관련 일반사항

○ 학업중단 시점 및 학업중단기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학업중단시점은 고등 1학년때가 32.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초등 졸업 후 14.2%, 초등 1~3학년때 13.2% 순으로 나타남
- 학업중단기간은 3년 이상이 31.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년 이상~2년 미만 26.4%, 6개월 이상~1년 미만 15.1% 순으로 나타남

<표 Ⅲ-14> 학업중단 시점 및 기간

구분		빈도	비율
학업중단시점	초등 1~3학년때	14	13.2%
	초등 4~6학년때	6	5.7%
	초등 졸업 후	15	14.2%
	중학 1학년때	9	8.5%
	중학 2학년때	5	4.7%
	중학 3학년때	3	2.8%
	중학 졸업 후	9	8.5%
	고등 1학년때	34	32.1%
	고등 2학년때	10	9.4%
	고등 3학년때	1	0.9%
학업중단기간	1개월 미만	0	0.0%
	1개월 이상~6개월 미만	14	13.2%
	6개월 이상~1년 미만	16	15.1%
	1년 이상~2년 미만	28	26.4%
	2년 이상~3년 미만	15	14.2%
	3년 이상	33	3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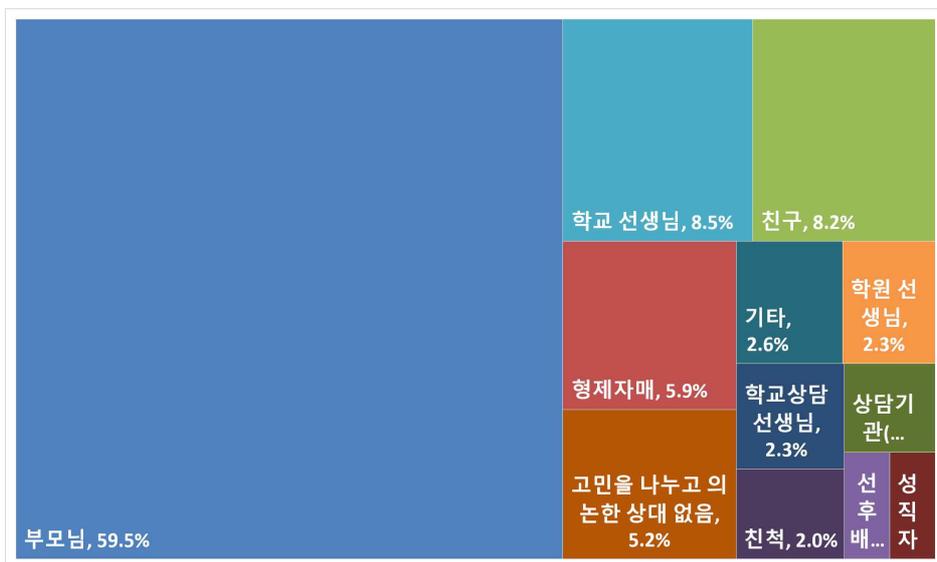
<그림 Ⅲ-15> 학업중단 시점 및 기간

○ 학교를 그만둘 무렵 고민을 나누는 상대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1순위) 부모님이 82.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친구 5.7%, 고민을 나누고 의논한 상대 없음 3.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순위) 학교 선생님이 25.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형제자매 16.7%, 친구 13.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종합) 부모님이 59.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학교 선생님 8.5%, 친구 8.2%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Ⅲ-15> 학교를 그만둘 무렵 고민을 나누는 상대

구분	1순위		2순위		종합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고민을 나누는 상대	부모님	87	82.9%	8	8.3%	182	59.5%
	형제자매	1	1.0%	16	16.7%	18	5.9%
	친구	6	5.7%	13	13.5%	25	8.2%
	선후배	1	1.0%	1	1.0%	3	1.0%
	학교 선생님	1	1.0%	24	25.0%	26	8.5%
	학원 선생님	2	1.9%	3	3.1%	7	2.3%
	학교상담 선생님	1	1.0%	5	5.2%	7	2.3%
	성직자(목사님, 신부님, 스님 등)	0	0.0%	3	3.1%	3	1.0%
	상담기관(상담사, 인터넷상담 등)	1	1.0%	3	3.1%	5	1.6%
	친척	0	0.0%	6	6.3%	6	2.0%
	기타	1	1.0%	6	6.3%	8	2.6%
	고민을 나누고 의논한 상대 없음	4	3.8%	8	8.3%	16	5.2%
	총계	105	100.0%	96	100.0%	306	100.0%



<그림 Ⅲ-16> 학교를 그만둘 무렵 고민을 나누는 상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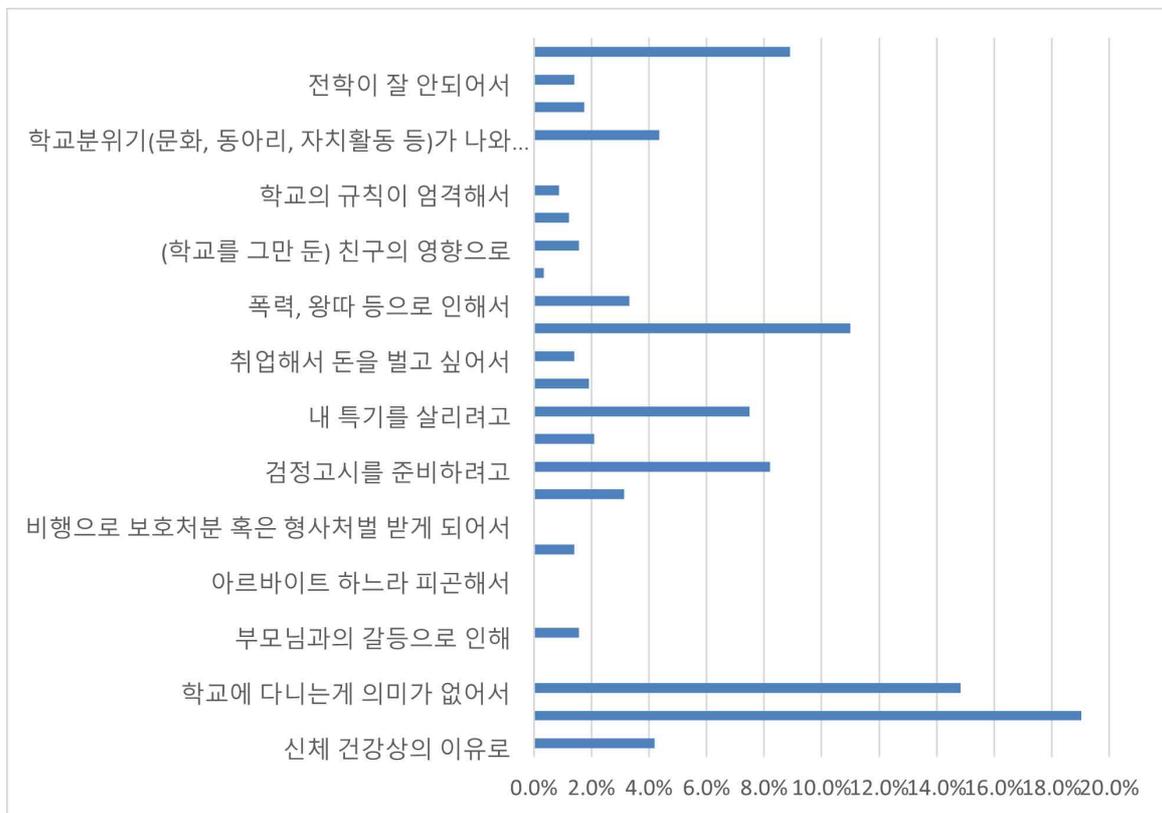
○ 학교를 그만둔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1순위) 심리·정신적인 문제로가 25.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학교에 다니는 게 의미가 없어서 13.3%, 다른 곳에서 원하는 것을 배우고 싶어서 10.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순위) 학교에 다니는게 의미가 없어서 15.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심리·정신적인 문제로 13.5%, 내 특기를 살리려고 12.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3순위) 학교에 다니는게 의미가 없어서 18.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다른 곳에서 원하는 것을 배우고 싶어서 12.5%, 기타 11.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종합) 심리·정신적인 문제로 19.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학교에 다니는 게 의미가 없어서 14.8%, 다른 곳에서 원하는 것을 배우고 싶어서 11.0%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Ⅲ-16> 학교를 그만둔 이유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종합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학교 그만둔 이유	신체 건강상의 이유로	5	4.8%	4	4.5%	1	1.3%	24	4.2%
	심리·정신적인 문제로	27	25.7%	12	13.5%	4	5.0%	109	19.0%
	학교에 다니는게 의미가 없어서	14	13.3%	14	15.7%	15	18.8%	85	14.8%
	집안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0	0.0%	0	0.0%	0	0.0%	0	0.0%
	부모님과의 갈등으로 인해	2	1.9%	1	1.1%	1	1.3%	9	1.6%
	부모님의 잦은 싸움 등 불화로 인해	0	0.0%	0	0.0%	0	0.0%	0	0.0%
	아르바이트 하느라 피곤해서	0	0.0%	0	0.0%	0	0.0%	0	0.0%
	밤늦게까지 게임, 인터넷, 휴대폰 하느라	1	1.0%	1	1.1%	3	3.8%	8	1.4%
	비행으로 보호처분 혹은 형사처벌 받게 되어서	0	0.0%	0	0.0%	0	0.0%	0	0.0%
	학업성적이 잘 안나와서	3	2.9%	3	3.4%	3	3.8%	18	3.1%
	검정고시를 준비하려고	7	6.7%	10	11.2%	6	7.5%	47	8.2%
	공부하기 싫어서	3	2.9%	0	0.0%	3	3.8%	12	2.1%
	내 특기를 살리려고	5	4.8%	11	12.4%	6	7.5%	43	7.5%
	이민 또는 해외유학하려고	3	2.9%	1	1.1%	0	0.0%	11	1.9%
	취업해서 돈을 벌고 싶어서	1	1.0%	2	2.2%	1	1.3%	8	1.4%
	다른 곳에서 원하는 것을 배우고 싶어서	11	10.5%	10	11.2%	10	12.5%	63	11.0%
폭력, 왕따 등으로 인해서	3	2.9%	5	5.6%	0	0.0%	19	3.3%	

이성문제로 인해서	0	0.0%	0	0.0%	2	2.5%	2	0.3%
(학교를 그만 둔) 친구의 영향으로	1	1.0%	3	3.4%	0	0.0%	9	1.6%
선생님과의 갈등 때문에	2	1.9%	0	0.0%	1	1.3%	7	1.2%
학교의 규칙이 엄격해서	1	1.0%	1	1.1%	0	0.0%	5	0.9%
학교 규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아서	0	0.0%	0	0.0%	0	0.0%	0	0.0%
학교분위기(문화, 동아리, 자치활동 등)가 나와 잘 맞지 않아서	3	2.9%	3	3.4%	10	12.5%	25	4.4%
학교가 너무 멀어서	1	1.0%	2	2.2%	3	3.8%	10	1.7%
전학이 잘 안되어서	2	1.9%	0	0.0%	2	2.5%	8	1.4%
기타	10	9.5%	6	6.7%	9	11.3%	51	8.9%
총계	105	100.0%	89	100.0%	80	100.0%	57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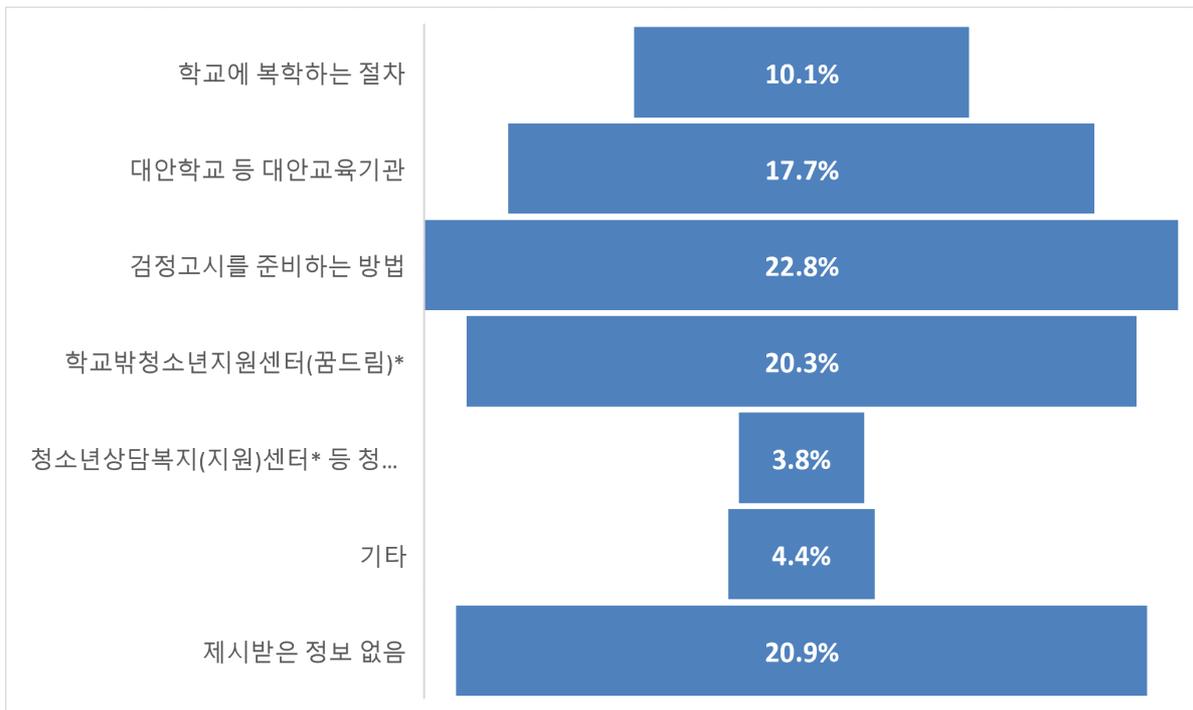
<그림 Ⅲ-17> 학교를 그만둔 이유

○ 학교를 그만둘 당시 학교에서 제시받은 정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방법이 22.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제시받은 정보 없음 20.9%,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20.3%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Ⅲ-17> 학교를 그만둘 당시 학교에서 제시받은 정보

구분	빈도	비율	
제시받은정보 (다중응답)	학교에 복학하는 절차	16	10.1%
	대안학교 등 대안교육기관	28	17.7%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방법	36	22.8%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32	20.3%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 등 청소년시설	6	3.8%
	기타	7	4.4%
	제시받은 정보 없음	33	20.9%
전체	158	100.0%	



<그림 Ⅲ-18> 학교를 그만둘 당시 학교에서 제시받은 정보

○ 학교를 그만둘 당시 부모님(보호자)의 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그렇다(3), 매우 그렇다(4점)으로 조사되었으며, 역코딩 항목은 부정적인 질문으로 다른 항목과 비교를 위해서 점수를 역코딩해줌으로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주게 계산함
- 부모님(보호자)의 태도 전체 평균은 3.43점으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12.9%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부모님(보호자)의 태도 중 ‘내 몸에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남을 정도로 때리셨다(역코딩)’ 항목이 평균 3.7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으며, 다음으로 ‘나에게 심한 말이나 욕설을 하셨다(역코딩)’ 3.64점, ‘나를 잘 알고 이해해주셨다’ 및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관심이 없으셨다(역코딩)’ 3.40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Ⅲ-18> 학교를 그만둘 당시 부모님(보호자)의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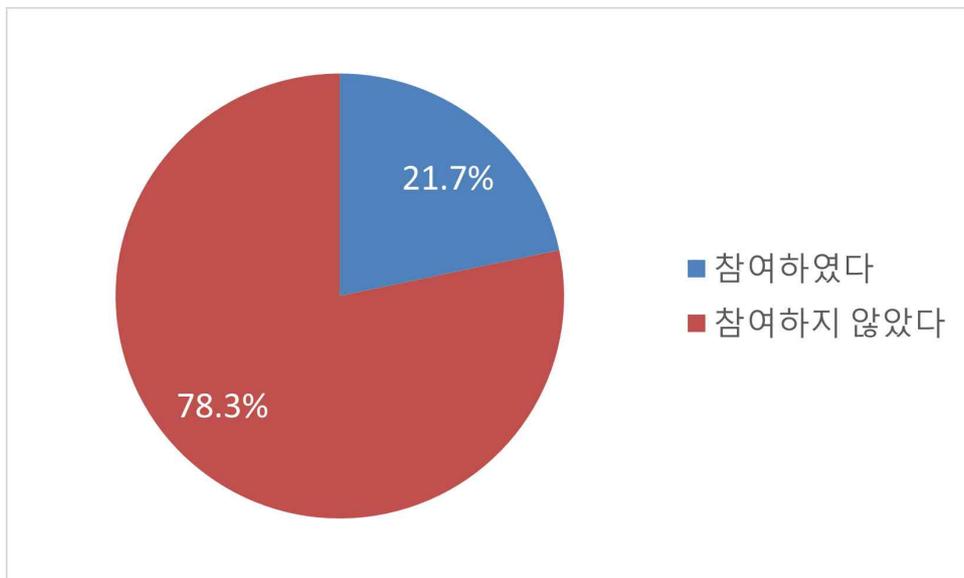
구분	내용	평균	표준 편차	전체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그렇다 (3)	매우 그렇다 (4)
부모님(보호자) 의 태도	전체	3.43	0.59	742	38	58	196	450
				100.0%	5.1%	7.8%	26.4%	60.6%
	나를 잘 알고 이해해주셨다	3.40	0.75	106	3	8	39	56
				100.0%	2.8%	7.5%	36.8%	52.8%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 위로해 주셨다	3.16	0.93	106	10	8	43	45
				100.0%	9.4%	7.5%	40.6%	42.5%
	경제적 걱정 없이 생활하게 해주셨다	3.27	0.88	106	8	6	41	51
				100.0%	7.5%	5.7%	38.7%	48.1%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관심이 없으셨다(역코딩)	3.40	0.86	106	6	8	30	62	
			100.0%	5.7%	7.5%	28.3%	58.5%	
늦게 들어와도 신경쓰지 않으셨다(역코딩)	3.35	0.93	106	7	12	24	63	
			100.0%	6.6%	11.3%	22.6%	59.4%	
내 몸에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남을 정도로 때리셨다(역코딩)	3.76	0.64	106	2	6	7	91	
			100.0%	1.9%	5.7%	6.6%	85.8%	
나에게 심한 말이나 욕설을 하셨다(역코딩)	3.64	0.73	106	2	10	12	82	
			100.0%	1.9%	9.4%	11.3%	77.4%	

○ 학업중단속려제 참여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참여하였다 21.7%, 참여하지 않았다 78.3%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Ⅲ-19> 학업중단속려제 참여여부

구분		빈도	비율
학업중단속려제 참여여부	참여하였다	23	21.7%
	참여하지 않았다	83	78.3%
	총계	10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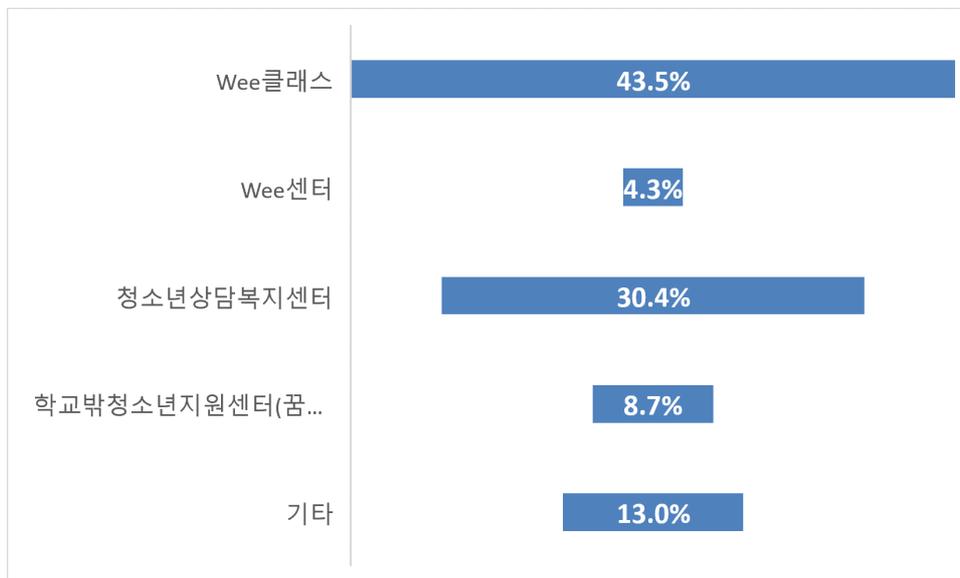


<그림 Ⅲ-19> 학업중단속려제 참여여부

- (학업중단속려제 참여자 대상) 학업중단속려제 기간 동안 상담을 받았던 기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Wee클래스가 43.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0.4%, 기타 13.0%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Ⅲ-20> 학업중단속려제 상담기관**

구분	빈도	비율	
학업중단속려제 상담기관	Wee클래스	10	43.5%
	Wee센터	1	4.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7	30.4%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2	8.7%
	기타	3	13.0%
	총계	2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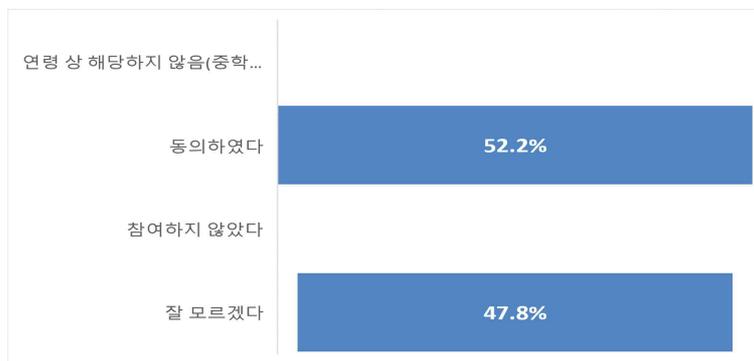


**<그림 Ⅲ-20> 학업중단속려제 상담기관**

- (학업중단숙려제 참여자 대상) 학업중단숙려제 이후 학교를 그만둘 당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제공에 동의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동의하였다 52.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하지 않은 대상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47.8%나 차지하여 이 중에서 참여하지 않은 대상자가 있을 수는 있음

**<표 Ⅲ-21> 학업중단숙려제 이후 개인정보제공 동의 여부**

구분		빈도	비율
학업중단숙려제 개인정보제공 동의	연령 상 해당하지 않음(중학연령 이하)	0	0.0%
	동의하였다	12	52.2%
	참여하지 않았다	0	0.0%
	잘 모르겠다	11	47.8%
	총계	2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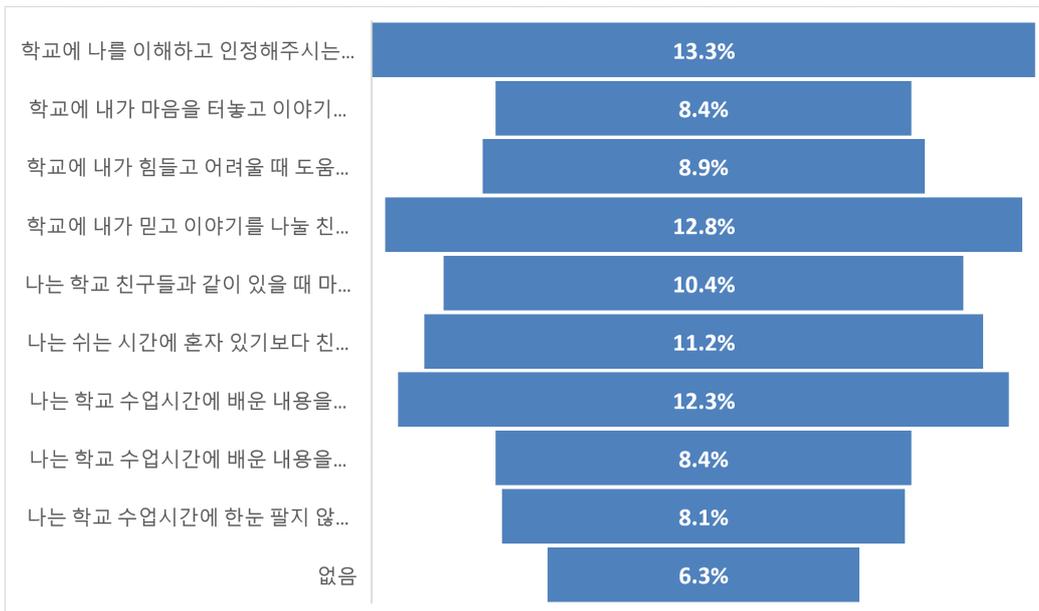
**<그림 Ⅲ-21> 학업중단숙려제 개인정보제공 동의 여부**

○ 학교를 그만두기 전 긍정적인 학교생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학교에 내가 믿고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있었다 12.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나는 학교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12.3%, 나는 쉬는 시간에 혼자 있기보다 친구들과 함께 지냈다 11.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긍정적인 학교생활 내용이 없었다는 비중도 6.3%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Ⅲ-22> 학교를 그만두기 전 긍정적인 학교생활

구분	빈도	비율	
긍정적인 학교생활 (다중응답)	학교에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주는 선생님이 계셨다	51	13.3%
	학교에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선생님이 계셨다	32	8.4%
	학교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시는 선생님이 계셨다	34	8.9%
	학교에 내가 믿고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있었다	49	12.8%
	나는 학교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 마음이 편했다	40	10.4%
	나는 쉬는 시간에 혼자 있기보다 친구들과 함께 지냈다	43	11.2%
	나는 학교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47	12.3%
	나는 학교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정리하였다	32	8.4%
	나는 학교 수업시간에 한눈 팔지 않고 집중하여 잘 들었다	31	8.1%
	없음	24	6.3%
전체	38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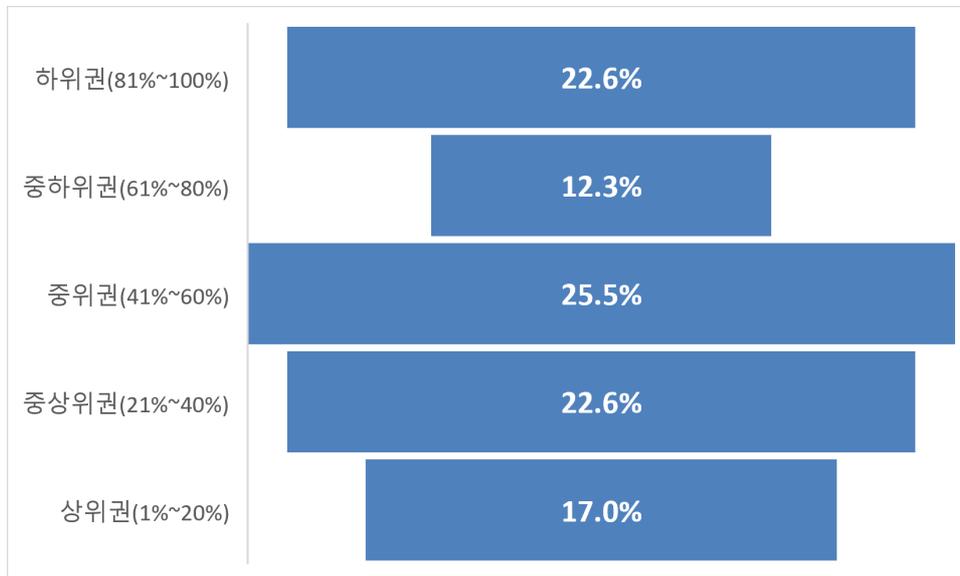
<그림 Ⅲ-22> 학교를 그만두기 전 긍정적인 학교생활

○ 학교를 그만둘 당시 학교 성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중위권(61%~80%) 25.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중상위권(21%~40%) 및 하위권(81%~100%) 22.6%, 상위권(1%~20%) 17.0%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Ⅲ-23> 학교를 그만둘 당시 학교 성적

구분		빈도	비율
학교 그만둘 당시 학교성적	하위권(81%~100%)	24	22.6%
	중하위권(61%~80%)	13	12.3%
	중위권(41%~60%)	27	25.5%
	중상위권(21%~40%)	24	22.6%
	상위권(1%~20%)	18	17.0%
	총계	10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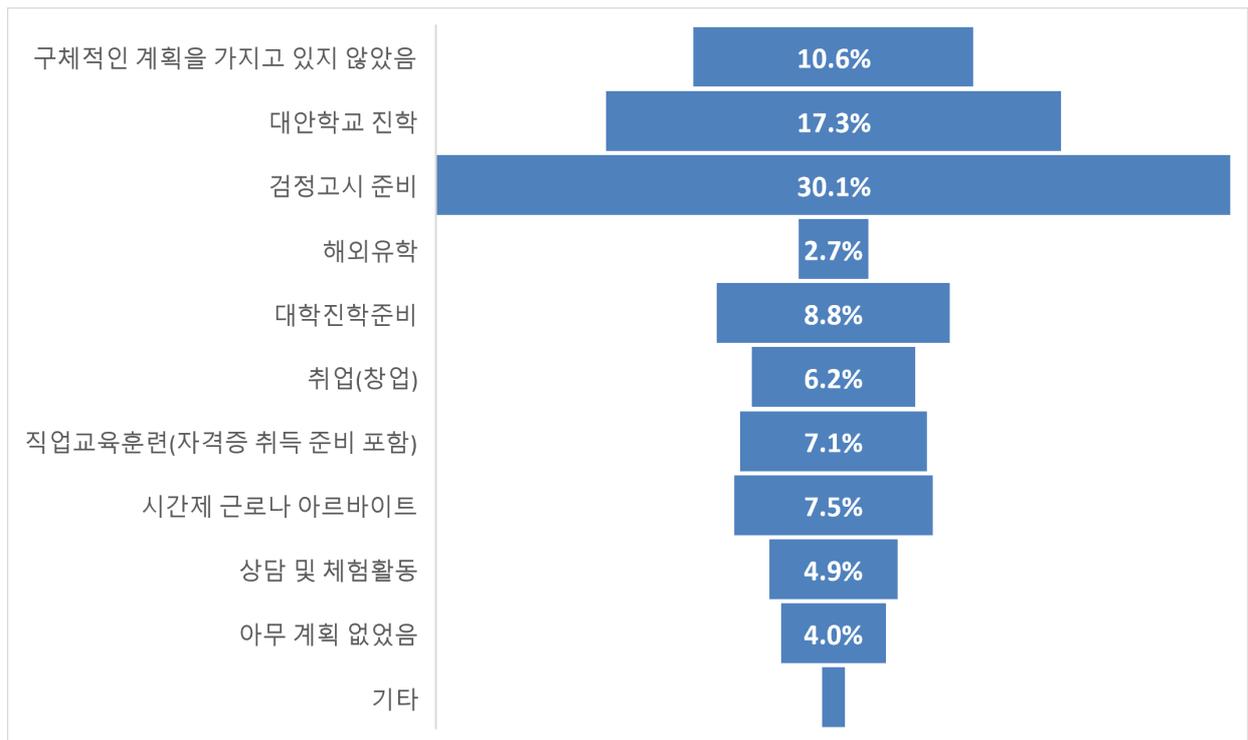
<그림 Ⅲ-23> 학교를 그만둘 당시 학교 성적

○ 학교를 그만둘 당시 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검정고시가 준비 30.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대안학교 진학 17.3%,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 10.6%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Ⅲ-24> 학교를 그만둘 당시 계획

구분	빈도	비율	
학교그만둘당시계획 (다중응답)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	24	10.6%
	대안학교 진학	39	17.3%
	검정고시 준비	68	30.1%
	해외유학	6	2.7%
	대학진학준비	20	8.8%
	취업(창업)	14	6.2%
	직업교육훈련(자격증 취득 준비 포함)	16	7.1%
	시간제 근로나 아르바이트	17	7.5%
	상담 및 체험활동	11	4.9%
	아무 계획 없었음	9	4.0%
	기타	2	0.9%
전체	226	100.0%	



<그림 Ⅲ-24> 학교를 그만둘 당시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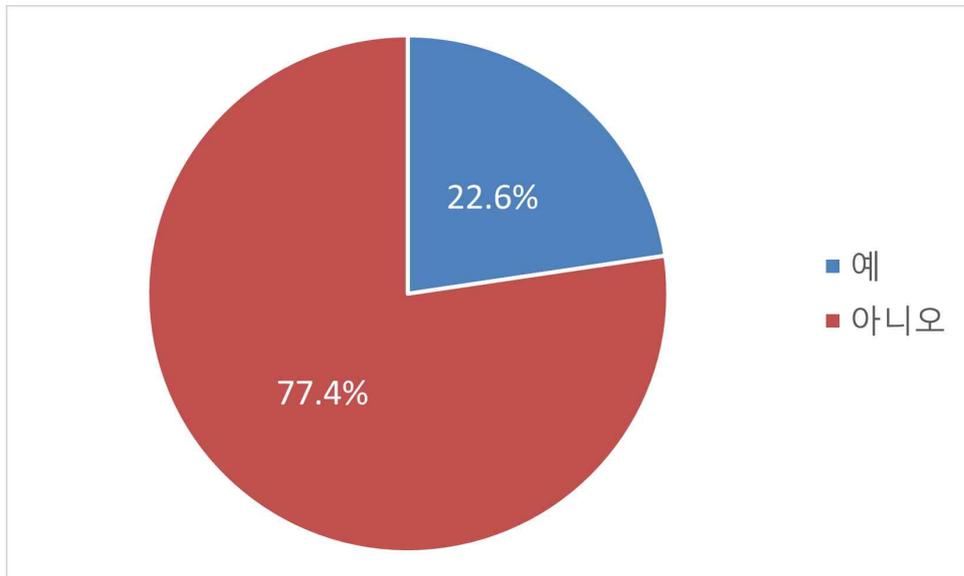
### (3) 학교를 그만둔 이후의 생활실태

○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한 후회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후회하였다의 응답인 '예'가 22.6%로 나타났으며, '아니오' 77.4%로 나타남

<표 Ⅲ-25>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한 후회 여부

구분		빈도	비율
학교 그만둔 것에 대한 후회여부	예	24	22.6%
	아니오	82	77.4%
	총계	10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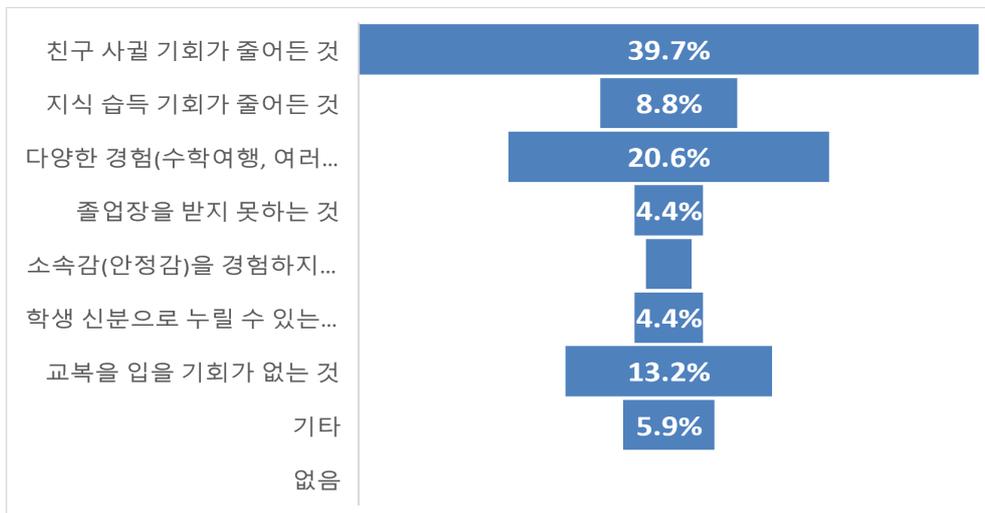
<그림 Ⅲ-25> 교를 그만둔 것에 대한 후회 여부

○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한 후회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1순위) 친구 사귄 기회가 줄어든 것이 54.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다양한 경험(수학여행, 여러 활동 등)을 못하는 것 20.8%, 교복을 입을 기회가 없는 것 12.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순위) 지식 습득 기회가 줄어든 것 및 다양한 경험(수학여행, 여러 활동 등)을 못하는 것 20.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학생 신분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나 이익을 못 누리는 것 및 교복을 입을 기회가 없는 것 15.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종합) 친구 사귄 기회가 줄어든 것 39.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다양한 경험(수학여행, 여러 활동 등)을 못하는 것 20.6%, 교복을 입을 기회가 없는 것 13.2%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Ⅲ-26>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한 후회 내용

구분	1순위		2순위		종합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학교 그만둔 것에 대한 후회내용	친구 사귄 기회가 줄어든 것	13	54.2%	1	5.0%	27	39.7%
	지식 습득 기회가 줄어든 것	1	4.2%	4	20.0%	6	8.8%
	다양한 경험(수학여행, 여러 활동 등)을 못하는 것	5	20.8%	4	20.0%	14	20.6%
	졸업장을 받지 못하는 것	1	4.2%	1	5.0%	3	4.4%
	소속감(안정감)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0	0.0%	2	10.0%	2	2.9%
	학생 신분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나 이익을 못 누리는 것	0	0.0%	3	15.0%	3	4.4%
	교복을 입을 기회가 없는 것	3	12.5%	3	15.0%	9	13.2%
	기타	1	4.2%	2	10.0%	4	5.9%
	없음	0	0.0%	0	0.0%	0	0.0%
총계	24	100.0%	20	100.0%	6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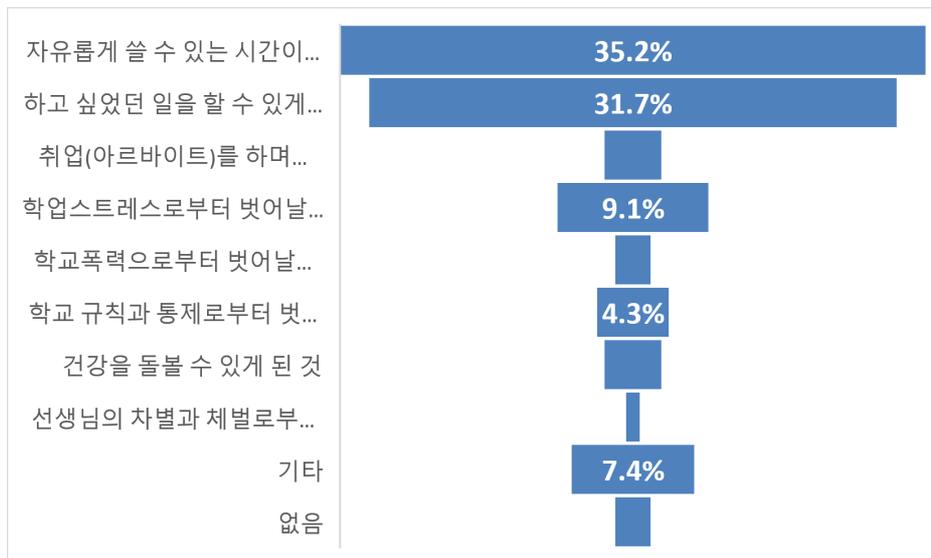
<그림 Ⅲ-26>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한 후회 내용

○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한 후회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1순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 것이 40.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 24.7%, 학업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 것 및 기타 8.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순위)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48.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 것 22.1%, 학업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 것 10.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종합)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 것이 35.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 31.7%, 학업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 것 9.1%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Ⅲ-27>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한 후회하지 않은 이유

구분	1순위		2순위		종합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학교 그만둔 것에 대한 후회하지 않은 이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 것	33	40.7%	15	22.1%	81	35.2%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	20	24.7%	33	48.5%	73	31.7%
	취업(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 수 있게 된 것	3	3.7%	2	2.9%	8	3.5%
	학업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 것	7	8.6%	7	10.3%	21	9.1%
	학교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 것	2	2.5%	1	1.5%	5	2.2%
	학교 규칙과 통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 것	2	2.5%	6	8.8%	10	4.3%
	건강을 돌볼 수 있게 된 것	4	4.9%	0	0.0%	8	3.5%
	선생님의 차별과 체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 것	1	1.2%	0	0.0%	2	0.9%
	기타	7	8.6%	3	4.4%	17	7.4%
	없음	2	2.5%	1	1.5%	5	2.2%
총계	81	100.0%	68	100.0%	230	100.0%	



<그림 Ⅲ-27>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한 후회하지 않은 이유

○ 학교를 그만둔 후 기관 및 서비스\*를 처음 이용한 시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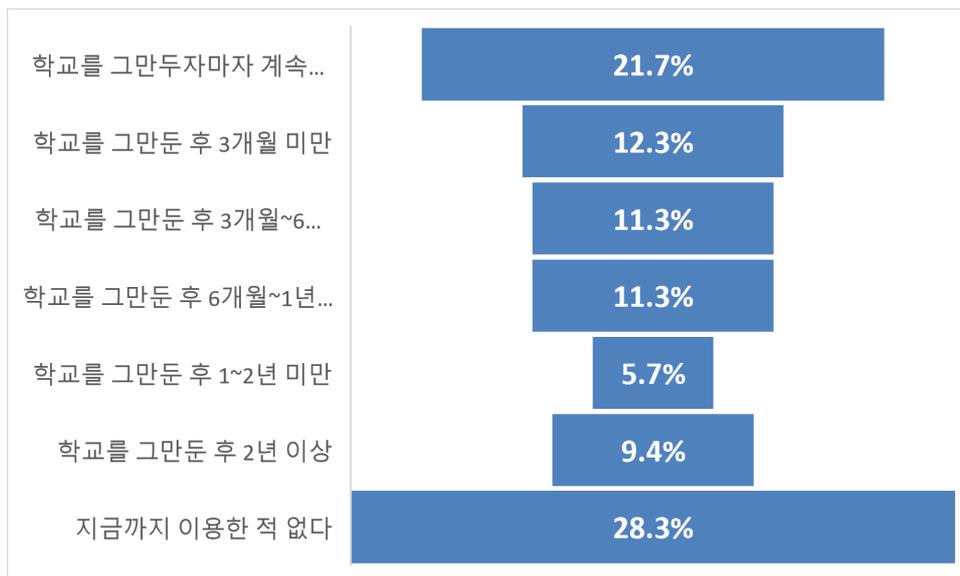
- 지금까지 이용한 적 없다가 28.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학교를 그만두자마자 계속 이용 21.7%, 학교를 그만둔 후 3개월 미만 12.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기관 및 서비스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일반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에게 상담·학업, 자립(직업체험·취업 등)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개인·집단상담, 전화/사이버 상담, 심리검사 등의 상담·지원활동 제공 기관
• 내일이룸학교: 만 15~24세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 내일배움카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 등을 지원하는 사업

<표 Ⅲ-28> 기관 및 서비스 이용 시기

구분	빈도	비율	
기관 및 서비스 이용 시기	학교를 그만두자마자 계속 이용	23	21.7%
	학교를 그만둔 후 3개월 미만	13	12.3%
	학교를 그만둔 후 3개월~6개월 미만	12	11.3%
	학교를 그만둔 후 6개월~1년 미만	12	11.3%
	학교를 그만둔 후 1~2년 미만	6	5.7%
	학교를 그만둔 후 2년 이상	10	9.4%
	지금까지 이용한 적 없다	30	28.3%
	총계	10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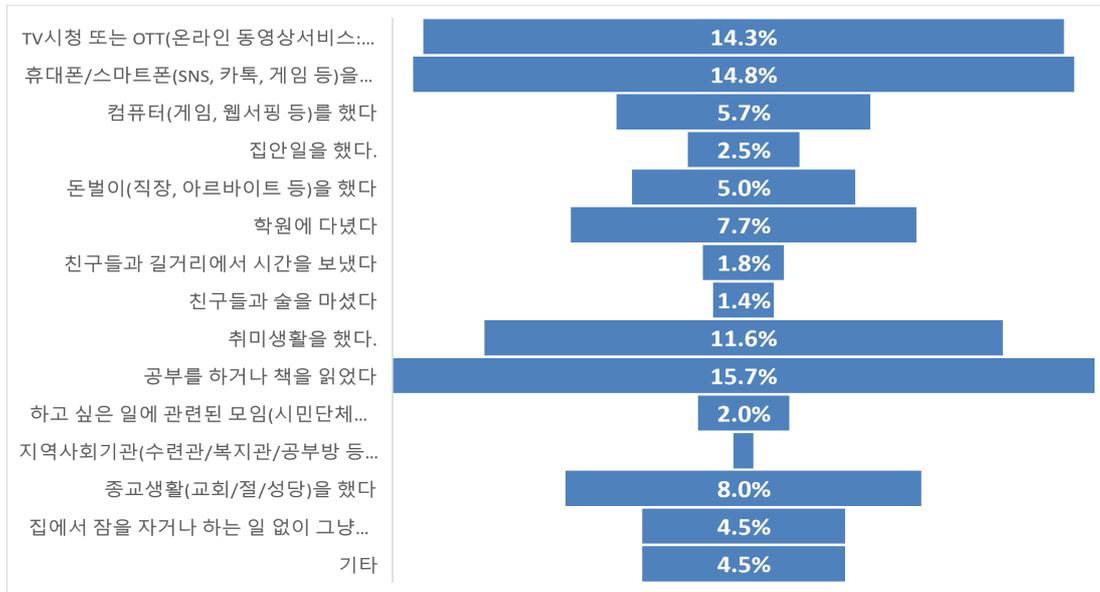
<그림 Ⅲ-28> 기관 및 서비스 이용 시기

○ 기관 및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던 기간 동안 한 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1순위)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었다 19.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휴대폰/스마트폰(SNS, 카톡, 게임 등)을 했다 18.2%, TV시청 또는 OTT(온라인 동영상서비스)을 이용하였다 13.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순위) TV시청 또는 OTT(온라인 동영상서비스)을 이용하였다 16.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휴대폰/스마트폰(SNS, 카톡, 게임 등)을 했다 15.5%,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었다 14.1%, 종교생활(교회/절/성당)을 했다 12.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3순위) 취미생활을 했다. 20.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TV시청 또는 OTT(온라인 동영상서비스)을 이용하였다 및 컴퓨터(게임, 웹서핑 등)를 했다 13.4%, 집에서 잠을 자거나 하는 일 없이 그냥 시간을 보냈다 11.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종합)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었다 15.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휴대폰/스마트폰(SNS, 카톡, 게임 등)을 했다 14.8%, TV시청 또는 OTT(온라인 동영상서비스)을 이용하였다 14.3%, 취미생활을 했다 11.6%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Ⅲ-29> 기관 및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던 기간 동안 한 일들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종합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이용하지 않았던 기간 동안 한 일들	TV시청 또는 OTT(온라인 동영상서비스: 예: 유튜브, 넷플릭스, 왓차, 애플TV 등)을 이용하였다	10	13.0%	12	16.9%	9	13.4%	63	14.3%
	휴대폰/스마트폰(SNS, 카톡, 게임 등)을 했다	14	18.2%	11	15.5%	1	1.5%	65	14.8%
	컴퓨터(게임, 웹서핑 등)를 했다	2	2.6%	5	7.0%	9	13.4%	25	5.7%
	집안일을 했다.	1	1.3%	2	2.8%	4	6.0%	11	2.5%
	돈벌이(직장, 아르바이트 등)을 했다	5	6.5%	2	2.8%	3	4.5%	22	5.0%
	학원에 다녔다	9	11.7%	1	1.4%	5	7.5%	34	7.7%
	친구들과 길거리에서 시간을 보냈다	0	0.0%	3	4.2%	2	3.0%	8	1.8%
	친구들과 술을 마셨다	2	2.6%	0	0.0%	0	0.0%	6	1.4%
	취미생활을 했다.	7	9.1%	8	11.3%	14	20.9%	51	11.6%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었다	15	19.5%	10	14.1%	4	6.0%	69	15.7%
	하고 싶은 일에 관련된 모임(시민단체 활동,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등)에 참여했다	1	1.3%	2	2.8%	2	3.0%	9	2.0%
	지역사회기관(수련관/복지관/공부방 등)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0	0.0%	1	1.4%	0	0.0%	2	0.5%
	종교생활(교회/절/성당)을 했다	5	6.5%	9	12.7%	2	3.0%	35	8.0%
	집에서 잠을 자거나 하는 일 없이 그냥 시간을 보냈다	2	2.6%	3	4.2%	8	11.9%	20	4.5%
기타	4	5.2%	2	2.8%	4	6.0%	20	4.5%	
총계	77	100.0%	71	100.0%	67	100.0%	44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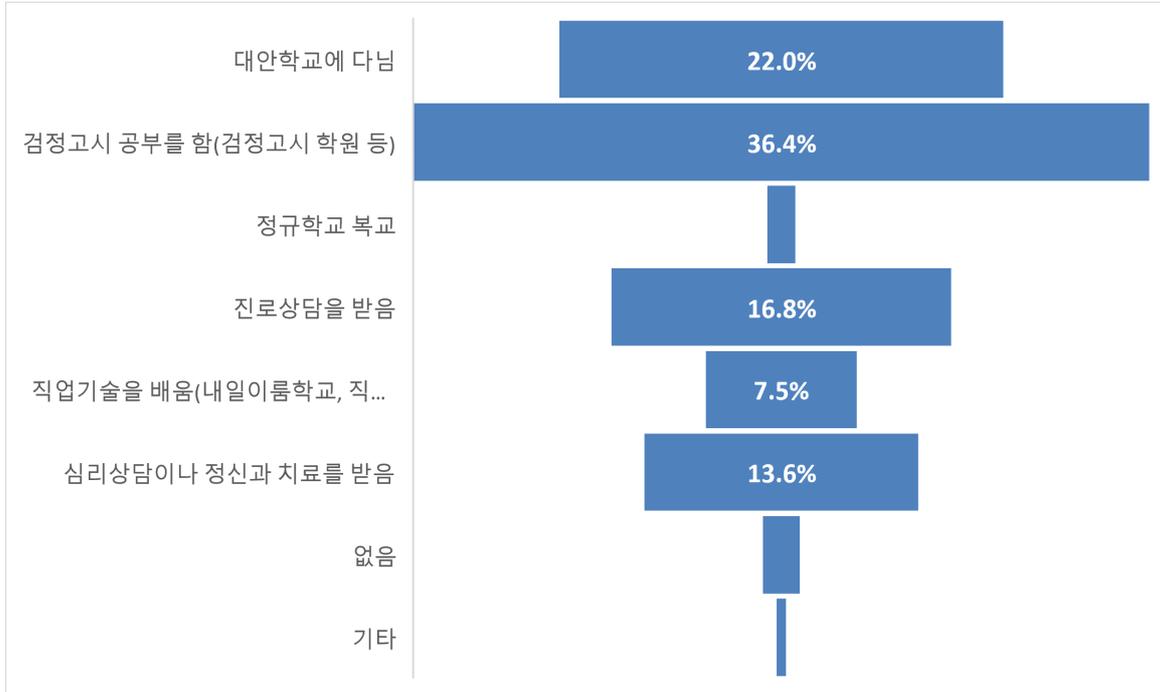
<그림 Ⅲ-29> 기관 및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던 기간 동안 한 일들

○ 학교를 그만둔 이후 경험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검정고시 공부를 함(검정고시 학원 등) 36.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대안학교에 다님 22.0%, 진로상담을 받음 16.8%, 심리상담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음 13.6%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Ⅲ-30> 학교를 그만둔 이후 경험

구분	빈도	비율	
학교그만둔이후경험 (다중응답)	대안학교에 다님	47	22.0%
	검정고시 공부를 함(검정고시 학원 등)	78	36.4%
	정규학교 복교	3	1.4%
	진로상담을 받음	36	16.8%
	직업기술을 배움(내일이룸학교, 직업학교나 학원,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	16	7.5%
	심리상담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음	29	13.6%
	없음	4	1.9%
	기타	1	0.5%
전체	21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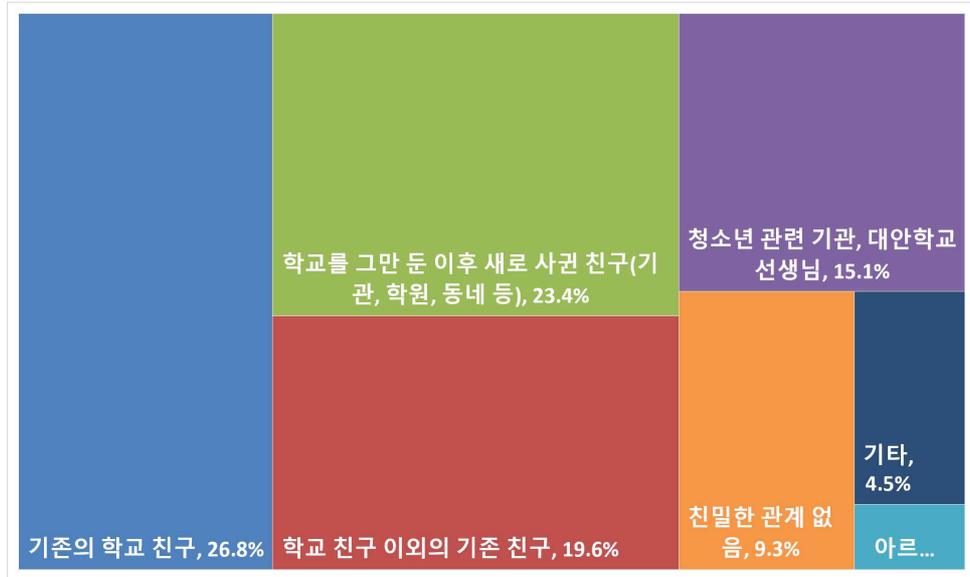
<그림 Ⅲ-30> 학교를 그만둔 이후 경험

○ 학교를 그만둔 이후 지금까지 친밀한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1순위) 기존의 학교 친구 28.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학교를 그만 둔 이후 새로 사귀 친구(기관, 학원, 동네 등) 23.6%, 학교 친구 이외의 기존 친구 18.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순위) 기존의 학교 친구 및 학교를 그만 둔 이후 새로 사귀 친구(기관, 학원, 동네 등) 및 학교를 그만 둔 이후 새로 사귀 친구(기관, 학원, 동네 등) 22.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학교 친구 이외의 기존 친구 21.5%, 청소년 관련 기관, 대안학교 선생님 17.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종합) 기존의 학교 친구 26.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학교를 그만 둔 이후 새로 사귀 친구(기관, 학원, 동네 등) 23.4%, 학교 친구 이외의 기존 친구 19.6%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Ⅲ-31> 학교를 그만둔 이후 지금까지 친밀한 관계

구분	1순위		2순위		종합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친밀한 관계	기존의 학교 친구	30	28.3%	18	22.8%	78	26.8%
	학교 친구 이외의 기존 친구	20	18.9%	17	21.5%	57	19.6%
	학교를 그만 둔 이후 새로 사귀 친구(기관, 학원, 동네 등)	25	23.6%	18	22.8%	68	23.4%
	청소년 관련 기관, 대안학교 선생님	15	14.2%	14	17.7%	44	15.1%
	아르바이트/직장 내 동료 또는 선후배	2	1.9%	0	0.0%	4	1.4%
	친밀한 관계 없음	10	9.4%	7	8.9%	27	9.3%
	기타	4	3.8%	5	6.3%	13	4.5%
	총계	106	100.0%	79	100.0%	29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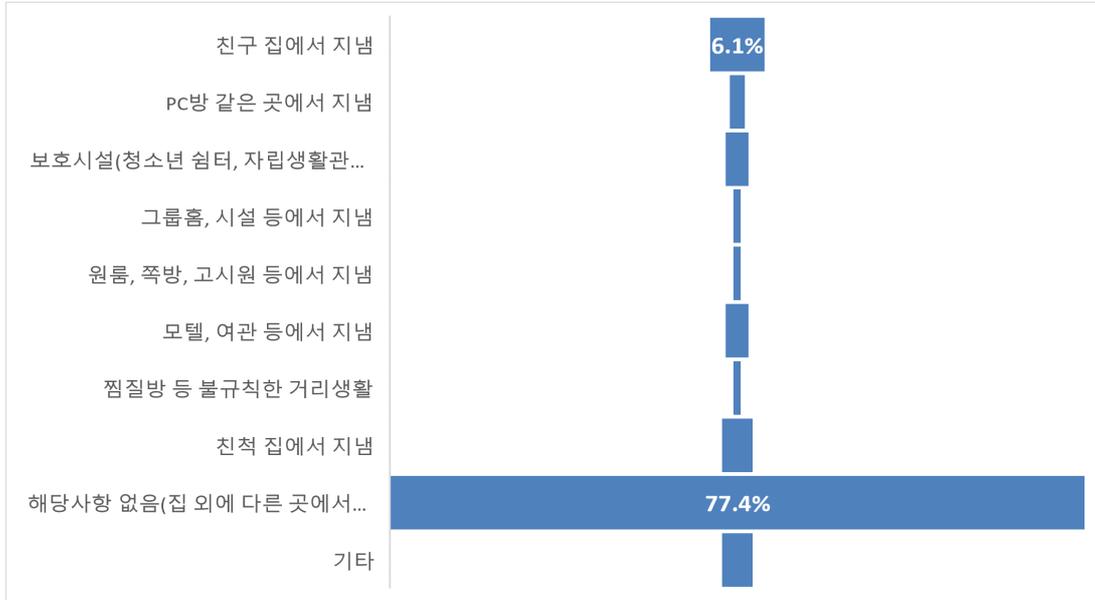


<그림 Ⅲ-31> 학교를 그만둔 이후 지금까지 친밀한 관계

- 학교를 그만둔 이후 본인의 집 이외에서 지낸 경험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해당사항 없음(집 외에 다른 곳에서 생활한 적 없음) 77.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친구 집에서 지냄 6.1%, 친척 집에서 지냄 3.5%, 보호시설(청소년 쉼터, 자립생활관 등)에서 지냄 및 모텔, 여관 등에서 지냄 2.6%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Ⅲ-32> 학교를 그만둔 후 본인의 집 이외에서 지낸 경험

구분	빈도	비율	
본인의 집 이외에서 지낸 경험(다중응답)	친구 집에서 지냄	7	6.1%
	PC방 같은 곳에서 지냄	2	1.7%
	보호시설(청소년 쉼터, 자립생활관 등)에서 지냄	3	2.6%
	그룹홈, 시설 등에서 지냄	1	0.9%
	원룸, 쪽방, 고시원 등에서 지냄	1	0.9%
	모텔, 여관 등에서 지냄	3	2.6%
	짬짬방 등 불규칙한 거리생활	1	0.9%
	친척 집에서 지냄	4	3.5%
	해당사항 없음(집 외에 다른 곳에서 생활한 적 없음)	89	77.4%
	기타	4	3.5%
전체	11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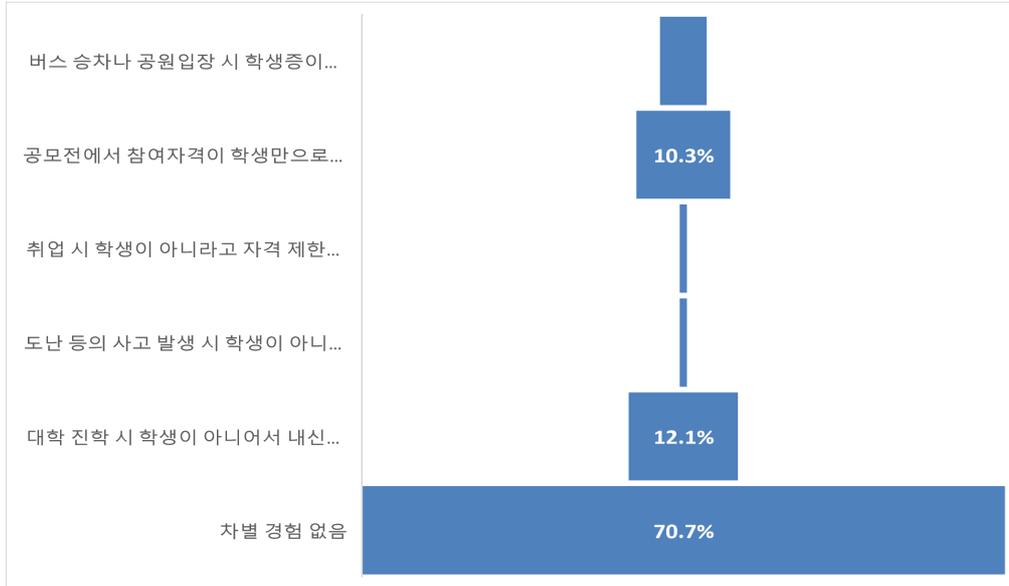
<그림 Ⅲ-32> 학교를 그만둔 후 본인의 집 이외에서 지낸 경험

○ 학교를 그만둔 후 차별적인 경험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차별 경험 없음 70.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대학 진학 시 학생이 아니어서 내신관련 제한이나 불이익을 받은 경험 12.1%, 공모전에서 참여자격이 학생만으로 되어있어 참여하지 못했던 경험 10.3%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Ⅲ-33> 학교를 그만둔 후 차별적인 경험

구분		빈도	비율
차별적인경험 (다중응답)	버스 승차나 공원입장 시 학생증이 없어 돈을 더 많이 낸 경험	6	5.2%
	공모전에서 참여자격이 학생만으로 되어있어 참여하지 못했던 경험	12	10.3%
	취업 시 학생이 아니라고 자격 제한을 받은 경험	1	0.9%
	도난 등의 사고 발생 시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의심을 받음	1	0.9%
	대학 진학 시 학생이 아니어서 내신관련 제한이나 불이익을 받은 경험	14	12.1%
	차별 경험 없음	82	70.7%
전체		11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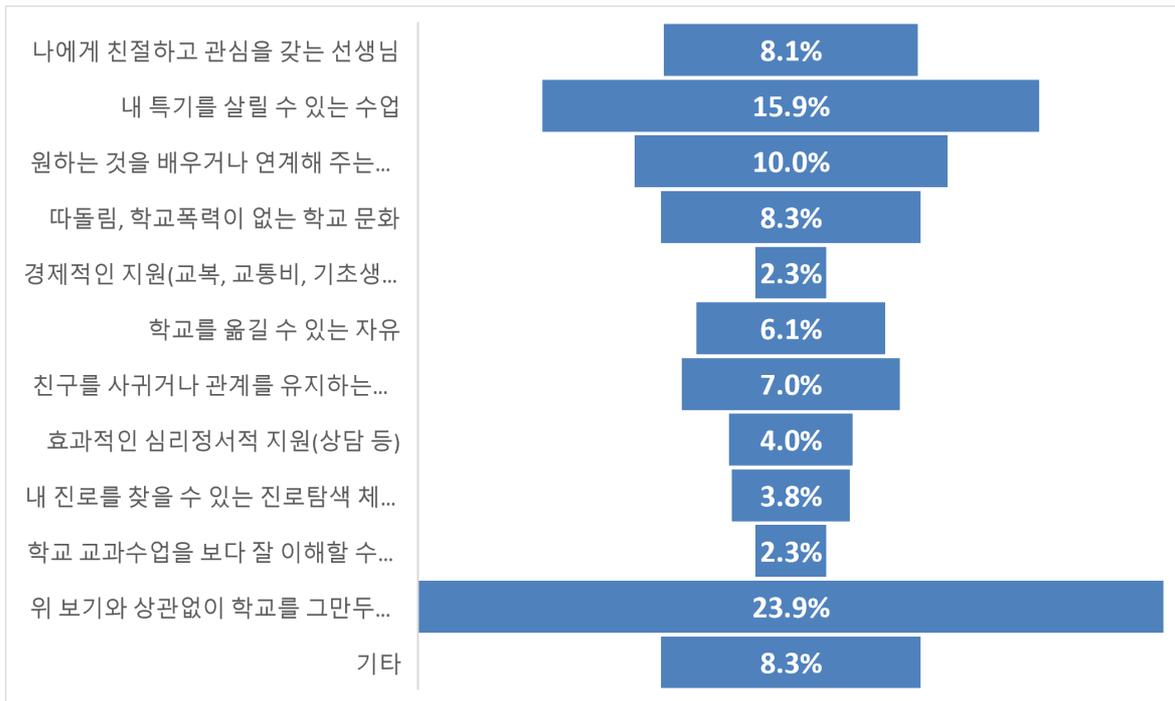
<그림 Ⅲ-33> 학교를 그만둔 후 차별적인 경험

○ 학교를 그만두지 않게 했을 만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1순위) 위 보기와 상관없이 학교를 그만두었을 것이다 33.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내 특기를 살릴 수 있는 수업 18.6%, 나에게 친절하고 관심을 갖는 선생님 10.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순위) 원하는 것을 배우거나 연계해 주는 지원서비스(예: 기술자격증 취득 등) 16.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내 특기를 살릴 수 있는 수업 14.3%, 따돌림, 학교폭력이 없는 학교 문화 11.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3순위) 친구를 사귀거나 관계를 유지하는 기술 14.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원하는 것을 배우거나 연계해 주는 지원서비스(예: 기술자격증 취득 등) 13.2%, 내 진로를 찾을 수 있는 진로탐색 체험 기회 및 위 보기와 상관없이 학교를 그만두었을 것이다 11.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종합) 위 보기와 상관없이 학교를 그만두었을 것이다 23.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내 특기를 살릴 수 있는 수업 15.9%, 원하는 것을 배우거나 연계해 주는 지원서비스(예: 기술자격증 취득 등) 10.0%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Ⅲ-34> 학교를 그만두지 않게 했을 만한 것들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종합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학교 그만두지 않게 했 을 만 한 것 들	나에게 친절하고 관심을 갖는 선생님	11	10.8%	2	2.6%	6	8.8%	43	8.1%
	내 특기를 살릴 수 있는 수업	19	18.6%	11	14.3%	5	7.4%	84	15.9%
	원하는 것을 배우거나 연계해 주는 지원서비스(예: 기술자격증 취득 등)	6	5.9%	13	16.9%	9	13.2%	53	10.0%
	따돌림, 학교폭력이 없는 학교 문화	7	6.9%	9	11.7%	5	7.4%	44	8.3%
	경제적인 지원(교복, 교통비, 기초생활비 등)	1	1.0%	3	3.9%	3	4.4%	12	2.3%
	학교를 옮길 수 있는 자유	6	5.9%	5	6.5%	4	5.9%	32	6.1%
	친구를 사귀거나 관계를 유지하는 기술	5	4.9%	6	7.8%	10	14.7%	37	7.0%
	효과적인 심리정서적 지원(상담 등)	2	2.0%	6	7.8%	3	4.4%	21	4.0%
	내 진로를 찾을 수 있는 진로탐색 체험 기회	2	2.0%	3	3.9%	8	11.8%	20	3.8%
	학교 교과수업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보충학습 지원	0	0.0%	5	6.5%	2	2.9%	12	2.3%
	위 보기와 상관없이 학교를 그만두었을 것이다	34	33.3%	8	10.4%	8	11.8%	126	23.9%
	기타	9	8.8%	6	7.8%	5	7.4%	44	8.3%
	총계	102	100.0%	77	100.0%	68	100.0%	52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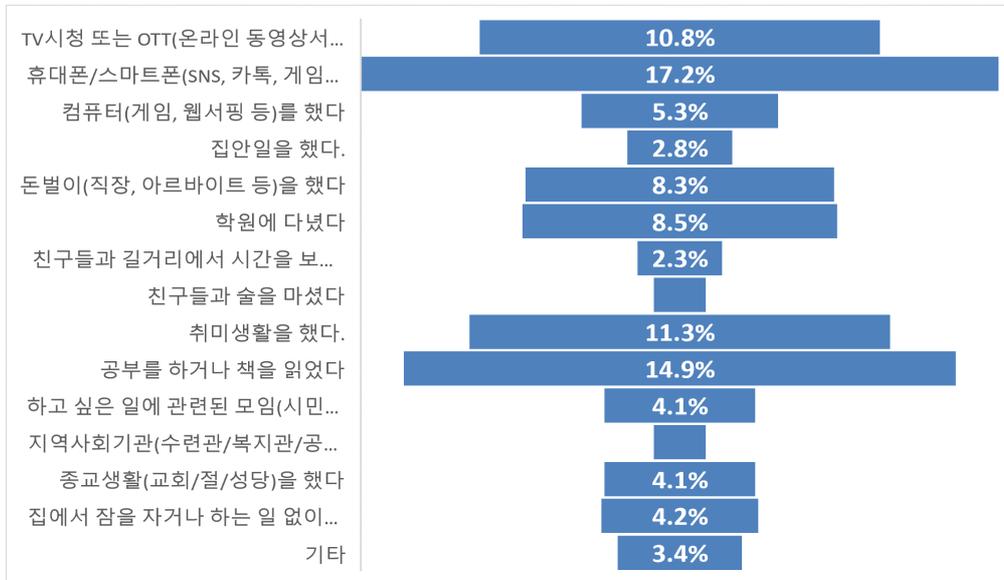
<그림 Ⅲ-34> 학교를 그만두지 않게 했을 만한 것들

○ 최근 한 달간 보낸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1순위) 휴대폰/스마트폰(SNS, 카톡, 게임 등)을 했다 20.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었다 16.8%, 돈벌이(직장, 아르바이트 등)을 했다 및 취미생활을 했다 11.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순위) 휴대폰/스마트폰(SNS, 카톡, 게임 등)을 했다 14.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TV시청 또는 OTT(온라인 동영상서비스)을 이용하였다 및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었다 12.2%, 취미생활을 했다. 11.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3순위)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었다 13.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TV시청 또는 OTT(온라인 동영상서비스)을 이용하였다 및 컴퓨터(게임, 웹서핑 등)를 했다 11.0%, 휴대폰 /스마트폰(SNS, 카톡, 게임 등)을 했다, 컴퓨터(게임, 웹서핑 등)를 했다, 취미생활을 했다, 집에서 잠을 자거나 하는 일 없이 그냥 시간을 보냈다 9.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종합) 휴대폰/스마트폰(SNS, 카톡, 게임 등)을 했다 17.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었다 14.9%, 취미생활을 했다 11.3%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Ⅲ-35> 최근 한 달간 보낸 내용들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종합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최근 한달간 보낸 내용들	TV시청 또는 OTT(온라인 동영상서비스: 예: 유튜브, 넷플릭스, 왓차, 애플TV 등)을 이용하였다	10	9.9%	11	12.2%	9	11.0%	61	10.8%
	휴대폰/스마트폰(SNS, 카톡, 게임 등)을 했다	21	20.8%	13	14.4%	8	9.8%	97	17.2%
	컴퓨터(게임, 웹서핑 등)를 했다	2	2.0%	8	8.9%	8	9.8%	30	5.3%
	집안일을 했다.	1	1.0%	5	5.6%	3	3.7%	16	2.8%
	돈벌이(직장, 아르바이트 등)을 했다	12	11.9%	4	4.4%	3	3.7%	47	8.3%
	학원에 다녔다	11	10.9%	5	5.6%	5	6.1%	48	8.5%
	친구들과 길거리에서 시간을 보냈다	2	2.0%	1	1.1%	5	6.1%	13	2.3%
	친구들과 술을 마셨다	2	2.0%	1	1.1%	0	0.0%	8	1.4%
	취미생활을 했다.	12	11.9%	10	11.1%	8	9.8%	64	11.3%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었다	17	16.8%	11	12.2%	11	13.4%	84	14.9%
	하고 싶은 일에 관련된 모임(시민단체 활동,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등)에 참여했다	1	1.0%	8	8.9%	4	4.9%	23	4.1%
	지역사회기관(수련관/복지관/공부방 등)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1	1.0%	1	1.1%	3	3.7%	8	1.4%
	종교생활(교회/절/성당)을 했다	3	3.0%	5	5.6%	4	4.9%	23	4.1%
	집에서 잠을 자거나 하는 일 없이 그냥 시간을 보냈다	2	2.0%	5	5.6%	8	9.8%	24	4.2%
	기타	4	4.0%	2	2.2%	3	3.7%	19	3.4%
총계	101	100.0%	90	100.0%	82	100.0%	56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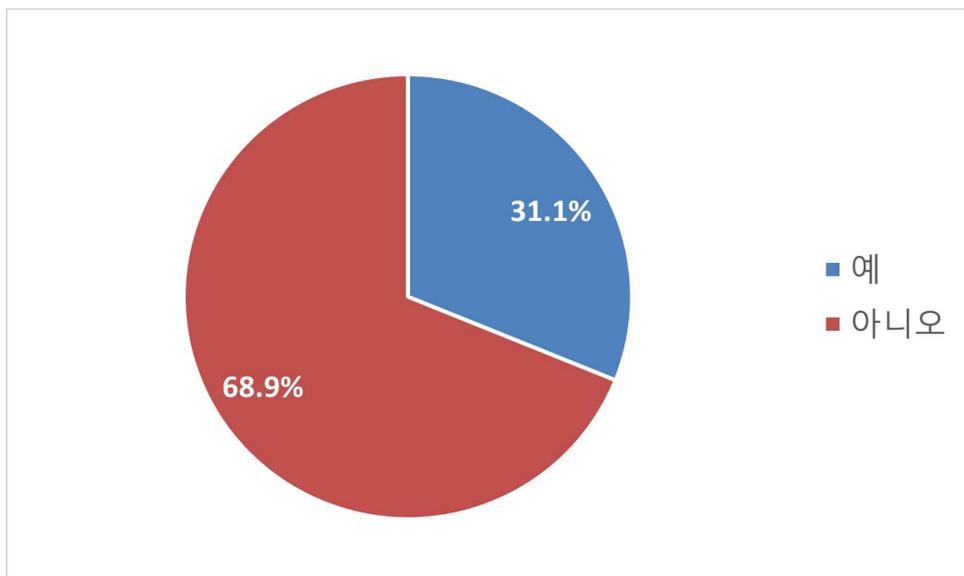


<그림 Ⅲ-35> 최근 한 달간 보낸 내용들

- 학교를 그만둔 후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아르바이트를 하였다는 응답인 '예'가 31.1%로 나타났으며, '아니오' 68.9%로 나타남

<표 Ⅲ-36>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구분	빈도	비율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예	33	31.1%
	아니오	73	68.9%
	총계	10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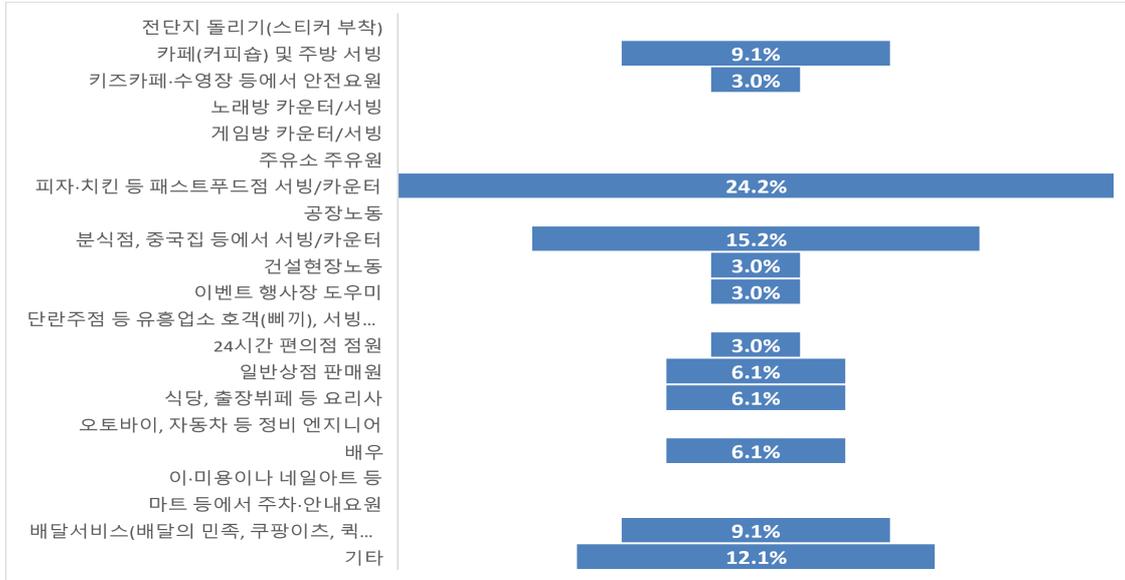
<그림 Ⅲ-36>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 가장 오랫동안 일한 아르바이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피자·치킨 등 패스트푸드점 서빙/카운터 24.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분식점, 중국집 등에서 서빙/카운터 15.2%, 기타 12.1%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Ⅲ-37> 가장 오랫동안 일한 아르바이트

	구분	빈도	비율
가장 오랫동안 아르바이트	전단지 돌리기(스티커 부착)	0	0.0%
	카페(커피숍) 및 주방 서빙	3	9.1%
	키즈카페·수영장 등에서 안전요원	1	3.0%
	노래방 카운터/서빙	0	0.0%
	게임방 카운터/서빙	0	0.0%
	주유소 주유원	0	0.0%
	피자·치킨 등 패스트푸드점 서빙/카운터	8	24.2%
	공장노동	0	0.0%
	분식점, 중국집 등에서 서빙/카운터	5	15.2%
	건설현장노동	1	3.0%
	이벤트 행사장 도우미	1	3.0%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 호객(삐끼), 서빙 및 접대	0	0.0%
	24시간 편의점 점원	1	3.0%
	일반상점 판매원	2	6.1%
	식당, 출장뷔페 등 요리사	2	6.1%
	오토바이, 자동차 등 정비 엔지니어	0	0.0%
	배우	2	6.1%
	이·미용이나 네일아트 등	0	0.0%
	마트 등에서 주차·안내요원	0	0.0%
	배달서비스(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퀵서비스, 택배 등 포함)	3	9.1%
기타	4	12.1%	
총계	3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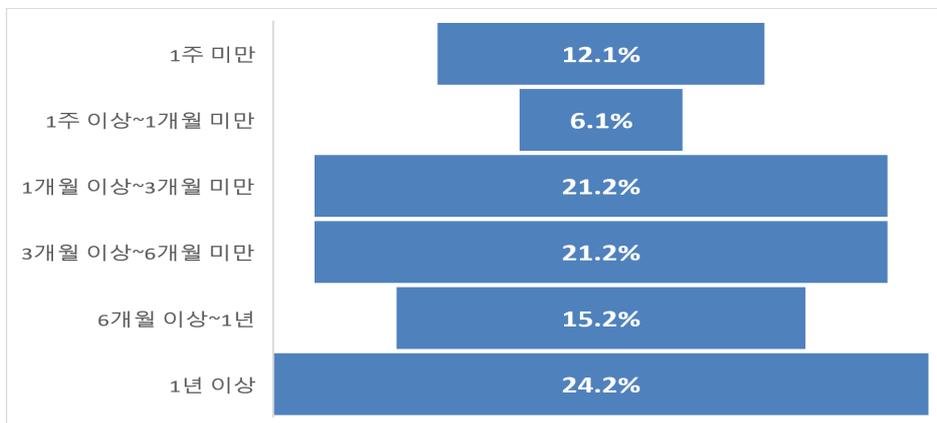
<그림 Ⅲ-37> 가장 오랫동안 일한 아르바이트

○ 아르바이트 평균 기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1년 이상이 24.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및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21.2%, 6개월 이상~1년 15.2%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Ⅲ-38> 아르바이트 평균 기간

구분	빈도	비율	
아르바이트 평균 기간	1주 미만	4	12.1%
	1주 이상~1개월 미만	2	6.1%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7	21.2%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7	21.2%
	6개월 이상~1년	5	15.2%
	1년 이상	8	24.2%
	총계	3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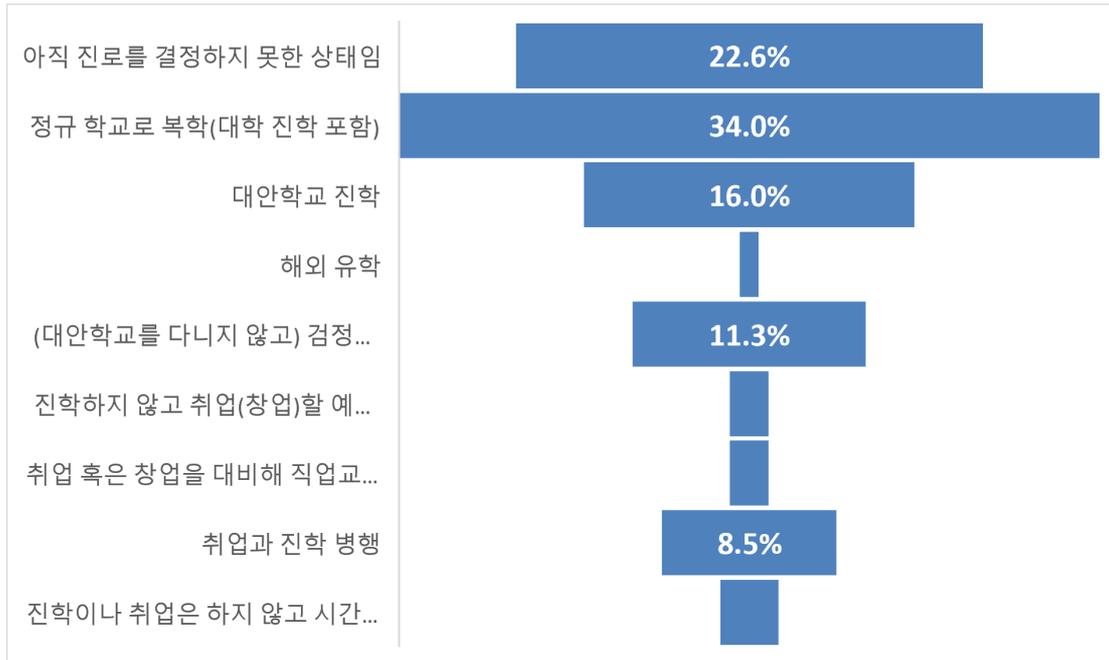
<그림 Ⅲ-38> 아르바이트 평균 기간

○ 향후 진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정규 학교로 복학(대학 진학 포함)이 34.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임 22.6%, 대안학교 진학 16.0%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Ⅲ-39> 향후 진로

구분		빈도	비율
향후 진로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임	24	22.6%
	정규 학교로 복학(대학 진학 포함)	36	34.0%
	대안학교 진학	17	16.0%
	해외 유학	1	0.9%
	(대안학교를 다니지 않고) 검정고시 준비	12	11.3%
	진학하지 않고 취업(창업)할 예정임	2	1.9%
	취업 혹은 창업을 대비해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예정임	2	1.9%
	취업과 진학 병행	9	8.5%
	진학이나 취업은 하지 않고 시간제 근로나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낼 예정	3	2.8%
	총계	10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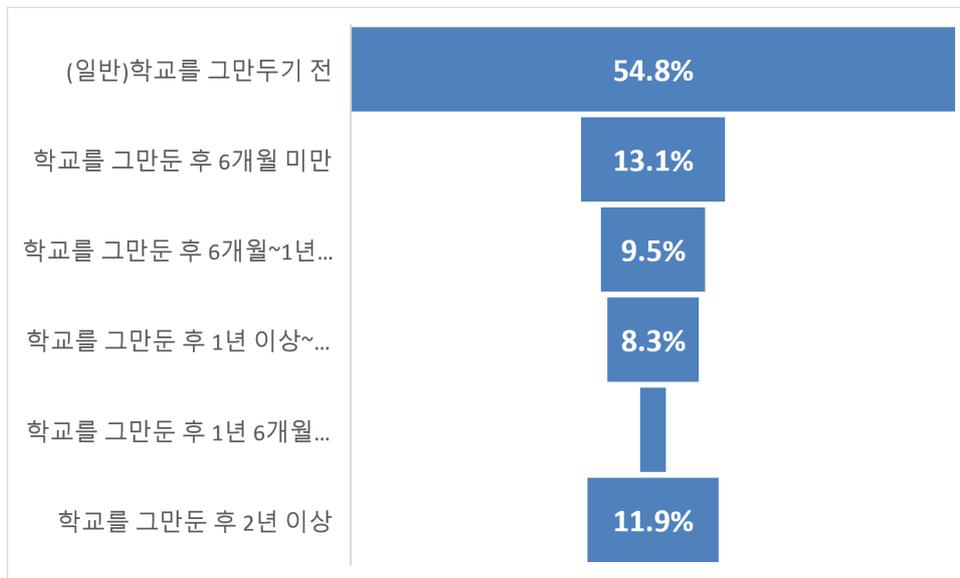
<그림 Ⅲ-39> 향후 진로

○ 진로 결정 시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일반)학교를 그만두기 전 54.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학교를 그만둔 후 6개월 미만 13.1%, 학교를 그만둔 후 2년 이상 11.1%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Ⅲ-40> 진로 결정 시기

구분		빈도	비율
진로 결정 시기	(일반)학교를 그만두기 전	46	54.8%
	학교를 그만둔 후 6개월 미만	11	13.1%
	학교를 그만둔 후 6개월~1년 미만	8	9.5%
	학교를 그만둔 후 1년 이상~1년 6개월 미만	7	8.3%
	학교를 그만둔 후 1년 6개월~2년 미만	2	2.4%
	학교를 그만둔 후 2년 이상	10	11.9%
	총계	8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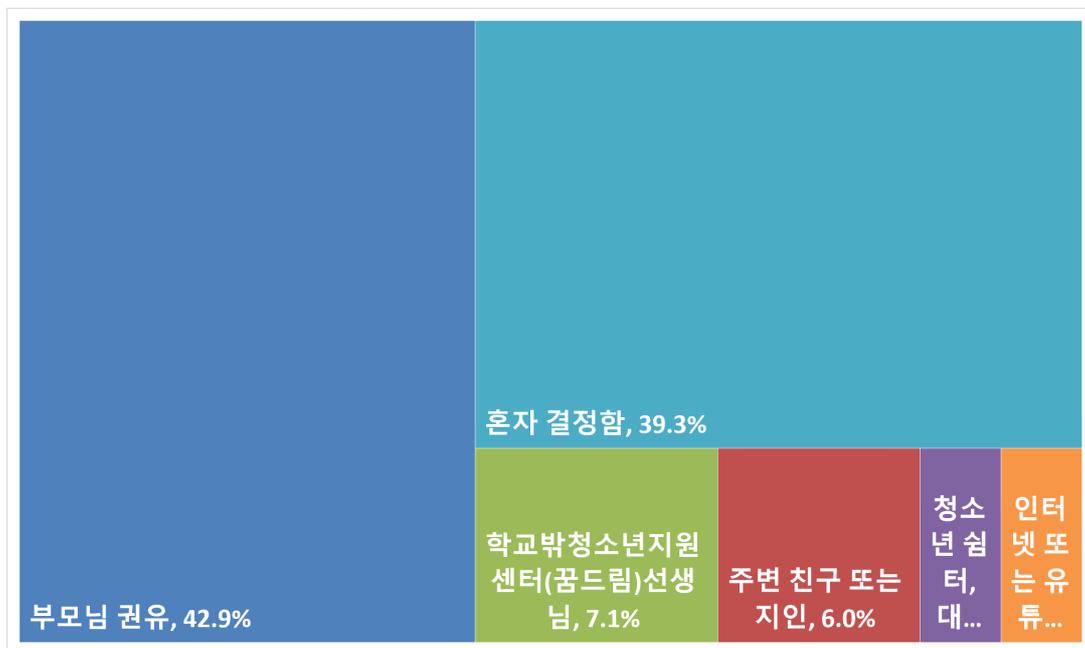
<그림 Ⅲ-40> 진로 결정 시기

○ 진로 결정에 영향을 준 대상 및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부모님 권유 42.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혼자 결정함 39.3%,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선생님 7.1%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Ⅲ-41> 진로 결정에 영향을 준 대상 및 방법

구분		빈도	비율
진로 결정 영향 준 대상 및 방법	부모님 권유	36	42.9%
	주변 친구 또는 지인	5	6.0%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선생님	6	7.1%
	청소년 쉼터, 대안학교 등 이용기관의 선생님	2	2.4%
	혼자 결정함	33	39.3%
	인터넷 또는 유튜브에서 접한 정보	2	2.4%
	기타	0	0.0%
	총계	84	100.0%



<그림 Ⅲ-41> 진로 결정에 영향을 준 대상 및 방법

○ 학교 밖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그렇다(3), 매우 그렇다(4점)으로 조사됨
- 자아존중감 전체 평균은 3.02점으로 그렇다는 긍정적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평가도 23.3%나 차지함
- 자아존중감 중 ‘나는 내가 다른사람들처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및 ‘나는 노력하면 대부분의 일들을 잘할 수 있다’ 항목이 평균 3.1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으며, 다음으로 ‘나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3.14점,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3.0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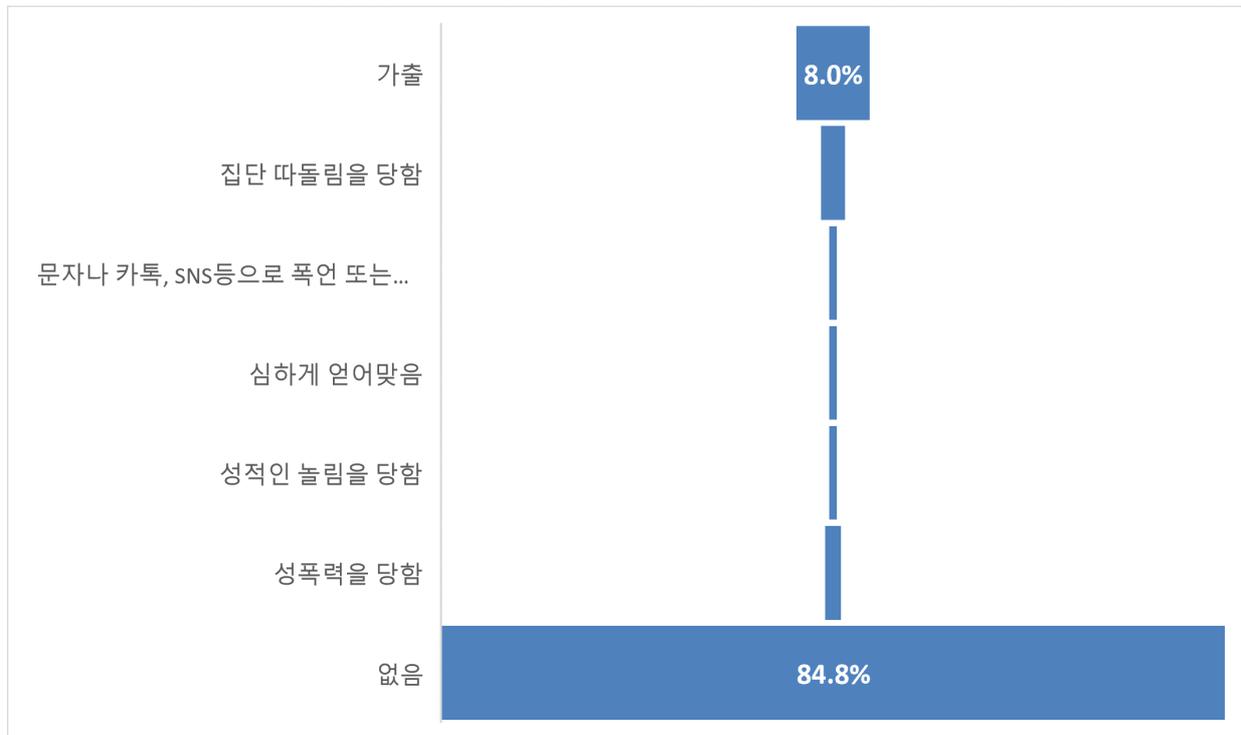
**<표 Ⅲ-42> 자아존중감**

구분	내용	평균 순위	표준 편차	전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자아존중감	전체	3.02	0.70	635	45	103	281	206
				100.0%	7.1%	16.2%	44.3%	32.4%
	나는 내가 다른사람들처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3.18	0.82	105	7	6	53	39
				100.0%	6.7%	5.7%	50.5%	37.1%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3.03	0.83	106	4	23	45	34
				100.0%	3.8%	21.7%	42.5%	32.1%
	나는 노력하면 대부분의 일들을 잘할 수 있다	3.18	0.80	106	6	8	53	39
				100.0%	5.7%	7.5%	50.0%	36.8%
	나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3.14	0.83	106	6	12	49	39
				100.0%	5.7%	11.3%	46.2%	36.8%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일어나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	2.69	0.97	106	13	32	36	25
				100.0%	12.3%	30.2%	34.0%	23.6%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할 때에도 나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	2.91	0.91	106	9	22	45	30
				100.0%	8.5%	20.8%	42.5%	28.3%

- 학교를 그만둔 후 겪은 폭력(가출 포함) 등의 경험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없음이 84.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가출 8.0%, 집단 따돌림을 당함 2.7%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Ⅲ-43> 학교를 그만둔 후 겪은 폭력(가출 포함) 등의 경험

구분		빈도	비율
가출폭력등의경험 (다중응답)	가출	9	8.0%
	집단 따돌림을 당함	3	2.7%
	문자나 카톡, SNS등으로 폭언 또는 괴롭힘을 당함	1	0.9%
	심하게 얻어맞음	1	0.9%
	성적인 놀림을 당함	1	0.9%
	성폭력을 당함	2	1.8%
	없음	95	84.8%
전체		11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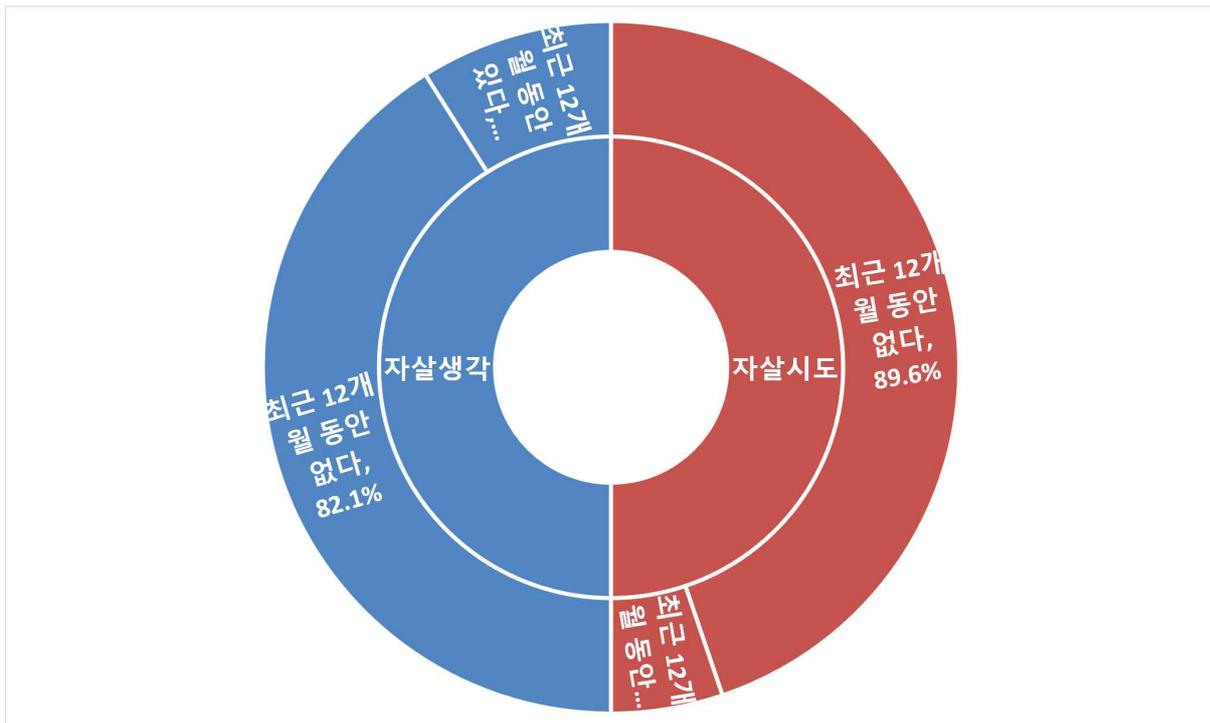
<그림 Ⅲ-42> 학교를 그만둔 후 겪은 폭력(가출 포함) 등의 경험

○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먼저 자살생각은 최근 12개월 동안 없다 82.1%, 있다 17.9%로 나타남. 성별로 비교하면 남자 12.5%, 여자 22.4%가 자살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자살시도는 최근 12개월 동안 없다 82.1%, 있다 10.4%로 나타남. 성별로 비교하면 남자 6.3%, 여자 13.8%로 여자가 남자에 비해 2배 이상 자살시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Ⅲ-44>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

구분	빈도	비율			
		남	여		
자살생각	최근 12개월 동안 없다	87	82.1%	남	87.5%
	최근 12개월 동안 있다	19	17.9%	남	12.5%
				여	22.4%
총계	106	100.0%			
자살시도	최근 12개월 동안 없다	95	89.6%	남	93.8%
	최근 12개월 동안 있다	11	10.4%	남	6.3%
				여	13.8%
총계	106	100.0%			



<그림 Ⅲ-43>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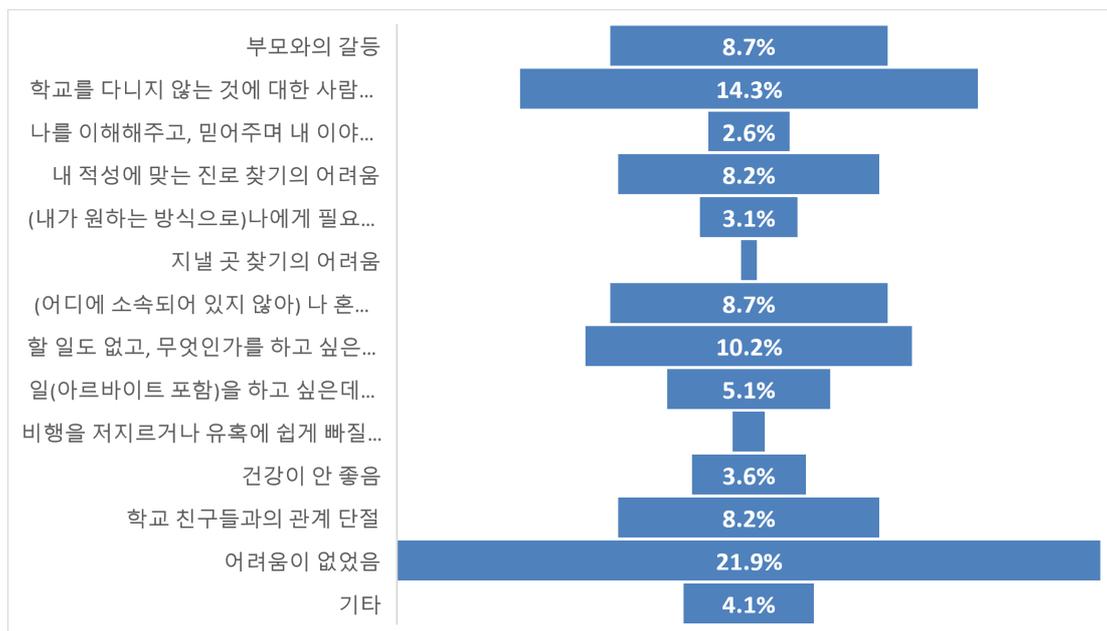
### (3)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

○ 학교를 그만둔 후 겪고 있는 어려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어려움이 없었음 21.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선입견, 편견, 무시 14.3%, 할 일도 없고,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의욕도 없음(무기력함) 10.2%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Ⅲ-45> 학교를 그만둔 후 겪고 있는 어려움

구분	빈도	비율	
학교그만둔후겪고 있는어려움 (다중응답)	부모와의 갈등	17	8.7%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선입견, 편견, 무시	28	14.3%
	나를 이해해주고, 믿어주며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음	5	2.6%
	내 적성에 맞는 진로 찾기의 어려움	16	8.2%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나에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음	6	3.1%
	지낼 곳 찾기의 어려움	1	0.5%
	(어디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 나 혼자라는 불안	17	8.7%
	할 일도 없고,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의욕도 없음(무기력함)	20	10.2%
	일(아르바이트 포함)을 하고 싶은데 일을 구하기 어려움	10	5.1%
	비행을 저지르거나 유혹에 쉽게 빠질 정도로 생계가 불안정하고 돈이 필요함	2	1.0%
	건강이 안 좋음	7	3.6%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 단절	16	8.2%
	어려움이 없었음	43	21.9%
	기타	8	4.1%
전체	19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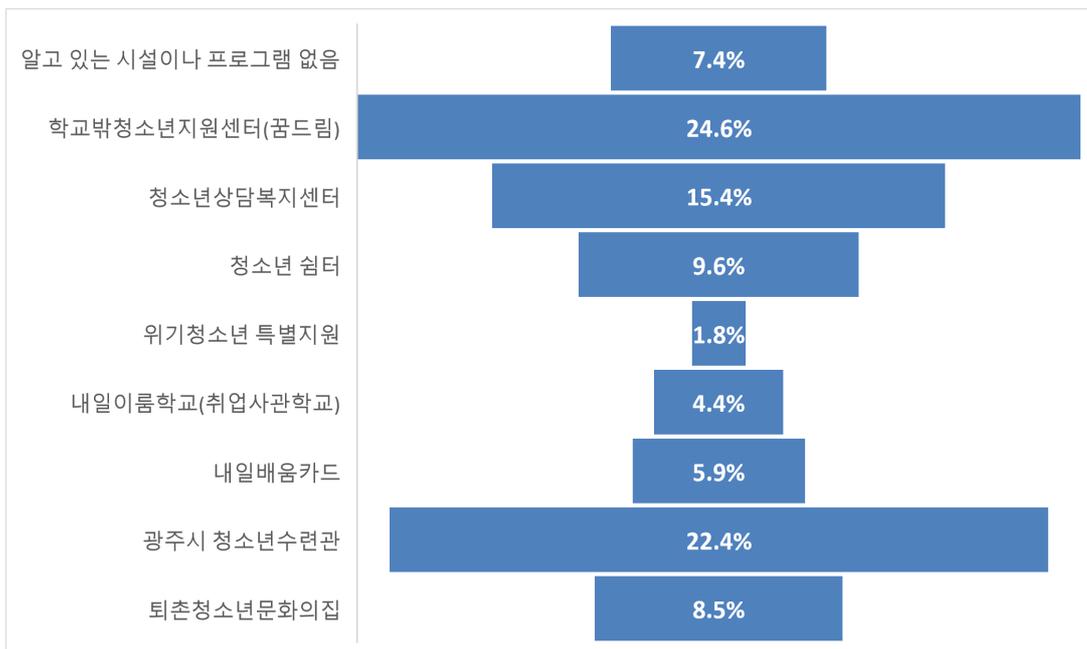
<그림 Ⅲ-44> 학교를 그만둔 후 겪고 있는 어려움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나 프로그램 인지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가 24.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22.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5.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체조사대상 106명에 대한 시설 및 프로그램 인지 비율을 살펴보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63.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57.5%,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9.6%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Ⅲ-46> 시설(프로그램) 인지

구분		빈도	비율	전체조사대상(106명)에 대한 인지 비율
시설프로그램인지 (다중응답)	알고 있는 시설이나 프로그램 없음	23	8.4%	21.7%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67	24.4%	63.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42	15.3%	39.6%
	청소년 쉼터	26	9.5%	24.5%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5	1.8%	4.7%
	내일이룸학교(취업사관학교)	12	4.4%	11.3%
	내일배움카드	16	5.8%	15.1%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61	22.2%	57.5%
	퇴촌청소년문화의집	23	8.4%	21.7%
전체		275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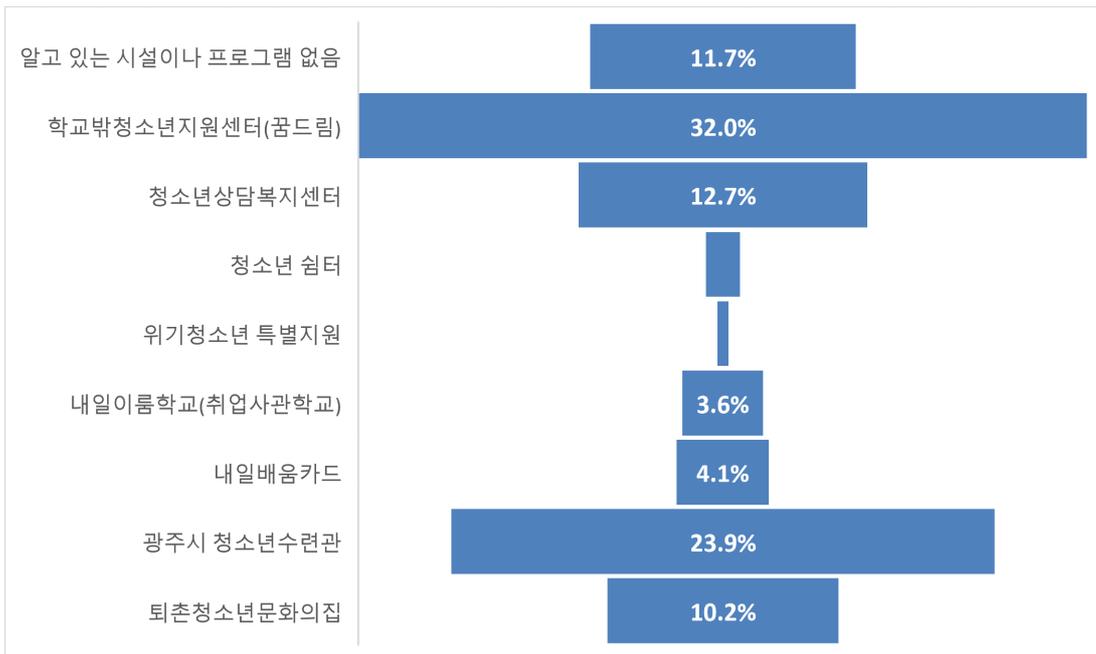
<그림 Ⅲ-45> 시설(프로그램) 인지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나 프로그램 이용 경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가 32.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23.9%,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2.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체조사대상 106명에 대한 시설 및 프로그램 경험 비율을 살펴보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59.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44.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3.6%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Ⅲ-47> 시설(프로그램) 경험

구분		빈도	비율	전체조사대상(106명)에 대한 경험 비율
시설프로그램경험 (다중응답)	알고 있는 시설이나 프로그램 없음	23	11.7%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63	32.0%	59.4%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5	12.7%	23.6%
	청소년 쉼터	3	1.5%	2.8%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1	0.5%	0.9%
	내일이룸학교(취업사관학교)	7	3.6%	6.6%
	내일배움카드	8	4.1%	7.5%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47	23.9%	44.3%
	퇴촌청소년문화의집	20	10.2%	18.9%
전체	197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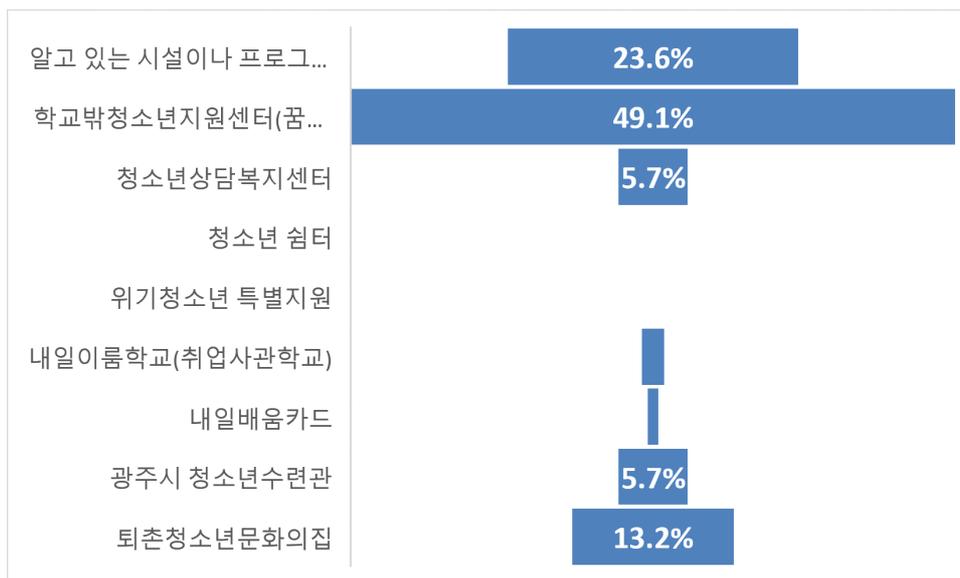


<그림 Ⅲ-46> 시설(프로그램) 경험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나 프로그램 중 가장 도움이 된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가 49.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퇴촌청소년문화의집 13.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5.7%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Ⅲ-48> 가장 도움이 된 시설(프로그램)

구분	빈도	비율	
가장 도움이 된 시설(프로그램)	알고 있는 시설이나 프로그램 없음	25	23.6%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52	49.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6	5.7%
	청소년 쉼터	0	0.0%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0	0.0%
	내일이룸학교(취업사관학교)	2	1.9%
	내일배움카드	1	0.9%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6	5.7%
	퇴촌청소년문화의집	14	13.2%
	총계	10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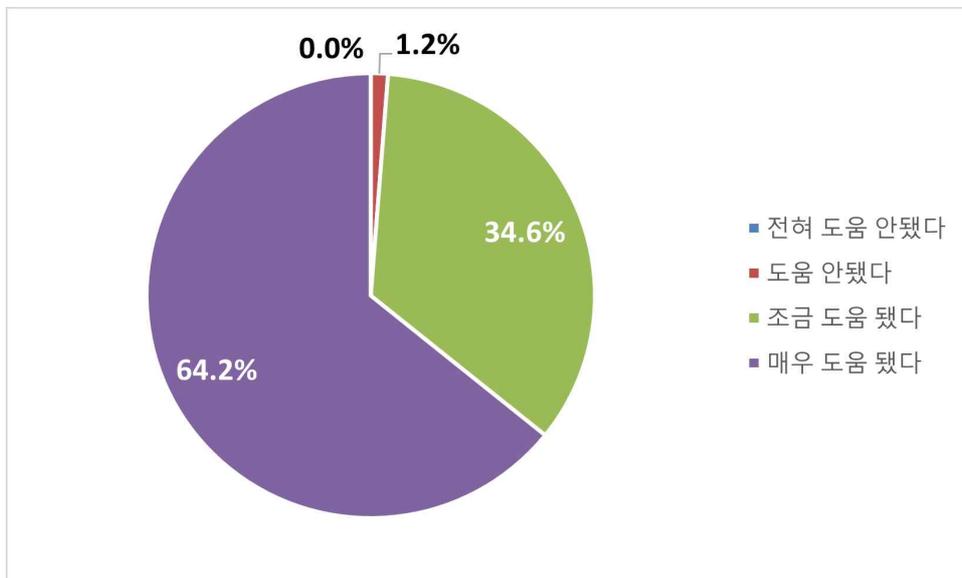
<그림 Ⅲ-47> 가장 도움이 된 시설(프로그램)

○ 가장 도움이 된 시설이나 프로그램의 도움 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매우 도움 됐다 64.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조금 도움 됐다 34.6%, 도움 안됐다 1.2%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Ⅲ-49> 시설(프로그램)의 도움 정도**

구분		빈도	비율
도움이 된 정도	전혀 도움 안됐다	0	0.0%
	도움 안됐다	1	1.2%
	조금 도움 됐다	28	34.6%
	매우 도움 됐다	52	64.2%
	총계	8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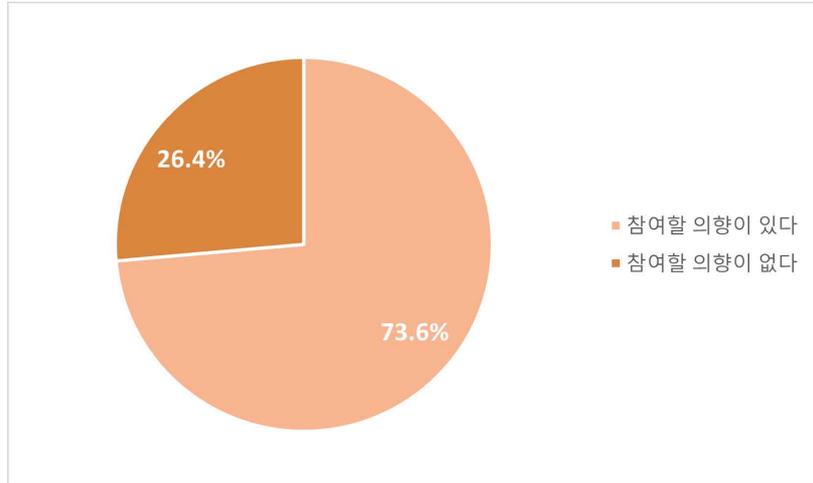
**<그림 Ⅲ-48> 시설(프로그램)의 도움 정도**

○ 향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참여 의사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참여할 의향이 있다 73.6%, 참여할 의향이 없다 26.4%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Ⅲ-50>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서비스 참여 의사**

구분		빈도	비율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서비스 참여의사	참여할 의향이 있다	78	73.6%
	참여할 의향이 없다	28	26.4%
	총계	10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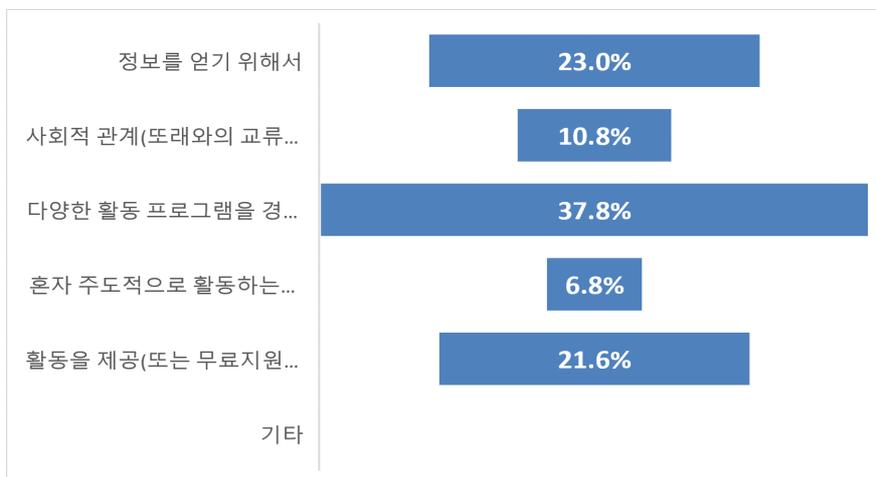


<그림 Ⅲ-49>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서비스 참여 의사

- 향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서비스 참여 의향의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어서 37.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정보를 얻기 위해서 23.0%, 활동을 제공(또는 무료지원) 해주기 때문에 21.6%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Ⅲ-51>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서비스 참여 의향의 이유

구분	빈도	비율	
참여의향의 이유	정보를 얻기 위해서	17	23.0%
	사회적 관계(또래와의 교류 등)을 맺기 위해	8	10.8%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어서	28	37.8%
	혼자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힘들어서	5	6.8%
	활동을 제공(또는 무료지원)해주기 때문에	16	21.6%
	기타	0	0.0%
	총계	7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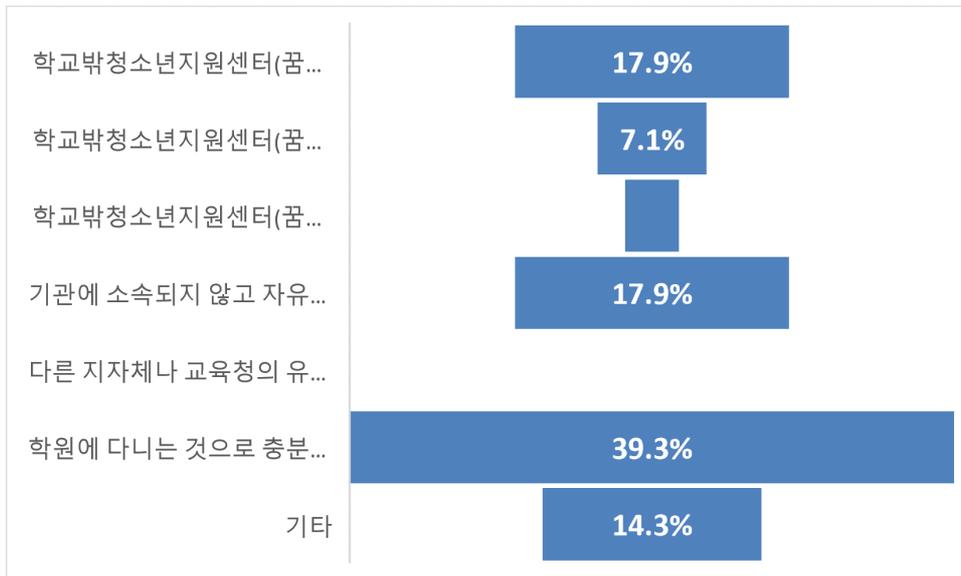


<그림 Ⅲ-50>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서비스 참여 의향의 이유

- 향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서비스 참여 의향이 없는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학원에 다니는 것으로 충분해서 39.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를 잘 몰라서 및 기관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하고 싶어서 17.9%, 기타 14.3%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Ⅲ-52>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서비스 참여 의향 없는 이유

구분	빈도	비율	
참여의향이 없는 이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를 잘 몰라서	5	17.9%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에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2	7.1%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가 지리적으로 너무 멀어서	1	3.6%
	기관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하고 싶어서	5	17.9%
	다른 지자체나 교육청의 유사 지원기관(예/친구랑, 배움터 등)을 이용하고 있어서	0	0.0%
	학원에 다니는 것으로 충분해서	11	39.3%
	기타	4	14.3%
	총계	28	100.0%



<그림 Ⅲ-51>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서비스 참여 의향 없는 이유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내용 중 학업영역의 필요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검정고시 준비( 학습, 비용 등) 지원 26.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대학 진학 및 대학 입시 상담 21.0%, 학습 또는 진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 15.2%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Ⅲ-53> 가장 필요한 서비스(학업 영역)

구분		빈도	비율
가장 필요한 것_학업 영역	복교(학교로 다시 돌아가는 것) 절차 및 방법 안내	2	1.9%
	학습 또는 진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	16	15.2%
	진학정보 제공(검정고시, 입시정보, 대안학교 등)	15	14.3%
	검정고시 준비(학습, 비용 등) 지원	28	26.7%
	대학 진학 및 대학 입시 상담	22	21.0%
	진로탐색을 위한 체험	14	13.3%
	직업교육훈련	4	3.8%
	기타	4	3.8%
	총계	105	100.0%



<그림 Ⅲ-52> 가장 필요한 서비스(학업 영역)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내용 중 진로/직업 영역의 필요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진로상담, 직업훈련, 취(창)업을 연결하는 통합 프로그램 46.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자산관리(용돈이나 생활비 혹은 알바비 등을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방법)에 관련된 정보 제공 31.4%, 일과 학습을 병행하여 훈련받는 지역사회 작업장(목공, 도예, 디자인, 인테리어) 10.5%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Ⅲ-54> 가장 필요한 서비스(진로/직업 영역)

구분		빈도	비율
가장 필요한 것_진로/직업 영역	근로 중 피해(언어폭력, 임금체불 등)에 대한 보호	7	6.7%
	자산관리(용돈이나 생활비 혹은 알바비 등을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방법)에 관련된 정보 제공	33	31.4%
	진로상담, 직업훈련, 취(창)업을 연결하는 통합 프로그램	49	46.7%
	일과 학습을 병행하여 훈련받는 지역사회 작업장(목공, 도예, 디자인, 인테리어)	11	10.5%
	기타	5	4.8%
	총계	10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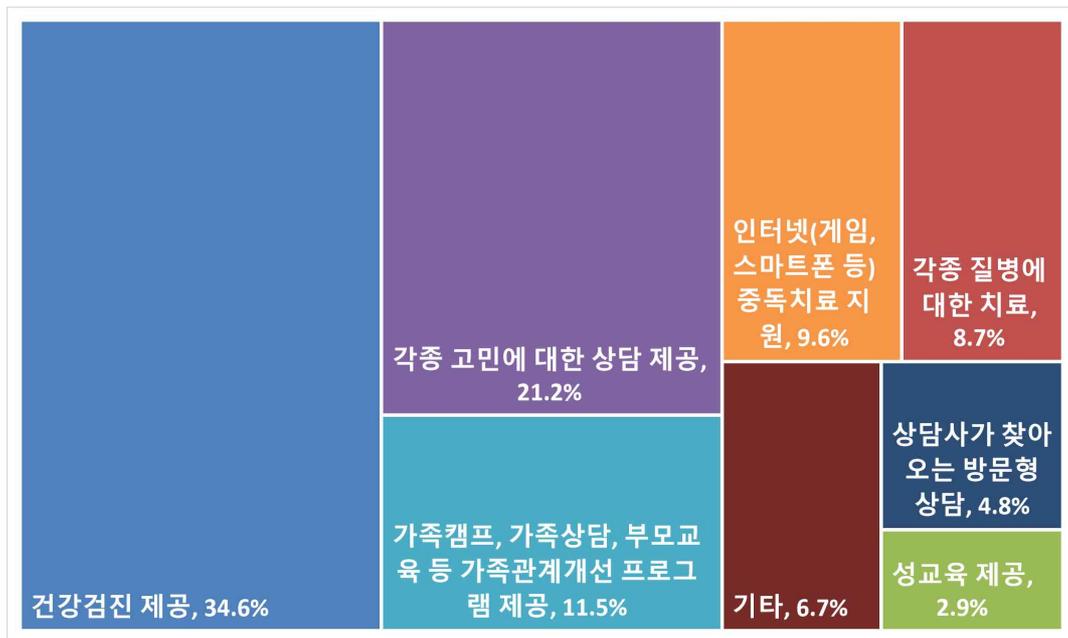


<그림 Ⅲ-53> 가장 필요한 서비스(진로/직업 영역)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내용 중 건강/상담/복지 영역의 필요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건강검진 제공 34.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각종 고민에 대한 상담 제공 21.2%, 가족캠프,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 가족관계개선 프로그램 제공 11.5%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Ⅲ-55> 가장 필요한 서비스(건강/상담/복지 영역)

구분	빈도	비율	
가장 필요한 것_건강/상담/복지 영역	건강검진 제공	36	34.6%
	각종 질병에 대한 치료	9	8.7%
	성교육 제공	3	2.9%
	각종 고민에 대한 상담 제공	22	21.2%
	가족캠프,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 가족관계개선 프로그램 제공	12	11.5%
	인터넷(게임, 스마트폰 등) 중독치료 지원	10	9.6%
	상담사가 찾아오는 방문형 상담	5	4.8%
	기타	7	6.7%
	총계	10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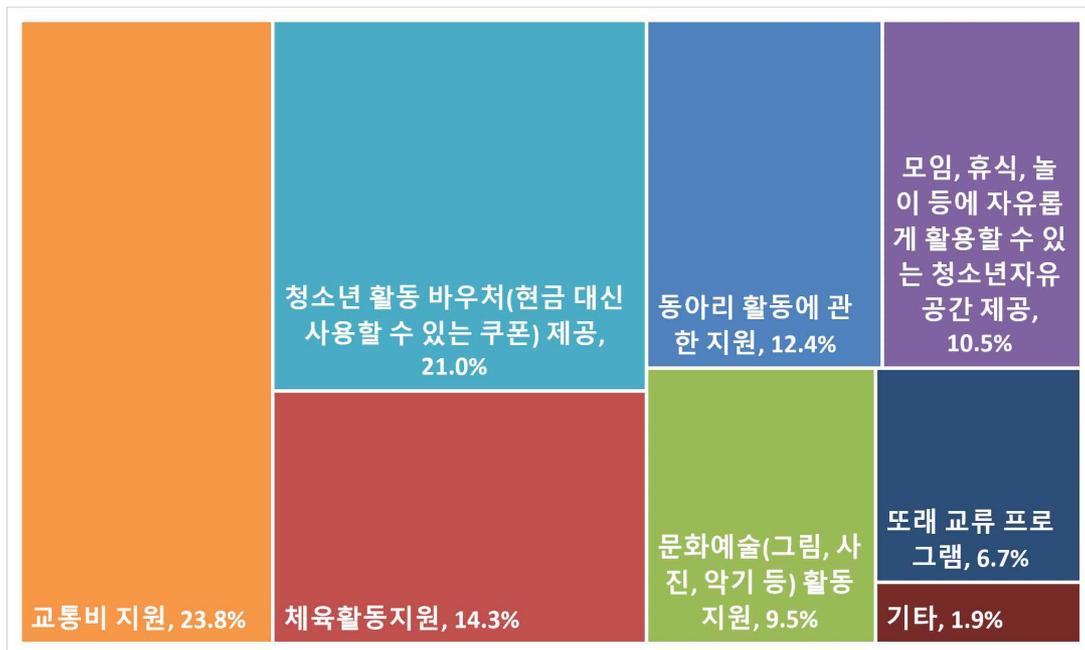


<그림 Ⅲ-54> 가장 필요한 서비스(건강/상담/복지 영역)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내용 중 활동 영역의 필요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교통비 지원 23.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청소년 활동 바우처(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쿠폰) 제공 21.0%, 체육활동지원 14.3%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Ⅲ-56> 가장 필요한 서비스(활동 영역)

구분		빈도	비율
가장 필요한 것_활동 영역	동아리 활동에 관한 지원	13	12.4%
	체육활동지원	15	14.3%
	문화예술(그림, 사진, 악기 등) 활동 지원	10	9.5%
	모임, 휴식, 놀이 등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자유공간 제공	11	10.5%
	청소년 활동 바우처(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쿠폰) 제공	22	21.0%
	교통비 지원	25	23.8%
	또래 교류 프로그램	7	6.7%
	기타	2	1.9%
	총계	105	100.0%



<그림 Ⅲ-55> 가장 필요한 서비스(활동 영역)

## 제2절 표적집단면접조사(FGI, Focus Group Interview)

### 1) 표적집단면접조사 개요

#### □ 개요

- 본 조사는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시설 운영자 및 프로그램 운영자의 의견(시설 운영 현황, 현행 지원 정책의 평가, 지원 필요 사항)을 조사하여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 수립(3개년) 제안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

#### □ 연구방법

- 일시 : 2024년 5월 22일(수) 16:30~18:30
- FGI참가자 :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센터장 외 팀장급 2명
- FGI 질문 :
  1. 학교 밖 청소년의 현안 및 취약점
  2. 현행 지원 정책의 평가, 지원 필요 사항 및 개선점 등
  3. 취약성 극복을 위한 주요 지원과 청소년의 요구
  4. 교육 참여수당이 청소년에게 주는 의미
  5. 학교 밖 청소년 발굴
  6. 관련 기관의 운영, 지원 현황 및 개선사항
  7.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 수립(3개년) 수립 시 제안 사항

<표 Ⅲ-57>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전문가 FGI 참여자 명단

FGI 참여자 명단						
구분	성별	만나이	직책	청소년지도 경력	주요 직무	
참여자1	여	52	센터장	25년	학교밖사업 총괄	-
참여자2	여	41	팀장	10년	자립지원팀	자립지원팀 총괄, 위기청소년 상담 및 사례관리, 신규사례 접수상담, 후기청소년 자립지원사업 등
참여자3	여	46	팀장	11년	교육지원팀	교육지원팀 총괄, 위기청소년 상담 및 사례관리, 신규사례 접수상담,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

## 2) FGI 조사결과

### (1) 상담 - 사례관리

- (상담과 관련한 학교 밖 청소년의 현안 및 취약점) 깊은 사례관리가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 친구들과의 교우관계 등 사회적 관계에서 어려움을 많이 갖고, 간혹 선생님 등 권위에 대해서 불화, 그리고 개인적 우울정서나 불안, 자해 자살 사고를 겪는 등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많이 겪음

(참여자 2)

위기청소년 사례관리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심리·정서적으로 어렵거나 가정환경의 어려움이 있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매해 정말 많이 발굴됩니다. 꿈드림에는 다양한 청소년이 오는데요. 학교 적응이 힘든 친구들, 교우관계가 어려운 경우,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 맺기가 어려워서 학교를 그만두기로 결정한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신뢰관계를 못 맺어봐서 선생님이나 부모님, 어른들에 대한 권위 불화가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심해서 치료를 받는 친구들, 자해나 자살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도 많습시다. 이런 고위기 청소년들은 심도 깊은 사례관리가 필요합니다.

#### ○ 깊은 사례관리 필요

- 학교 밖 청소년에게 중요한 것은 그 어떤 프로그램보다 심리적인 내적 힘. 그래서 상담과 깊은 사례관리는 더욱 중요하게 느껴짐

(참여자 2)

저희 꿈드림 친구들이 자립을 준비하든, 검정고시 준비를 하든 심리 내적인 힘이 없으면 못해요. 그래서 그걸 길러주는데 저희 실무자들이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러려면 실무자들이 전문적으로 해야합니다. 진짜 오래 기다려줘야 되고 힘든 작업인 것 같아요. 꿈드림을 찾는 친구들 중에는 진로 계획이 분명하고, 공부에 대한 계획이나 미래에 대한 준비를 잘 하는 친구들도 물론 있죠. 그런데 그런 친구들은 정말 소수라고 보편됩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진로 미결정 상태이고요. 혼돈스러운 상태라고 보면 돼요. 그 친구들이 마음에 힘을 길러야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학업복귀든 사회진입이든 뭐든지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 특별한 상담의 형식적 틀을 갖추지는 않지만, 한 명당 기본 세팅 10회기, 원하지 않는 친구는 3~4회기는 가짐

<참여자 2>

저희가 상담의 틀을 짜놓지는 않고요. 상담이 필요한 친구는 사례 담당 선생님이 상담을 하는데, 기본 세팅을 10회기로 하기는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장기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10회기를 한 후에 잠깐 브레이크 시간을 갖고 난 후 다시 상담을 시작해요. 사례 청소년 중에는 굉장히 오랜 기간 개인상담을 받는 친구

도 있고요, 상담을 필요로 하지 않는 친구도 있어요. 상담을 원하지 않는 친구는 상담에 대한 마음이 닫혔거나, 바빠거나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두 번은 만납니다. 저는 진로성숙도 검사나 심리검사와 해석 등 최소 두 번 이상은 만나는 것 같아요.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 충분한 상담-사례관리하는 데에는 인력이 가장 필요하다

<참여자 1>

센터의 보완사항이라면 인력입니다. 상담도 하고 아이들을 위해 사업도 하려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상담과 개별 맞춤형 지원사업은 우선순위가 바뀌더라도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력과 예산의 한계로 못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 운영을 하다보면 친구들을 만날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기본 50분 상담을 하려면 이전 상담 내용도 살펴보고 아이에 대한 고민도 해보고 동료들과 나누어 봐야 하는데 그런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 친구들이 담당 선생님들이랑 라포 형성이 잘 안 되면 프로그램에 참여를 잘 못하기 때문에 상담을 통한 관계 형성이 필요합니다. 선생님 만나면서 여기가 믿을 만한 곳인가 보다, 선생님이 나 도와주려고 한다. 어떻게든 선생님이 날 지지해 준다 느끼면 이제 해볼까 하면서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됩니다. 이처럼 상담과 맞춤형 서비스가 잘 운영되려면 전문 자격을 갖춘 인력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직원의 자격 요건

- 직원이 상담을 꼭 해야 하는 제도적으로 규정된 건 없다. 자격 요건에 학부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 실제 현장에서는 상담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그러므로 직원의 자격 요건을 상담전공자 석사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

(참여자 1)

국가적으로는 학부 졸업생으로 자격 요건이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광주는 상담전공자로 석사 이상으로 뽑으려고 애를 써서 저희는 현재 상담, 교육, 사회복지 분야 석사 학위를 가진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교 밖 친구들은 학교 안의 친구들이 가진 어려움 외에 학교 밖을 선택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가진 친구들입니다. 공교육의 울타리에서 벗어나고 어떤 사유로든 심리적으로 취약성을 갖고 있는 친구들인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연령대에 비슷한 경험을 한 선생님들과 서로 선생님인지 친구들인지 구분이 없이 하다 보니 실은 사건도 많이 있고, 아이들을 이해하는 폭도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원을 석사 이상으로 채용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국가적인 자격 요건이 이러다 보니 인건비 자체가 국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욱더 교육이 충분히 된 분들에게는 진입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대상을 고려한다면 조금 더 내공이 쌓여 있고 공부가 된 분들이 들어오셔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봐야 선생님도 친구들도 상처가 될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위법에 의한 자격요건이라서 국가적으로 바뀌는 것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저희로서는 절실한 부분이고 우리 시만이라도 가능하다면 적절한 인건비 보상을 통해서 전문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인건비 체계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아이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그걸 제공하는 선생님도 준비가 되어있는 분들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 외부의 상담적인 도움도 필요하지만 센터 내부적인 상담이 더 중요. 그 이유는 학교 밖 청소년의 특수성을 잘 알고 그들의 생활 특성에 가장 잘 맞출 수 있는 곳이 지원센터이기 때문

(참여자 2)

외부에 연계해서 상담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같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상담을 연계해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후기청소년 같은 경우는 청소년 동반자 선생님 중에 후기 청소년을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계셔서 10회기 상담을 연계하기도 해요. 외부기관이나 병원과 같은 곳에 가끔 연계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꿈드림 선생님들을 만나고 싶어해요. 꿈드림 선생님들에게 좀 더 친밀감을 느끼고, 오래 만날 수 있고요. 외부 상담실은 10회기 세팅이 끝나면 종결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지정된 시간에 규칙대로 약속하고 만나기 힘든 친구들도 많아요. 꿈드림 선생님들은 상주하고 있으니까 예외적인 조건에 찾아와도 시간이 맞으면 상담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거나 급한 경우 찾아와도 선생님을 만날 수 있어서 여기서 더 편안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참여자 1)

새로운 관계를 낫설어하는 친구들의 특성과 그 친구에 대해 상담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알고 있어 친구들에게 필요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센터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상담은 센터 안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실무자들의 개별 사업량이 많다보니 조금 더 시간을 내서 상담적으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금 더 사업량이 분산된다면 오는 아이들의 상담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러려면 전문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상담을 전공하셔서 그렇게 세팅화된 상담을 할 여건은 되는데 사업의 양과 운영상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 때문에 성인 상담과는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함. 더 효과적인 상담이 되려면 외부인이 생각하듯이 전문적인 상담사의 상담보다는 그 특성을 잘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지원센터의 상담이 더 효과적임

(참여자 1)

상담을 처음 접하시면 상담을 받아서 한번에 완전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은 청소년기의 상담은 상담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만들어 주는 게 상담의 제1차 목표입니다. 이 친구가 오랫동안 힘들어져서 저희에게 왔을 때 상담에 대한 첫 경험을 저희를 통해 긍정적으로 하게 하는 것이죠. 회복 탄력성을 길러주는 작업입니다. 여기서 자신의 어려움을 알고 극복하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다시 사회로 돌아가 사건 사고를 겪게 되고 20대든 30대든 다시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상담이라는 것이 내 삶에 도움이 되었던 기억으로 사설 상담소에서 가서 상담을 하게 될 수도 있는 이런 반복적인 작업을 통해서 사실은 좀 건강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친구들은 위급한 불이 꺼지면 상담을 종결하는데 그 위급한 불을 끌 때 상담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가 바라는 바입니다. 조금 나아지면서, 내가 세상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을 아이들한테 심어주는 거지요, 아무 어려움이 없던 상태로 만들어 줄 수는 없습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친구가 겪어야 되는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첫 번째에 1년이 걸렸다면 두 번째는 6개월이 걸리는 거고 세 번째 가면 3개월이면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는 과정 중 하나로서 상담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를 믿어주고 다른 사업 지원도 같이 해줄 수 있는 선생님들이 상담도 같이 해주시는 게 아이들한테는 매우 긍정적이겠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제가 두 기관(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다 운영하다 보니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 (2) 접근성과 동기부여

- 접근성과 관련한 학교 밖 청소년의 현안 및 취약점
  - 접근성의 문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의욕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음

(참여자 2)

학교를 그만둔 친구들의 배경에는 친구들과의 관계의 어려움도 있지만 학교가 멀어 등하교가 어렵다 보니 계속 지각과 결석이 쌓여서 그만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가정 환경이 어려워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녁에 일하고 아침에는 피곤해서 늦잠을 자고, 이런 것들이 반복돼서 '학교에 계속 못 갈 바에는 징계나 별점을 받기보다는 그냥 자퇴를 하자'는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현실이 센터에 오는 데에도 반복되고요. 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 중에는 접근성이 어려워서 잘 오지 못하는 청소년도 많거든요. 광주가 굉장히 넓잖아요. 센터까지 1시간 반 걸려서 오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교통도 너무 안 좋은데, 주변 환경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거의 없다보니까 어떻게든 센터에 나오려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동기부여가 안되면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시다. 꿈드림에 오면 식권도 받을 수 있고 친구들도 만날 수 있지만 그냥 편하게 올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라서 진짜 큰 마음을 먹고 와야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것도 엄청 고심하고 애써야 나오는 거예요.

- 접근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성을 복돋우는 것이 필요. 이런 적극성을 복돋우기 위해선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참여자 2)

친구들에게 필요한 것, 친구들이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원하는 욕구에 맞는 것을 개발하려고 하거든요. 친구들은 자기의 필요가 있으면 어떻게든 시간을 내요. 그리고 거리가 정말 멀어서 못 나오는 친구들은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 검정고시 온라인 수강권을 지원한다든지. 그런데 되도록 대면으로 하는 활동이 서로 교류하면서 친구들의 사회성도 증진되기 때문에 가급적 센터에 나오는 것을 권하는 편이에요.

-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사업
  - '꿈울림카드 생활지원'과 '급식지원' 프로그램은 센터의 프로그램 진행에 동기부여 및 많은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음.

(참여자 1)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들 때문에 실은 경기도에서 청소년들에게 교통비 지급을 해주고 있고, 더불어 저희 학교 밖 친구들에게는 꿈울림 카드를 통해서 생활지원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생활지원은 경기도에서만 지원 해주는 사업이라서 만약에 전국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센터의 접근성을 높이려면 이 지원이 저는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광주도 시 지원을 통해서 지원단가가 상향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램입니다.

(참여자 2)

꿈울림카드 생활지원은 꿈드림에서 지원해주는 복지지원 사업 중 하나예요. 경기도 교통비 지원사업과 중복 돼서 이제는 교통카드 기능은 빠졌는데, 꿈드림 프로그램을 한 달에 3번 이상 참여했을 때는 2만원, 6번 이상 참여했을 때는 5만원을 충전해줘서 본인 체크카드처럼 사용하게 하는 거예요. 포인트로 충전을 해주거든요. 이 지원이 꿈드림 친구들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멀리서 오는 친구들도 나오게 되더라고요. 일 주일에 한 번 씩이라도 세 번 이상 꿈드림 선생님과 상담하면 2만원을 받으니까요.

(참여자 2)

급식지원도 사실 친구들한테 동기부여가 돼요. 저희 센터는 담당 선생님이 정말 열심히 발로 뛰어서 꿈드림 인근 식당 14곳과 협약을 맺었어요. 급식지원은 돈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페이코 포인트로 주는 식권이에요.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꿈드림 왔을 때 선생님이랑 상담하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밥 먹고 갈 수 있으니까 외식하는 기분인가봐요. 친구들이랑 같이 프로그램 끝나고 수다 떨면서 떡볶이도 먹고, 햄버거도 먹고 이런 즐거움도 주고요. 급식지원도 친구들에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루 한 끼 골라서 메뉴를 바꿔 먹을 수 있으니까 센터에 오는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 학교 밖 청소년들이 느끼는 교육참여 수당의 의미

- 집에서 용돈 등을 받기가 어렵고,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자기를 개발하는 시간을 그만큼 소비해야 하는 데에 비해 그만큼 수당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함
- 받은 수당으로 교통비,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간식비 등 활동을 위한 자금으로 유용하게 사용

(참여자 2)

친구들에게 용돈을 얼마나 받는지 가끔 물어보면 한 달에 5만원 받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런데 꿈드림 활동을 한 달에 6번 하면 5만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한 달 용돈만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드림 활동을 통해 받는 지원을 매우 귀하게 여기고 그걸 받기 위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해요.

(참여자 1)

학교 밖 친구들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50%가 넘습니다. 그 이유는 집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으니 돈 쓸 곳이 적어질 거라는 부모의 생각이나 부모와의 갈등으로 용돈이 적어지거나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움직이면 돈이 드는 세상에서 부모님들 생각은 학교를 안 다니니 교통비도 필요 없고 친구들이랑 만나서 뭘 먹어야 하는 일도 줄고 학원도 안 다니니 돈이 적게 든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육 참여 수당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친구들은 그 돈을 가지고 아르바이트 하는 데 시간을 쓰지 않고 자기한테 필요한 어떤 것들을 고민하고 실행해봄으로써 자기 길을 찾는 데 에너지를 쓰고 덜 방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수당은 처음에 기관의 신뢰를 가지게 하며 또한 프로그램에 대한 동기부여에 많은 기여를 함

(참여자 1)

경제적으로 친구들이 넉넉하지 않은 것도 수당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지만 센터에 대한 신뢰를 쌓는 데 수당이 큰 몫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담이든 다른 지원이든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그 다음 단계로 이동할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수당을 통해서 본인의 생활하는 데 필요한 부분들이 충족된다면 센터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들이 처음으로 센터에 유입될 때 경제적 지원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여기 있으면 많은 도움받을 수 있겠구나 하고 처음에 그 필요만 생각하고 와서 보니 친구들도 만나고, 선생님도 좋고 이래서 더 좋아지는 친구들도 있고, 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고, 여기 기관에 대한 신뢰를 갖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외부 진행 프로그램의 접근성 문제

- 외부 진행 프로그램은 필요함

(참여자 2)

자립 분야를 예로 들자면, 최근에 센터 근처에 있는 바리스타 학원과 업무협약을 맺어서 바리스타 학원에서 친구들이 자격증 취득을 위해 배울 수 있게끔 도움을 주고 있어요. 컴퓨터 자격증 과정도 센터에 컴퓨터 관련 기기들이 다 없으니 학원에 보내서 배우게 해요. 미용 관련 자격증 같은 경우도 미용을 배울 수 있는 시설이 여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뷰티샵을 운영하시고 강사 자격증 자격을 갖추신 선생님을 저희가 모셔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강사님의 뷰티샵으로 친구들이 찾아가서 수업을 받기도 합니다. 직업훈련이나 진로탐색이 필요한 친구들이 원데이클래스든 직업체험이든 해볼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이 광주에서 쉽게 찾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모든 체험을 할 수 있고,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을 센터에 모두 갖출 수는 없어서 외부 진행 프로그램이 많이 필요해요.

- 외부 진행 프로그램의 접근성 문제 - 기동력을 더할 수 있는 승합차 같은 차량 지원의 필요성 - 외부의 다양한 기관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많은데 이런 외부 자원을 찾아가서 체험할 때 승합차 같은 차량이 꼭 필요함. 개별적으로 개인 교통비 지불해 찾아오라 하면 참여율이 낮아지기 마련임

<참여자 1>

센터에 보완되었으면 하는 부분은 저희가 소규모로 움직이는 사업들이 많은데, 친구들을 데리고 움직이려면 차량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체험을 하려면 다양한 공간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움직일 때 개별적으로 와야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못 올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수련관은 셔틀도 있긴 하지만 스타렉스처럼 몇 인승 차가 있어서 소규모로 움직임이 가능한데, 저희는 그게 안 되다 보니 대형차를 항상 불러야 한다거나, 버스로 개별적으로 오라고 해야 된다거나, 몇 대의 택시로 나누어 움직이는 등 이런 부분들이라 조금 더 사업이 다양화하려면 기동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승용차로는 불가능하고, 적어도 10인승이 넘는 차들이 하나가 배치되길 바랍니다. 또한 버스 렌트 비용으로 너무 많이 지출하다 보니 다른 사업비로 써야 하는 부분들이 그 버스 렌트에 다 쓰고 있는 형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승합차가 있으면 조금 더 움직이는 게 편리하고 안전하지 않을까 합니다.

(참여자 2)

인원이 많은 경우는 버스 렌트를 해요. 그렇지만 렌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참여 인원이 소수인 경우에는 친구들에게 프로그램 장소로 직접 찾아오도록 합니다. 청소년 스스로 먼 거리를 교통비를 지불하고 오려면 그 정도로 청소년이 하고 싶어하고, 열정이 있고, 동기나 욕구가 맞아야 하거든요. 관심분야가 아니더라도 그냥 한 번 체험해보려는 친구들에게는 동기가 낮아져서 참여율이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실무자들이 참여를 독려하고 동기부여를 해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꿈울림 카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득합니다.

### (3) 학교 밖 청소년 발굴

#### ○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시스템

(참여자 2)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지는데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자퇴를 할 때 담임 선생님과 면담을 하거나 위클래스 상담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자퇴를 하는데 그때 꿈드림 안내를 받고 꿈드림에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또 교육청을 통해 연계되기도 하는데 자퇴를 할 때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하면 꿈드림에서 사용하는 안전망 시스템으로 교육부에서 연계된 정보가 와요. 그러면 연계된 정보로 저희가 전화를 해서 청소년에게 꿈드림을 알려주고 올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매년 두 번씩 있는 검정고시 원서 접수 기간에 교육청으로 직접 아웃리치를 나가서 검정고시 접수를 도와주며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고 있어요. 원서접수장에서 꿈드림 홍보도 하고 신청도 돕는 직접 발로 뛰는 방법이지요. 그 다음은 기관을 통해서 연계를 받아 발굴하는 경우가 있어요. 꿈드림을 이용하는 청소년 중에는 이미 타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기관차원에서 연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광주시 꿈드림에서 특히 잘 되고 있는 부분은 이미 발굴된 친구들이 자신의 친구들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전국 센터 중에 이 부분은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이미 꿈드림을 이용하고 있는 친구들이 꿈드림 활동을 하며 좋았던 점을 학교를 자퇴한 자신의 친구들에게 직접 홍보해줘서 친구의 소개를 받고 직접 오거나, 꿈드림 친구가 자기 친구를 데리고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극적인 보호자 같은 경우는 직접 정보를 다 찾아보시고 보호자님이 먼저 연락을 주셔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도 있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선생님이 학생이었던 청소년을 상담하다가 학교를 그만두게 되면 같이 찾아와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꿈드림에 여러분의 멘토 선생님들이 계신데요. 꿈드림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봉사도 하시고 청소년과 지역사회에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 지역에서 만나게 되는 학교 밖 청소년을 멘토 선생님이 직접 발굴해서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은 청소년이 SNS나 인터넷을 직접 찾아보고 나서 홍보 게시물을 보고 검정고시 지원이나 자립지원을 문의해서 발굴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 오랜 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발굴될 때가 종종 있는데 읍면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을 통해 오랫동안 지원을 받지 못하고, 고위험 학교 밖 청소년이 발굴될 때가 많음.

(참여자 2)

자퇴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은 오히려 금방금방 연계가 되는 편인데, 학교를 나온 지 오랜 시간이 지난 친구들이 발굴될 때가 있어요. 자퇴할 때 꿈드림에 대한 정보를 듣지 못하고 검정고시 준비도 한참 후에 하다

보니 뒤늦게 검정고시 접수를 하면서 꿈드림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검정고시 접수장 아웃리치를 나가보면 자퇴한 지 2~3년이 지날 때까지 꿈드림을 몰랐던 친구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통해 발굴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고위험군 청소년이 많죠. 진작 연계되지 못해 안타깝기도 하고, 이제라도 발굴되어 기쁘기도 합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통해 발굴되는 경우는 고등 연령을 지난 청소년들도 꽤 있어요.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을 통한 발굴에 있어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

-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매번 바뀌고, 바뀔 때에도 업무가 인수인계 안 되고 있음. 업무 리스트에 등재되어 바뀌더라도 확실하게 인수인계될 수 있었으면 함

(참여자 1)

저희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저희 사업을 알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저희 센터를 연계해주시면 좋을 텐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저희 센터를 홍보해도 다음해엔 안 계시고 하다보니 이런 부분들이 조금 유기적으로 연결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관내 가구들을 관리하시다 보니까 학교를 그만두거나 위기가 높은 친구들을 잘 알고 계셔서 가족을 설득하거나 우리가 친구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 동의를 받아주거나 하시면 그동안 누적되어 있는 친구들을 찾아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 모임이 있을 때 저희가 가서 친구들을 도울 수 있는 사업들을 설명했으면 좋겠고,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바뀔 때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이런 부분들도 함께 인수인계 해주시면 참 좋겠다고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4) 센터의 향후 방향성

- 청소년들이 여기 안주하려고 하는 생각, 여기를 박차고 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함

(여기 안주하려는 청소년들은 없나요? 란 질문에)

(참여자 3)

있죠. 여기가 편안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다기보다는 세상 밖으로 나가려고 힘을 냈다가 이 도전에서 불안하거나 뭔가 조금 좌절되거나 그랬을 때 훨씬 편안한 곳은 저희 꿈드림이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여기에서 7년 동안, 그러니까 중학교 연령대에 와서 7년 동안 여기에서 지냈던 친구를 만났어요. 지금도 많이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잘 지내는데, 뭔가 좌절하거나 어렵거나 하면 생각나는 곳이 여기라서 찾아오는 거죠. 저희도 청소년을 계속 상담하거나 여러 지원을 하면서 청소년이 건강하게 자립해서 꿈드림을 떠나가기를 바라요. 그게 이 서비스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친구들에게 건강하게 꿈드림을 나가는 것이 선생님의 바람이고 너도 원하는 것이라고 계속 말합니다.

- 10년이 되다 보니 센터의 주된 사업도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안전한 자립을 위한) ‘취업 지원’ 쪽으로 변화되어야 함

(참여자 1)

2015년도에 꿈드림센터가 생기고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처음에는 15세~17세였던 친구들이 센터에 와서 큰 친구들도 있고, 저희 센터가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20대 친구들이 유입되다 보니 사회로 진출해야 하는 친구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초반기엔 18세 이상 친구들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후기청소년들이 많습니다. 대학 진학을 원하는 친구들도 있으나 취업을 원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이들을 위한 취업 준비 과정이 필요한데 그 중간 과정으로서 뭔가 해줄 수 있는 훈련과정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현재 우리의 과제입니다. 저희가 지금 제일 어려운 부분은 청소년들이 22세~24세가 되어서 대학교를 들어가지 않는 친구들은 사회에 진입해야 하는데 친구들을 보낼 취업처가 마땅히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돈으로 벌어서 살아야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취업처와 저희가 연계할 수 있는 취업처가 다르다 보니까 원활히 연계되지 않고 학교 밖 친구들의 특수성으로 인해 적응하는데 좀 더 긴 시간을 요하기도 해서 취업처가 이 친구들에 대한 이해도 많이 필요로 하고, 어쨌든 연결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청소년 문화가 다른 이들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큰 조직보다는 창업을 선호하기 때문에 창업을 통해 짧은 시간이라도 사회적 관계나 수익 창출에 대한 것을 배울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 창업 관련 부서 설립

- 창업 관련 부문은 어려운 부분이어서 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지만, 청소년들에게 매우 필요한 부분
- 창업해서 1~2년간 청소년들이 실전처럼 직접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창업 훈련 기관
- 인력, 예산, 공간 등이 필요

(참여자 1)

말씀드린 대로 20살에 대학교를 진학하지 않고 사회에 나가려고 했을 때 저희처럼 직장생활을 하기에는 충분히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하기에는 좀 안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기는 하나 저희 센터가 할 수 있는 사업인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적으로 생각해보면 사회적 기업의 창업을 통해 순환 구조로 만들 수 있다면 친구들이 여기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1년~2년 회사 생활을 해보고 그래서 좀 훈련이 되면 진짜 사회에 나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한 번 생각해봤습니다. 사회적 기업에서 뭔가 자기 삶을 살다가, 좀 더 큰 사회로 나갈 수 있게 중간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창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실무자와 공간 및 인건비 등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드는 사업이라고 사업을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팀이 있었으면 합니다. 아직 창업의 여건이 안 된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12시간 최대 120시간 인턴십 과정을 좀 더 장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확대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현재의 일반 직업훈련 기관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훈련하기가 부족함

(직업훈련 기관이 많이 있잖아요. 청소년들 훈련하기가 어렵나요? 란 질문에)

(참여자 3)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직업훈련기관에 열심히 참여해서 직업훈련을 받는 과정을 견디는 것을 조금 힘들어해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아이들의 상황과 특성에 맞게 훈련시키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일반적으로 직업훈련기관에 청소년을 보내고 연계하는 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참여자 1)

직업전문 학교들은 초중고 공교육 과정을 거쳐 들어간 친구들도 졸업하기 어려워합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계속해 온 아이들이 아니고 좀 더 다른 일상을 겪어 온 학교 밖 친구들에겐 그 중간의 어떤 훈련을 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서의 경험 후 직업 훈련 기관으로 가는 것이 탈락률이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뭔가가 필요한데 광주 관내에는 없고 가까운 근교에도 없고 또 그렇게 해서 멀리 있는 기관을 찾아가도, 다양한 특성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오다보니 거기서 우리 친구들이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 (5)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음

- 학교 울타리를 벗어나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다방면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변화가 필요함

(참여자 2)

여전히 학교 밖 청소년을 비행 청소년으로 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 세대는 자퇴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자녀가 자퇴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들이 굉장히 반대하고 되게 안 좋게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사회전반적으로 아직까지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거죠. 학교생활을 유지하기 힘들었던 친구들도 있고, 진취적으로 자기 삶을 개척해보려고 학교를 나온 친구들도 있고, 가정의 환경이 힘들어서 어떻게든 빨리 경제적 독립을 하려고 나온 친구들도 있고, 다양한 이유로 학교 밖 청소년이 되거든요. 학교를 벗어났다는 것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나 울타리 안에 있다가 그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학교 밖 상태인 그 자체가 위기를 겪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학교와는 또 다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소년이면 모두 우리 국민이잖아요. 그 청소년의 특성과 상태에 맞게 학교 안에 있는 청소년이어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지원대로, 학교 밖에 있어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지원대로, 균형이 잘 잡혀있는 인식이나 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 학교 밖 지원사업 자체가 인식개선효과

- 학교 밖 청소년들도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해준다면, 그들은 활발하고 자발적 사업을 꾸려 나갈 수 있을 것임. 그들의 이러한 즐길 수 있고, 자발적 사업이 밖으로 보여진다면 그것 자체가 인식 개선 사업

(참여자 1)

저는 우선 학교 밖 친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안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밖 친구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행, 부적응, 사고 친 친구들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회의나, 토론회 등 그런 자리에 학교 밖 친구들도 대상이 되다면 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주변 분들이 학교 밖 친구들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하나 학교 밖 사업을 운영하면서 드는 생각은 학교 밖으로 나올 때 친구들이 취약해서 나올 수도 있지만, 학교 밖으로 나와서 학교 안의 친구들이 받는 것만큼 국가적 지원을 적절히 받았다면 이 친구들의 상황이 좀 더 나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지원이 있었다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나 사회가 필요한 지원을 적절히 못해서 상황이 안 좋아진 것이지, 이 친구들이 자체가 나빠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들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참여자 3)

긍정적으로 꿈드림에서 뭔가 하고 있는 것, 청소년으로서 친구들이 즐기고 있는 것, 열심히 살고 있는 모습이 그냥 밖으로 계속 보이면 인식개선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친구들이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 잘하고 있는 모습을 SNS에 올리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활동을 홍보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인식개선을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1)

실은 2015년도 실태조사에는 45% 이상이 '편견이나 선입견 때문에 힘들다'라고 했으나 2023년도 실태조사에서는 약 20% 정도로 줄었고, 이는 그동안 저희가 친구들과 함께 무언가를 해왔고 그 결과물이 외부에 알려지고 지역사회와의 접촉점이 늘어남으로써 자연스럽게 인식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실태조사에서 부모의 갈등도 많이 줄어든 걸로 나오는데, 이는 예전엔 친구들이 학교를 그만두면 낙오자라 생각되어 힘들어하셨지만 지금은 좀 더 다른 선택을 통해 삶을 잘 살려고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또한 예전에는 자녀가 학교 밖으로 나오면 모든 것을 부모가 책임져야 하는 압박과 죄책감에 힘겨워하셨지만 지금은 국가적 지원이 많다 보니까 부모님의 부담감도 줄어들어서 갈등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식개선을 목표로 사업을 해야 한다기보다 친구들이 원하는 사업을 열심히 하고 그들의 건강한 모습들이 지역사회에 보인다면 자연스럽게 인식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학교 밖 청소년 인식개선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하면 좋을 것임

(참여자 1)

국가가 기관을 만들고 기관에 대한 사업지원을 확대하고 학교 밖 친구들에게 학교 안 친구들이 받고 있는 부분들을 확대시키다보면 서로의 차이도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학교 밖이 밀려나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선택지 중 하나로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청소년기 발달과정상 일부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은 이래요 저래요 설명할 필요없이 자연스러운 시선으로 보게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6) 독립된 공간 필요

- 꿈드림 센터도 일반학교처럼 학교 밖의 학교로서 기능을 다 할 수 있게 독립된 공간 필요

(참여자 1)

독립된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학교들은 학교라서 수업교실, 컴퓨터실, 음악실, 체육관 기타 등등의 공간이 있는데 현재 꿈드림센터는 저희처럼 타 기관의 일부를 사용하거나 위탁기관의 한 팀으로 존재하는 곳들이 많아서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하라고 국가 지침에는 되어있으나 사업을 운영할 공간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을 교육하고 사회로 나갈 수 있게 돕는 학교 밖의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조직과 공간은 열악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청소년 인구는 줄어들 것이고 학교 밖 친구들은 증가할 것이라면 학교처럼 좀 더 인력과 공간에 있어서 체계적인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인구수가 줄면서 폐교가 많아지고 있는데 저는 국가적으로 교육부가 조금 더 노력해서 그런 폐교를 학교 밖 학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 독립된 공간 필요 이유

- 지원센터의 필요에 맞춘 프로그램을 못할 때가 있음

(참여자 2)

공간의 문제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을 포기했다기보다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어도 공간의 제약을 받으니 그것을 늘 염두하고 공간에 맞게 프로그램을 축소하거나 변경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최근에 자원 연계 기관을 발굴했는데, 학교 밖 청소년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고 싶었지만 저희가 전용 공간도 없을 뿐더러 장소를 빌리는 한계가 있어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하지 못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체육 활동을 희망하는 경우도 많은데, 장소를 빌리려면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이 우선이다 보니 저희가 원하는 요일이나 시간에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럴 때 전용공간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 (7) 꿈드림 센터에 대한 광주시의 현재 지원 내용 및 수준 평가

-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관심도 많고 시의 지원은 확실히 많음

(참여자 1)

광주시가 12층 건물을 짓고 있는데 저희가 그 일부를 쓰게 됐습니다. 지금은 청소년수련관 일부를 사용하고 있어서 전용공간보다 대여 공간이 많았는데 새로 짓고 있는 건물에서는 전용공간을 조금 더 배정받아서 지금보다는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늘어나는 합니다.

또 전용은 아니지만 식당, 체육관, 작업장 등 다양한 공간을 대여해서 쓸 수 있는데, 단점이라면 타 기관과 조율해서 써야하기 때문에 시간대를 맞추어 진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참여자 3)

시의 지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부분입니다. 지자체별로 봤을 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 시의 지원은 확실히 관심도 있으시고 지원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잘해주신다는 근거를 들자면, 첫 번째는 저희가 다른 시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아동 연령대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게 시에서 따로 예산을 마련해 주셨다는 부분입니다. 청소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서 저희가 뭔가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협조를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느끼고 있어요. 또 하나는 저희가 두 팀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222개 전국 센터 중에서 매우 드물고, 경기도에서는 저희가 최초로 두 팀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모가 늘어나려면 시의 지원이 없으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광주시 꿈드림이 몇 년 사이에 인력도 늘었고요. 광주시 청소년 규모를 생각하면 다른 시에 비해서 저희 인력이 많은 편입니다.

○ 그러나 이런 가운데에서도 실무자들의 대우나 처우는 낮은 게 사실

(참여자 3)

저희 광주시만의 사정은 아닙니다만 저희 실무자들이 굉장히 애쓰고 있고, 광주시 꿈드림 전 직원이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자들의 대우나 처우는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인력으로, 사람의 수고로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청소년을 위해 실무자가 수고하는 노력에 비해서 인건비나 처우 등은 낮다고 봅니다.

(참여자 1)

작년 광주시 발생한 학교 밖 청소년 인원이 350명이 채 되지 않는데, 저희 센터는 450명 가까운 청소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비슷한 규모의 청소년 인구와 학교 밖 청소년 발생 인원을 갖고 있는 타 시군구에 비해서도 저희가 청소년을 훨씬 많이 만나고 사업량도 많은 편입니다. 사업량이 많기에 청소년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에게 더 디테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례관리를 하려면 인력과 예산이 더 많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청소년들에게 뭔가를 해줄수록 청소년들이 건강해지고 성장하는 것을 알기에 더욱 많은 것을 주고 싶어지고 그러니 더욱 일이 많아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 (8) 기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개선점

○ 인턴십 제도에 관한 개선점

- 인턴십 기간 연장 및 정규 시간(am9-pm6) 인턴십 과정 개설

(참여자 1)

꿈드림 센터와 MOU를 맺은 업체와 함께 진행하는 인턴십 지원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관에 청소년이 가서 직장체험을 하는 것인데 체험처는 협력기관이 제공하고 청소년들에게 지불되는 비용은 꿈드림센터가 지원하는 형태의 사업입니다. 현재 3개월 100시간 주2회근무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데 인턴십이 최소 6개월 정도는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0시간은 일을 배우기에는 짧은 기간이라서 청소년들이 적어도 6개월 정도 일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턴십 비용에 대한 지원을 국가가 해준다면 더 많은 청소년들의 사회진입에 도움을 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진짜 사회에 나가기 전에 중간 과정으로 조직생활을 경험해보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에 나가면 대부분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해야 하고 다양한 관계를 맺고 겪으려면 적어도 6개월 정도 미리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 지원받는 것만큼 지원을 해줄 필요 있음

(참여자 1)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은 매우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해당 시·군·구에서 교육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를 나오면 이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부모님들도 세금을 내는 국민이니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과 같은 지원을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국가나 시 당국이 조금만 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다양한 활동 지원

- 여행이나 캠프 활동은 대인관계가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에게 좋은 훈련하는 장이 될 수 있음

(참여자 3)

꿈드림에 있었던 친구들을 나중에 만났을 때 어떤 활동이 가장 좋았냐고 물어보면 친구들과 같이 여행가고 놀러가는 것이 좋았다고 대답합니다. 대인관계가 어려웠던 친구들도 꿈드림에서 친구를 사귀고 같이 여행이나 캠프를 하면서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게 보여요. 청소년기 또래 관계는 2~3시간 만나는 것보다 1박 2일 동안 같이 생활해보면 훨씬 관계가 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을 많이 시켜주고 싶은데 현실적으로는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 다양한 활동 경험을 위해 예산지원이 더 필요함

(참여자 2)

현실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은 경험의 폭이 넓지 못한 것 같습니다. 꿈드림 친구들도 다양한 체험이나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거든요.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면 의외로 친구들이 처음 접해보거나 도전해보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통해 청소년기에 내가 좋아하는 것도 알고, 싫어하는 것도 알고, 자신에 대해 알아가게 되면서 진로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이런 활동 지원을 위해 책정된 예산이 매우 적은 편입니다. 한두 번 캠프를 가면 소진되는 예산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친구들이 다양한 활동을 많이 경험해보도록 무료로 지원해주는 여러 자원을 찾아 연계하려고 애쓰는 편입니다. 요즘 물가를 생각하면 예산안에서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캠프 같은 경우 희망하는 청소년은 많은데 예산부족으로 선별해야하는 상황이 되다보니 많은 청소년에게 기회를 줄 수 없어 안타깝습니다.

- 문화·체육·여가·강좌 바우처 사업 제안

(참여자 1)

2023년도에 여가부에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했을 때 첫번째 욕구가 교통비 지원이었고, 두 번째 욕구는 청소년 활동을 바우처 사업으로 지원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체험을 하고 싶은 친구들이 자신에게 맞는 문화활동을 찾아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활동비를 직접 지급해 주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월별로 문화활동비를 개별 친구들에게 주고 그 비용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문화활동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다. 영화를 보든, 공연을 보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꿈드림에서 일률적으로 10명~20명을 데려가서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개별적 욕구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자율성과 만족감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개인 맞춤 활동을 할 수 있다면 청소년 성장에 도움이 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IV. 결론 및 제언

### IV. 결론 및 제언

1. 연구의 요약
2. 제언



## 제1절 연구의 요약

### □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요약

- 청소년들이 학교 밖으로 나오지 않고, 학교에서 자신의 목표를 찾고, 또래와 함께 생활하며, 사회화에 필요한 관계 맺기와 책임감, 의무감 등 정서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이 학교 밖을 선택하는 것을 최대한 줄여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학교 밖을 고민하기 시작하는 시기에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
  - 본 실태조사에서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하였다'는 응답이 21.7%에 불과해 대부분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업중단숙려제 참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즉, 학교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과정을 보다 정교화하는 것은 물론, 학교 밖을 준비하는 과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이 학교 밖을 나가서 지원기관을 찾아가는 시기의 공백이 길어질수록, 청소년 발굴이라는 어렵고 복잡한 긴 시간의 업무가 기관에서 시작되므로 청소년의 학교 밖에서 기관으로 넘어가는 시기는 최대한 짧게 하여 공백을 줄여나가야 함.
  - 본 실태조사의 기관 및 서비스 이용 시기의 질문에서 학교를 그만둔 후 6개월 미만에 이용했다는 응답은 45.3%에 그치고 있음(대안학교는 기관에서 빠져 있어서 대안학교 이용자는 응답에서 빠져 있을 가능성이 많음).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서 기관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길어지고 있는 실태를 나타내고 있음. 학교를 그만둔 후 6개월 이상이 26.4%, 지금까지 이용한 적 없다 28.3%(대안학교 이용자들이 여기에 속해 있을 확률이 높음)<sup>1)</sup>.
- 본 연구결과에 있어서 다행스러운 것은 예전보다 부적응이나, 비행은 이유로 학교 밖으로 쫓겨나는 경우보다 자신의 꿈이나 계획으로 인해 학교 밖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이 경우에도 청소년이 꿈꾸고 계획한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케어가 필요함.
  - 본 실태조사에서 학교를 그만둔 이유로 '비행으로 보호처분 혹은 형사처벌의 이유나 학교 규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아서'라는 응답은 0.0%로 나타났으며, 또한 학교를 그만둔 당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아무 계획 없었다는 응답이 14.6%에 그치고 있고, 학업 및 취업(창업) 등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함
- 다만, 학교 밖 청소년들이 외부의 상황적인 제약 없이 그들이 원하는 바를 실현해 갈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영역별, 청소년 유형별 욕구에 맞게 맞춤형 지원정책이 제공되어야 함.

1) 본 실태조사는 대안학교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음

- 본 실태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영역별 욕구가 조사되었음
  - 학업 영역 : 검정고시 준비(학습, 비용 등) 지원 26.7%, 대학 진학 및 대학 입시 상담 21.0%, 학습 또는 진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 15.2%, 진학정보 제공(검정고시, 입시정보, 대안학교 등) 14.3%, 진로탐색을 위한 체험 13.3% 등
  - 진로/직업 영역 : 진로상담, 직업훈련, 취(창)업을 연결하는 통합 프로그램 46.7%, 자산관리(용돈이나 생활비 혹은 알바비 등을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방법)에 관련된 정보 제공 31.4%, 일과 학습을 병행하여 훈련받는 지역사회 작업장(목공, 도예, 디자인, 인테리어) 10.5%, 근로 중 피해(언어폭력, 임금체불 등)에 대한 보호 6.7% 등
  - 건강/상담/복지 영역 : 건강검진 제공34.6%, 각종 고민에 대한 상담 제공 21.2%, 가족캠프,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 가족관계개선 프로그램 제공 11.5%, 인터넷(게임, 스마트폰 등) 중독치료 지원 9.6%, 각종 질병에 대한 치료 8.7% 등
  - 활동 영역 : 교통비 지원 23.8%, 청소년 활동 바우처(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쿠폰) 제공 21.0%, 체육활동지원 14.3%, 동아리 활동에 관한 지원 12.4%, 모임, 휴식, 놀이 등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자유공간 제공 10.5%, 문화예술(그림, 사진, 악기 등) 활동 지원 9.5%, 또래 교류 프로그램 6.7% 등
-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별 정책적 지원
  - 학업형, 혼합형(학업형+근로형) : 학업·진학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 - 학업·진학 관련(복학, 검정고시, 대안학교 등), 경제적 지원 관련(상담비용, 검정고시비용, 학비 등)
  - 근로형 : 원만한 경제활동을 위한 정책적 지원 - 진로·직업 관련(진로검사·상담, 직업교육·훈련 등), 주거 지원 관련(자립생활관, 그룹홈 연계 등)
  - 비행형, 무업형 : 근로형과 학업형으로의 선회가 선행되어야 함. 심리건강 관련(가족상담, 인간관계개선 등)한 정책적 지원
- 맞춤형 지원정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형성시키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성숙과 성장을 위한 시공간을 제공해주어야 함.
- 본 실태조사 결과 특히 소속감, 관계 형성, 정서적지지, 심리적지지 등은 매우 필요한 것으로 드러남.
  - 학교를 그만 둔 이유로 심리·정신적인 문제로란 응답이 19.0%(종합)나 차지했으며, 1순위 응답에서는 25.7%로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자아존중감 척도조사에서 부정적 응답(전혀 그렇지 않다 및 그렇지 않다)의 비율이 23.3%나 차지하였으며, 최근 12개월 동안 자살생각을 하였다는 응답은 17.9%, 최근 12개월 동안 자살시도를 했다 10.4%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학교를 그만둔 후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 나 혼자라는 불안 8.7%,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 단절 8.2%, 할 일도 없고,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의욕도 없음(무기력함) 10.2% 등으로 나타남
  - 본 실태조사(FGI) 결과 학교밖청소년들은 깊은 사례관리가 필요하며, 학교 밖 청소년

의 특수성을 잘 알고 이 특성에 가장 잘 맞출 수 있는 곳이 지원센터이기에 센터 내부의 상담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진술됨

- 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도 중요하지만, 학교를 그만둔 후 본인의 집 이외에서 지낸 경험이 있는 비율이 22.6%나 차지하고 있어 이들의 생활 공간 지원 또한 중요한 것으로 드러남

##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원 강화(FGI 결과 요약)

- 본 연구의 FGI 조사결과,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의 지원강화 방안
- 학교 밖 후기 청소년들의 취업 지원을 위한 강화 방안
  - 센터가 설립이 된지 10년이 되다보니 센터의 주된 사업도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완전한 자립을 위한) '취업 지원'의 사업 강화를 모색
  - 설립 초기와 달리 구성원들 중 후기 청소년의 비중도 높아져서 센터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도 생겨남
  - 그 예로 창업 관련 부문을 고민하나 많은 지원이 필요함
  - 인력, 예산, 독립된 공간 등의 지원이 필요함
- 학교 밖 청소년들은 깊은 사례관리가 필요
  - 본 실태조사의 FGI(전문가 조사) 결과 학교밖청소년들은 깊은 사례관리가 필요하며,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다양한 활동 이전에 심리적인 내적인 힘이며, 그래서 상담과 깊은 사례관리는 더욱 중요하게 느껴진다는 의견
  - 학교 밖 청소년들은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음.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겪는 기본적인 심리적 어려움은 학교 친구들과의 교우관계 등 사회적 관계에서 어려움을 많이 갖고, 간혹 선생님 등 권위에 대해서 불화, 그리고 개인적 우울정서나 불안, 자해 자살 사고를 겪는 등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많이 겪음
  - 외부의 상담적인 도움도 필요하지만 내부적인 상담이 더 중요. 학교 밖 청소년의 특수성을 잘 알고 이 특성에 가장 잘 맞출 수 있는 곳이 지원센터임
  - 실제 현장에서는 상담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들의 깊은 사례관리가 이루어지려면, 직원의 자격 요건을 상담전공자 석사 이상으로 해야 함.
-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지원
  -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둔 이후 후회한 이유로 친구를 사귄 기회가 감소되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매우 높음(종합 39.7%, 1순위 54.2%)

- 친구 사귄 기회가 감소하여 학교를 그만둔 것을 후회한다는 응답은 한편으로는 이 청소년들이 사회적 관계에 대한 욕구가 많으며, 따라서 또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필요성을 시사하기 때문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에서는 여행이나 캠프 등의 활동을 중요한 사업으로 진행함. 또한 이러한 다양한 활동은 대인관계가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에게 좋은 훈련의 장을 제공함
- 이것에 대한 예산 지원 확대가 필요하며, 여행이나 캠프, 외부 진행 프로그램 진행시에 기동력을 위해 승합차 같은 차량 지원의 필요성이 있음
- 문화·체육·여가·강좌 바우처 사업 제안
  - 문화활동, 체육활동, 여가, 강좌 등은 단체로 해도 좋지만 개별적 욕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개별적 활동 지원하기 위해 문화·체육·여가·강좌 바우처 지원
- 사업을 위한 지원 욕구
  - 인력, 예산, 독립된 공간, 기동력 위한 차량(승합차) 지원 필요

## 제2절 제언

### □ 청소년의 특성 및 욕구 기반 맞춤형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지원의 효과성 뿐 아니라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기 유발을 위해서 반드시 청소년의 특성 및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학교 밖 청소년은 사회환경적인 변화에 따라 함께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학교를 그만둔 이유도 과거와는 다르며, 또 현재 학교를 그만두는 이유도 매우 다양함
  -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찾는 청소년들이 저연령화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설립한지 10여년이 되어 가는 시점에 센터의 후기 청소년의 비율도 높아져 가고 있음. 본 실태조사 결과를 보듯이 후기 청소년들의 사회적 자립을 위한 욕구도 높아져 가는 경향
  - 이러한 다양한 정책 대상의 특성과 또 욕구에 대한 이해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이 우선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유형별 지원 욕구 및 학교를 그만둔 후 겪고 있는 어려움 등 실증조사를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
  - 본 연구의 설문조사 및 FGI(전문가 조사) 결과 영역별로 다양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욕구 및 어려움이 조사되었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정책적 지원을 고려할 때 다양한 정책 대상의 특성과 또 욕구에 대한 이해에 기반하여 맞춤형 지원을 고려하기를 제언함
- 학교 밖 청소년 유형별(학업형, 무업형, 직업형, 비행형, 은둔형)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학업형 청소년**의 경우 선행된 조사를 비롯해 본 실태조사에서도 검정고시 준비 지원, 대학입시상담 등에 1차적이고 높은 욕구를 보이는 만큼 검정고시에 대한 정보제공을 비롯하여 검정고시 교재지원, 특강, 기초학습지원 등 다각적인 학습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을 상담하며 학습동기 향상을 도울 수 있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기관의 실무자가 검정고시와 대학입시에 대한 전반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또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검정고시 학습지도를 할 수 있는 학습멘토의 양성이 필요하며, 멘토 교육 및 멘토 협의회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멘토로서의 자부심과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더해 검정고시 지원, 대학입시 지원 등 부분적이고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지원이 아닌 진로상담부터 진로체험과 탐색, 진로결정과 준비과정을 아우르는 장기적인 진로설계지원을 통한 학습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무업형 청소년**의 경우 개개인의 어려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상담을 통한 어려움 파악 및 심리적 안정화가 기초가 되어야 함. 선행된 여러 조사에서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로확신성과 진로준비성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의욕이

없는 경향이 있다고 나타나고 있어 전문적인 심리적 개입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시사됨. 그리고 본 실태조사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의 또래 관계 형성과 소속감의 욕구가 크게 드러난 만큼 무업형 청소년이 또래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동아리활동, 체육활동, 캠프 등 다양한 활동들을 마련하고, 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독려가 필요함. 이에 더해 학교 밖 청소년이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쉬거나 놀 수 있는 전용공간이 마련된다면, 무업형 청소년이 특별한 목적 없이 방문하여 소속감을 경험할 수 있고, 또래와의 만남과 접촉하는 기회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 **직업형 청소년**의 경우 경제적 취약성으로 당장 아르바이트를 해야하는 여건에 처한 청소년이나 당장의 수입 때문에 진로준비에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는 청소년 등 당면한 경제적 필요 때문에 장기적인 차원의 진로준비를 하지 못하는 청소년이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직업형 학교 밖 청소년의 상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경제적 지원을 포함하여 장기적으로 진로설계를 돕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또 본 실태조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진입장벽이 낮은 음식점 서빙/카운터 직종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거나 인격 모독 등을 당하는 경험을 하고 있어 근로 권익 교육 등을 비롯하여 직업형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교육 및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비행형 청소년**의 경우 스스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찾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타 유형에 비해 현저하게 낮으므로 청소년의 발굴부터 지원에 이르기까지 경찰서, 보호관찰, 사법기관 등 관련 전문기관의 긴밀한 연계와 상호협력이 필수적임. 청소년이 프로그램 참여 시 집중하며 중도 탈락하지 않도록 비행형 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교육 및 지원서비스를 마련하고 상담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사례관리 또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음. 그리고 이들이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분출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복싱, 주짓수, 태권도 등 격렬한 체육활동의 지원 및 성취감 향상을 위한 맞춤형 학습지원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임. 무엇보다 사례관리자가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청소년의 아주 작은 성장과 변화에 대해 칭찬하고, 격려하고, 지지하며 지지하지 않고 기다려 주는 것이 비행형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또 하나의 필수요소라고 사료됨.
- **은둔형 청소년**의 경우 발굴부터 첫 만남에 이르기까지 조금씩 단계별 접촉을 시도하며 매우 세심하게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등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함. 첫 만남 이후 동기를 가지고 움직여서 성취하기까지는 타 유형에 비해 더욱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다시 은둔과 고립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 사례관리 기간 또한 타 유형의 청소년보다 긴 특성이 있음. 또 정서적인 어려움을 장기적이고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며 생활전반을 아우르는 교육, 지원 및 관리가 필요하여, 실무자 1명당 아주 소수의 청소년을 집중적으로 사례관리 해야하므로, 실무자 1명당 약 60여명의 학교 밖 청소년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임. 이에 은둔형 청소년을 지원하는 전문적인 기관이 마련되어야 하며 전문기관을 통해 은둔형 청소년의 발굴, 접촉, 심리지원, 자아존중감 및 회복탄력성 회복, 동기부여, 생활 관리, 사회성 향상을 비롯하여 장기적인 진로설계를 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함. 이에 더해 은둔형 청소년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 청소년지원기관(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강화 등 인지도 향상을 위한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지원기관 및 프로그램 8개에 대한 인지 여부를 살펴본 결과,
  - 가장 높게 나타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과 '광주시 청소년수련관'의 경우에도 응답자의 36.8%, 42.5%는 모른다고 답했으며, 인지도가 가장 낮은 '내일이룸학교(취업사관학교)'의 경우에는 모른다고 답한 비율이 88.7%에 달했고, 8개 모두를 모른다고 한 응답도 21.7%나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 기관과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그것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경우는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음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나 '광주시 청소년수련관'의 경우에는 인지도와 이용경험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조사 표본으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속해 있으며, 그 같은 장소에 위치한 광주시 청소년수련관이기 때문
  - 나머지 6개의 기관과 프로그램의 인지 정도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9.6%에 그치고, 나머지 5개 기관은 20%대 이하로 나타남. 경험 정도는 더 낮은 결과로 나타남(단수대가 4개, 10~20%대 2개)
- 개별 기관 단위의 홍보 노력 강화도 필요하겠지만, 청소년 관련 기관과 서비스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용자인 청소년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기관을 먼저 알린 후 그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알리는 것보다 서비스를 먼저 알리고, 어떠한 기관에서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알리는 것이 직관적일 수 있음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홍보 다각화를 통한 인지도 강화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지역사회 홍보 및 안내 : 주민자치센터, 지역사회 내 청소년 이용시설, 지역사회복지관 등 활용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성공사례에 관한 단편 극화/유튜브, 웹툰 등 활용
  -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좋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및 SNS 등을 통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인지도 개선

## □ 심리정서적 지원 및 트라우마 전문치료 지원

-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심리정서적 지원, 특히 심각한 정서적 문제와 트라우마와 같은 경험이 있는 경우 전문적인 치료 지원 강화

- 본 실태조사 결과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의 소속감, 관계 형성, 정서적지지, 심리적지지 등은 매우 필요한 것으로 드러남
  - 학교를 그만 둔 이유로 심리·정신적인 문제로란 응답이 19.0%(종합)나 차지했으며, 1순위 응답에서는 25.7%로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자아존중감 척도조사에서 부정적 응답(전혀 그렇지 않다 및 그렇지 않다)의 비율이 23.3%나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 학교를 그만둔 후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 나 혼자라는 불안 8.7%,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 단절 8.2%, 할 일도 없고,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의욕도 없음(무기력함) 10.2% 등으로 나타남
- 본 실태조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 17.9%는 자살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으며, 그 중 남자청소년은 12.5%였으나, 여자청소년은 22.4%로 여자청소년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자살시도는 10.4%의 학교 밖 청소년이 시도해본 적이 있었으며, 그 중 남자청소년은 6.3%였으나, 여자청소년은 13.8%로 여자청소년의 비율이 거의 2배 이상 더 높게 나타남
- 학교 밖 청소년들은 깊은 사례관리가 필요하며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음
  - 본 실태조사의 FGI(전문가 조사) 결과 학교밖청소년들은 깊은 사례관리가 필요하며, 이들에게 중요한 것이 다양한 활동 이전에 심리적인 내적인 힘이며 그래서 상담과 깊은 사례관리는 더욱 중요하게 느껴진다는 의견이 있었음
  -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겪는 기본적인 심리적 어려움은 학교 친구들과의 교우관계 등 사회적 관계에서 어려움을 많이 갖고, 간혹 선생님 등 권위에 대해서 불화, 그리고 개인적 우울정서나 불안, 자해 자살 사고를 겪는 등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많이 겪음
- 이러한 것들로 미루어 볼 때, 학교 밖 청소년들은 다양한 활동 이전에 우선적으로 심리정서적 지원이 매우 필요함을 시사함
- 또한, 학교를 그만두기 전 부모의 지원이 적거나 방임과 학대가 심할수록 현재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자아 및 심리상태, 건강상태, 사회관계가 부정적임에 따라 방임과 학대 등 이후 트라우마로 연결될 수 있는 심각한 경험을 한 청소년에게는 보다 전문적인 치료 지원을 고려해야 함
- 장기적으로는 전문 상담사 배치 등을 통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의 상담기능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한 연계와 또 청소년동반자 등과의 연결을 통한 심리상담 및 정서지원이 가능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에 따라 꿈드림센터 외부 체계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며, 상담효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기 때문
  - 본 연구의 FGI에 따르면, 더 효과적인 상담이 되려면 외부인이 생각하듯이 전문적인 상담사의 상담이 효과적이기보다는 그 특성을 잘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상담이 더 효과적일 때가 많다는 진술도 있었음

- 또한 청소년쉼터에는 청소년들이 가정에서의 갈등이나 학대, 폭력 피해 등으로 집을 나온 사례가 많으므로, 상기한 트라우마와 같은 심각한 심리적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전문상담기관이나 전문 치료기관과의 연계 및 지원을 통해 우선적으로 심리적 건강을 회복하고, 일상생활 및 진로준비를 해 나갈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다양한 활동 기회 제공

-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둔 이후 후회한 이유로 친구를 사귄 기회가 감소되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매우 높음(종합 39.7%, 1순위 54.2%)
  - 친구 사귄 기회가 감소하여 학교를 그만둔 것을 후회한다는 응답은 한편으로는 이 청소년들이 사회적 관계에 대한 욕구가 많으며, 따라서 또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필요성을 시사함
  - 이러한 결과는 가족관계보다 또래와의 관계에 더 집중하는 청소년기 특성을 잘 반영한 것으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를 포함한 이들 기관에서 자연스럽게 또래와 연결되어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학교를 그만둔 이후 후회한 청소년들의 또 다른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다양한 여러 활동(수학여행, 여러 활동 등)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임(종합 20.6%, 1순위 20.8%)
  - 이는 지원기관에서 또래 청소년들이 상호작용하며,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집단 활동 및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들이 더욱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고 또 연대감과 소속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동아리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정책수요도 마찬가지로의 경향을 보임에 따라 다양한 동아리활동이 또래 관계를 맺고, 소속감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내, 또는 인근 꿈드림센터와 청소년관련 기관들과 연계하여 동아리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되, 먼저 수요조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요구에 부합한 활동이 될 필요가 있음

## □ 연구의 한계점

- 조사표본 선정의 한계
  -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확률표집방법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나, 개인정보 보호 문제 및 모집단을 대표할만한 표본들을 확보하기

위한 현안 쟁점을 해결하기 쉽지 않아 제대로 된 확률표집 방법을 적용하지 못하였음

- 조사 특성 상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및 4개의 대안학교’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어서 비확률표집이 갖는 자료의 한계 내에서 분석이 이루어진 것은 본 연구의 한계점임

○ 위기청소년 및 은둔형 청소년 집단 구성의 한계

- 본 연구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및 4개의 대안학교’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와 분석을 진행하였음
- 이 과정에서 학교 밖 위기청소년 대상자 및 은둔형 청소년에 대한 파악 및 조사 진행의 어려움이 있어, 위기청소년 및 은둔형 청소년들의 상황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음
- 때문에, 본 연구의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의 내용은 위기청소년 및 은둔형 청소년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점을 가짐
- 향후 이들의 표본까지 충분히 확보한 조사 및 분석이 이루어져서 본 연구의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제언함

## <참고문헌>

강명숙, 강창원, 윤철경, 하태욱, 황지원, 신호진 (2019).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관계부처 합동(202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

김희진, 서고운, 조혜영, 민윤경 (2022b).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Ⅴ:질적 종단자료 심층분석보

고서(연구보고 22-일반04-0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백혜정·송미경(201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 (2023). 청소년사업안내Ⅱ. 서울: 여성가족부.

정혜원, 노자은, 정수연(2017). 경기도형 학교 밖 청소년 정책 모델 개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3).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30년사. 부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ID					-				
----	--	--	--	--	---	--	--	--	--

##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실태조사는 대안학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등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실태와 지원요구를 평가하고,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청소년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자료로만 활용되며, 통계법 제 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개인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문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2024년 4~5월

○

주관기관	경기도 광주시 평생교육과
조사기관	(사)한국응용통계연구원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출생년월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월생

## I. 학업 중단 관련 일반사항

1. 가장 최근 학교(정규학교, 인가 대안학교,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포함)를 그만둔 때는 언제였습니까?

※ 인가 대안학교란 학력을 인정해주는 대안학교로, 졸업 후 따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 |             |             |           |           |
|-------------|-------------|-----------|-----------|
| ① 초등 1~3학년때 | ② 초등 4~6학년때 | ③ 초등 졸업 후 |           |
| ④ 중학 1학년때   | ⑤ 중학 2학년때   | ⑥ 중학 3학년때 | ⑦ 중학 졸업 후 |
| ⑧ 고등 1학년때   | ⑨ 고등 2학년때   | ⑩ 고등 3학년때 |           |

2. 학교를 그만둔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 ① 1개월 미만
- ② 1개월 이상~6개월 미만
- ③ 6개월 이상~1년 미만
- ④ 1년 이상~2년 미만
- ⑤ 2년 이상~3년 미만
- ⑥ 3년 이상

3. 다음에는 학교를 그만둘 무렵, 학교를 그만두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의논한 사람(기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고민을 나누고 의논한 사람(기관)을 중요한 순서대로 선택해주시시오.

1순위		2순위	
-----	--	-----	--

- |                      |          |               |                       |
|----------------------|----------|---------------|-----------------------|
| ① 부모님                | ② 형제자매   | ③ 친구          | ④ 선후배                 |
| ⑤ 학교선생님              | ⑥ 학원 선생님 | ⑦ 학교 상담선생님    | ⑧ 성직자(목사님, 신부님, 스님 등) |
| ⑨ 상담기관(상담사, 인터넷상담 등) | ⑩ 친척     | ⑪ 기타(적어주세요: ) |                       |
| ⑫ 고민을 나누고 의논한 상대 없음  |          |               |                       |

4. 학교를 그만둔 이유는 무엇이였습니까? 영역에 상관없이 가장 큰 이유부터 순서대로 세가지 골라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영역	내용				
개인·가족	① 신체 건강상의 이유로		② 심리·정신적인 문제로		
	③ 학교에 다니는게 의미가 없어서		④ 집안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⑤ 부모님과의 갈등으로 인해		⑥ 부모님의 잦은 싸움 등 불화로 인해		
⑦ 아르바이트 하느라 피곤해서		⑧ 밤늦게까지 게임, 인터넷, 휴대폰 하느라			
⑨ 비행으로 보호처분 혹은 형사처벌 받게 되어서					
학교	학업/ 진로	⑩ 학업성적이 잘 안나와서		⑪ 검정고시를 준비하려고	
		⑫ 공부하기 싫어서		⑬ 내 특기를 살리려고	
	친구/ 교사	⑭ 이민 또는 해외유학하려고		⑮ 취업해서 돈을 벌고 싶어서	
		⑯ 다른 곳에서 원하는 것을 배우고 싶어서			
환경	⑰ 학교 친구들과의 문제 (폭력, 왕따 등)로 인해		⑱ 이성문제로 인해		
	⑲ (학교를 그만 둔) 친구의 영향으로		⑳ 선생님과의 갈등 때문에		
	㉑ 학교의 규칙이 엄격해서		㉒ 학교 규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아서		
㉓ 학교분위기(문화, 동아리, 자치활동 등)가 나와 잘 맞지 않아서					
㉔ 학교가 너무 멀어서		㉕ 전학이 잘 안되어서			
기타		㉖ 그 외(적어주세요: )			

5. 학교를 그만둘 당시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정보 가운데 제시받은 정보를 모두 선택해주시요?

- 1) 학교에 복학하는 절차
- 2) 대안학교 등 대안교육기관
- 3)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방법
- 4)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 일반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에게 상담·심리검사 등의 상담·지원활동 제공 기관
- 5)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 등 청소년시설  
\* 개인·집담상담, 전화/사이버상담, 심리검사 등의 상담·지원활동 제공기관
- 6) 진로나 직업교육·훈련관련시설(예: 고용센터)
- 7) 기타(기타 학교에서 제시받은 정보가 있으면 적어주세요: )
- 8) 제시받은 정보 없음

6. 다음은 학교를 그만둘 당시 부모님(보호자)께서 귀하를 대하는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응답해주시요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를 잘 알고 이해해주셨다	①	②	③	④
2)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 위로해 주셨다	①	②	③	④
3) 경제적 걱정 없이 생활하게 해주셨다	①	②	③	④
4)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관심이 없으셨다	①	②	③	④
5) 늦게 들어와도 신경쓰지 않으셨다	①	②	③	④
6) 내 몸에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남을 정도로 때리셨다	①	②	③	④
7) 나에게 심한 말이나 욕설을 하셨다.	①	②	③	④

7. 학교를 그만두기 전,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하였습니까?

- ① 참여하였다 ⇒ 7-1번 문항                      ② 참여하지 않았다 ⇒ 8번 문항

7-1. 학업중단숙려제 기간 동안 상담을 받았던 기관은

- ① Wee클래스    ② Wee센터  
 ③ 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④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⑤ 기타(적어주세요: )

7-2. (고등학교 연령대 청소년 이상만 응답해주세요) 학업중단숙려제 이후 학교를 그만둘 당시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였습니까?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일반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에게 상담, 학업 및 진로지원, 자립(급식 등) 지원 등을 제공하는 기관

- ① 연령 상 해당하지 않음(중학연령 이하) ⇒ 8번 문항  
 ① 동의하였다 ⇒ 8번 문항                              ② 참여하지 않았다 ⇒ 7-3번 문항  
 ③ 잘 모르겠다 ⇒ 8번 문항

7-3. (고등학교 연령대 청소년 이상만 응답해주세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개인정보 동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어서
- ② 도움이 필요 없어서
- ③ 그 기관이 어떤 도움을 주는지 잘 몰라서
- ④ 귀찮을 것 같아서
- ⑤ 내 정보가 밖으로 나가는 게 싫어서
- ⑥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 ⑦ 기타(적어주세요: )

8. 학교를 그만두기 전 귀하의 긍정적인 학교생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하는 내용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1) 학교에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주시는 선생님이 계셨다
- 2) 학교에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선생님이 계셨다
- 3) 학교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시는 선생님이 계셨다
- 4) 학교에 내가 믿고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있었다
- 5) 나는 학교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 마음이 편했다
- 6) 나는 쉬는 시간에 혼자 있기보다 친구들과 함께 지냈다
- 7) 나는 학교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 8) 나는 학교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정리하였다
- 9) 나는 학교 수업시간에 한눈 팔지 않고 집중하여 잘 들었다
- 10) 없음
- 11) 기타(적어주세요: )

9. 학교를 그만둘 당시 학교성적은 어느정도였나요?

- ① 하위권(81%~100%)
- ② 중하위권(61%~80%)
- ③ 중위권(41%~60%)
- ④ 중상위권(21%~40%)
- ⑤ 상위권(1%~20%)

10. 학교를 그만 둘 당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
- ② 대안학교 진학
- ③ 검정고시 준비
- ④ 해외유학
- ⑤ 대학진학준비
- ⑥ 취업(창업)
- ⑦ 직업교육훈련(자격증 취득 준비 포함)
- ⑧ 시간제 근로나 아르바이트
- ⑨ 상담 및 체험활동
- ⑩ 아무 계획 없었음
- ⑪ 기타(적어주세요: )

## II. 학교를 그만 둔 이후의 생활실태

### 11.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해 후회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11-1번 문항                      ② 아니오 ⇒ 11-2번 문항

11-1. 학교를 그만 둔 후 후회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세가지를 고르세요 (11-1번 응답 후 12번 문항으로)

1순위		2순위	
-----	--	-----	--

- ① 친구 사귀기 기회가 줄어든 것
- ② 지식 습득 기회가 줄어든 것
- ③ 다양한 경험(수학여행, 여러 활동 등)을 못하는 것
- ④ 졸업장을 받지 못하는 것
- ⑤ 소속감(안정감)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 ⑥ 학생 신분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나 이익을 못 누리는 것
- ⑦ 교복을 입을 기회가 없는 것
- ⑧ 기타(적어주세요:                      )
- ⑨ 없음

11-2. 학교를 그만둔 후 후회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세가지를 고르세요 (11-2번 응답 후 12번 문항으로)

1순위		2순위	
-----	--	-----	--

- 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 것
- ②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
- ③ 취업(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 수 있게 된 것
- ④ 학업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 것
- ⑤ 학교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 것
- ⑥ 학교 규칙과 통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 것
- ⑦ 건강을 돌볼 수 있게 된 것
- ⑧ 선생님의 차별과 체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 것
- ⑨ 기타(적어주세요:                      )
- ⑩ 없음

### 12. 학교를 그만 둔 후 보기에 제시된 기관 및 서비스를 처음 이용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보기: 대안학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일이룸학교, 내일배움카드 등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일반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에게 상담·학업, 자립(직업체험·취업 등)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개인·집단상담, 전화/사이버 상담, 심리검사 등의 상담·지원활동 제공 기관
내일이룸학교: 만 15~24세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내일배움카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 등을 지원하는 사업

- ① 학교를 그만두자마자 계속 이용                      ⇒ 13번 문항으로
- ② 학교를 그만둔 후 3개월 미만                      ⇒ ②~⑦ 응답: 12-1 번 문항으로
- ③ 학교를 그만둔 후 3개월~6개월 미만
- ④ 학교를 그만둔 후 6개월~1년 미만
- ⑤ 학교를 그만둔 후 1~2년 미만
- ⑥ 학교를 그만둔 후 2년 이상
- ⑦ 지금까지 이용한 적 없다

12-1. (②~⑦번 응답자) 이용하지 않았던 기간 동안 주로 무엇을 했습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① TV시청 또는 OTT(온라인 동영상서비스: 예: 유튜브, 넷플릭스, 왓차, 애플TV 등)을 이용하였다
- ② 휴대폰/스마트폰(SNS, 카톡, 게임 등)을 했다
- ③ 컴퓨터(게임, 웹서핑 등)를 했다
- ④ 집안일을 했다.
- ⑤ 돈벌이(직장, 아르바이트 등)을 했다
- ⑥ 학원에 다녔다
- ⑦ 친구들과 길거리에서 시간을 보냈다
- ⑧ 친구들과 술을 마셨다
- ⑨ 취미생활을 했다.
- ⑩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었다
- ⑪ 하고 싶은 일에 관련된 모임(시민단체 활동,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등)에 참여했다
- ⑫ 지역사회기관(수련관/복지관/공부방 등)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 ⑬ 종교생활(교회/절/성당)을 했다
- ⑭ 집에서 잠을 자거나 하는 일 없이 그냥 시간을 보냈다
- ⑮ 기타(적어주세요: )

13. 학교를 그만 둔 이후 지금까지 다음과 같은 일을 경험해본 적이 있다면 경험한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1) 대안학교에 다님
- 2) 검정고시 공부를 함(검정고시 학원 등)
- 3) 정규학교 복교
- 4) 진로상담을 받음
- 5) 직업기술을 배움(내일이룸학교, 직업학교나 학원,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
- 6) 심리상담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음
- 7) 없음
- 8) 기타(적어주세요: )

14. 학교를 그만둔 이후 지금까지 다음에 제시된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내고 있는 관계가 있다면 중요한 순서대로 선택해주십시오.(친밀한 관계가 없다면 1순위에만 7번으로 응답해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1) 기존의 학교 친구
- 2) 학교 친구 이외의 기존 친구
- 3) 학교를 그만 둔 이후 새로 사귀 친구(기관, 학원, 동네 등)
- 4) 청소년 관련 기관, 대안학교 선생님
- 5) 아르바이트/직장 내 동료 또는 선후배
- 6) 친밀한 관계 없음
- 7) 기타(적어주세요: )

15. 학교를 그만둔 후 본인의 집 이외에 아래와 같은 장소에서 지낸 경우가 있다면 해당하는 곳에 모두 응답해주십시오

- ① 친구 집에서 지냄
- ② PC방 같은 곳에서 지냄
- ③ 가출팸과 함께 생활함
- ④ 보호시설(청소년 쉼터, 자립생활관 등)에서 지냄
- ⑤ 그룹홈, 시설 등에서 지냄
- ⑥ 원룸, 쪽방, 고시원 등에서 지냄
- ⑦ 모텔, 여관 등에서 지냄
- ⑧ 찜질방 등 불규칙한 거리생활
- ⑨ 지하철이나 기차역
- ⑩ 친척 집에서 지냄
- ⑪ 해당사항 없음(집 외에 다른 곳에서 생활한 적 없음)
- ⑫ 기타(적어주세요: )



19-1. 귀하가 지금 하고 있거나 하였던 아르바이트 중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하고 있거나 하였던 아르바이트는 무엇입니까?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① 전단지 돌리기(스티커 부착)                    | ② 카페(커피숍) 및 주방 서빙             |
| ③ 키즈카페·수영장 등에서 안전요원                  | ④ 노래방 카운터/서빙                  |
| ⑤ 게임방 카운터/서빙                         | ⑥ 주유소 주유원                     |
| ⑦ 피자·치킨 등 패스트푸드점 서빙/카운터              | ⑧ 공장노동                        |
| ⑨ 분식점, 중국집 등에서 서빙/카운터                | ⑩ 건설현장노동                      |
| ⑪ 이벤트 행사장 도우미                        | ⑫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 호객(삐끼), 서빙 및 접대 |
| ⑬ 24시간 편의점 점원                        | ⑭ 일반상점 판매원                    |
| ⑮ 식당, 출장뷔페 등 요리사                     | ⑯ 오토바이, 자동차 등 정비 엔지니어         |
| ⑰ 배우                                 | ⑰ 이·미용이나 네일아트 등               |
| ⑱ 마트 등에서 주차·안내요원                     |                               |
| ⑳ 배달서비스(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쿼서비스, 택배 등 포함) |                               |
| ㉑ 기타(적어주세요: )                        |                               |

20. 학교를 그만 둔 후 지금까지 하고 있거나 하였던 아르바이트는 평균 얼마동안 했습니까?

- ① 1주 미만
- ② 1주 이상~1개월 미만
- ③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 ④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 ⑤ 6개월 이상~1년
- ⑥ 1년 이상

21. 향후 진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임 ⇒ 24번 문항으로
- ② 정규 학교로 복학(대학 진학 포함) ⇒ ②~⑨ 응답: 22번 문항으로
- ③ 대안학교 진학
- ④ 해외 유학
- ⑤ (대안학교를 다니지 않고) 검정고시 준비
- ⑥ 진학하지 않고 취업(창업)할 예정임
- ⑦ 취업 혹은 창업을 대비해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예정임
- ⑧ 취업과 진학 병행
- ⑨ 진학이나 취업은 하지 않고 시간제 근로나 아르바이트를 하며 자립 예정

22. 이러한 진로결정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 ① (일반)학교를 그만두기 전
- ② 학교를 그만둔 후 6개월 미만
- ③ 학교를 그만둔 후 6개월~1년 미만
- ④ 학교를 그만둔 후 1년 이상~1년 6개월 미만
- ⑤ 학교를 그만둔 후 1년 6개월~2년 미만
- ⑥ 학교를 그만둔 후 2년 이상

23. 진로를 결정하는데 가장 영향을 준 대상이나 방법은 무엇입니까?

- ① 부모님 권유
- ② 주변 친구 또는 지인
- ③ 학교박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선생님
- ④ 청소년 센터, 대안학교 등 이용기관의 선생님
- ⑤ 혼자 결정함
- ⑥ 인터넷 또는 유튜브에서 접한 정보
- ⑦ 기타(적어주세요: )

24. 평소 귀하가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응답해주시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다른사람들처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노력하면 대부분의 일들을 잘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5)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일어나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6)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할 때에도 나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25. 다음은 학교를 그만둔 이후 지금까지 귀하가 폭력(가출 포함) 등의 경험을 한 적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주시시오.

- 1) 가출
- 2) 집단 따돌림을 당함
- 3) 문자나 카톡, SNS등으로 폭언 또는 괴롭힘을 당함
- 4) 돈(사이버머니, 게임머니 등 포함)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김
- 5) 심하게 얻어맞음
- 6) 성적인 놀림을 당함
- 7) 성폭력을 당함
- 8) 없음
- 8) 기타( )

26. 최근 12개월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까?

- ① 최근 12개월 동안 없다
- ② 최근 12개월 동안 있다

27. 최근 12개월 동안,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까?

- ① 최근 12개월 동안 없다
- ② 최근 12개월 동안 있다

### Ⅲ.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

28. 학교를 그만둔 후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부모와의 갈등
- ②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선입견, 편견, 무시
- ③ 나를 이해해주고, 믿어주며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음
- ④ 내 적성에 맞는 진로 찾기의 어려움
- 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나에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음
- ⑥ 지낼 곳 찾기의 어려움
- ⑦ (어디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 나 혼자라는 불안
- ⑧ 할 일도 없고,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의욕도 없음(무기력함)
- ⑨ 일(아르바이트 포함)을 하고 싶은데 일을 구하기 어려움
- ⑩ 비행을 저지르거나 유혹에 쉽게 빠질 정도로 생계가 불안정하고 돈이 필요함
- ⑪ 건강이 안 좋음
- ⑫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는 하기싫은(술, 담배, 폭력, 절도, 성매매 등)일이라도 해야함
- ⑬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 단절
- ⑭ 어려움이 없었음
- ⑮ 기타(적어주세요: )

※ 다음 보기의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보시고 물음에 응답해주시시오.

시설, 프로그램	설명
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 일반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에게 상담·학업·자립(직업체험·취업), 급식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
②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개인·집단상담, 전화/사이버상담, 심리검사 등의 상담·지원활동 제공기관
③ 청소년 쉼터	※ 가정 밖 청소년들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④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특별지원(건강, 학업, 자립, 생활비 등)
⑤ 내일이룸학교(취업사관학교)	※ 만 15~24세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⑥ 내일배움카드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
⑦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 청소년 대상 평생교육과 생활체육 강좌를 진행하고 각종 특화사업으로 청소년 활동 지원
⑧ 퇴촌청소년문화의집	※ 청소년체육 프로그램 및 문화강좌 운영

29-1. 위의 시설이나 프로그램 중 알고 있는 모두를 선택해주시시오

- ① 알고 있는 시설이나 프로그램 없음
- 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 ②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③ 청소년 쉼터
- ④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 ⑤ 내일이룸학교(취업사관학교)
- ⑥ 내일배움카드
- ⑦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 ⑧ 퇴촌청소년문화의집

29-2. 위의 시설이나 프로그램 중 이용 경험이 있는 모두를 선택해주시시오

- ① 이용경험이 있는 시설이나 프로그램 없음
- ②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③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 ④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 ⑤ 청소년 쉼터
- ⑥ 내일배움카드
- ⑦ 내일이룸학교(취업사관학교)
- ⑧ 퇴촌청소년문화의집
- ⑦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29-3. 29-2번 질문에서 답한 이용경험이 있는 시설이나 프로그램 중 가장 도움이 된 것을 한 개만 선택해주시요. (이용 경험이 있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없는 분들은 '0' 이용 경험이 있는 시설이나 프로그램 없음'을 선택해주세요)

- ① 이용경험이 있는 시설이나 프로그램 없음 ⇒ 30번 문항으로
- 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 ① ~ ⑧ 응답: 29-4번 문항으로
- ②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③ 청소년 쉼터
- ④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 ⑤ 내일이룸학교(취업사관학교)
- ⑥ 내일배움카드
- ⑦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 ⑧ 퇴촌청소년문화의집

29-4. 29-3번 질문에서 답한 가장 도움이 된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셨습니까?

- ① 전혀 도움 안됐다      ② 도움 안됐다      ③ 조금 도움 됐다      ④ 매우 도움 됐다

30. 향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현재 이용중인 사람들도 응답해주시요)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은 일반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청소년에게 상담 및 학업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직업체험·취업), 급식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스스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입니다.

- ① 참여할 의향이 있다 ⇒30-1번으로      ② 참여할 의향이 없다 ⇒30-2번 문항으로

30-1. 참여의향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응답 후 31-1번으로)

- ① 정보를 얻기 위해서
- ② 사회적 관계(또래와의 교류 등)을 맺기 위해
- ③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어서
- ④ 혼자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힘들어서
- ⑤ 활동을 제공(또는 무료지원)해주기 때문에
- ⑥ 기타(적어주세요: )

30-2. 참여할 의향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를 잘 몰라서
- ②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에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 ③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가 지리적으로 너무 멀어서
- ④ 기관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하고 싶어서
- ⑤ 다른 지자체나 교육청의 유사 지원기관(예/친구랑, 배움터 등)을 이용하고 있어서
- ⑥ 학원에 다니는 것으로 충분해서
- ⑦ 기타(적어주세요: )

※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내용들입니다. 각 영역의 항목을 읽고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해주시요.

31-1. 학업 영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선택해주시요.

영역	항목
학업	1) 복교(학교로 다시 돌아가는 것) 절차 및 방법 안내 2) 학습 또는 진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 3) 진학정보 제공(검정고시, 입시정보, 대안학교 등) 4) 검정고시 준비( 학습, 비용 등) 지원 5) 대학 진학 및 대학 입시 상담 6) 진로탐색을 위한 체험 7) 직업교육훈련 8) 기타

31-2. 진로/직업 영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선택해주시요.

영역	항목
진로/ 직업	1) 근로 중 피해(언어폭력, 임금체불 등)에 대한 보호 2) 자산관리(용돈이나 생활비 혹은 알바비 등을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방법)에 관련된 정보 제공 3) 진로상담, 직업훈련, 취(창)업을 연결하는 통합 프로그램 4) 일과 학습을 병행하여 훈련받는 지역사회 작업장(목공, 도예, 디자인, 인테리어) 5) 기타

31-3. 건강/상담/복지 영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선택해주시요.

영역	항목
건강/ 상담/ 복지	1) 건강검진 제공 2) 각종 질병에 대한 치료 3) 성교육 제공 4) 각종 고민에 대한 상담 제공 5) 가족캠프,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 가족관계개선 프로그램 제공 6) 인터넷(게임, 스마트폰 등) 중독치료 지원 7) 상담사가 찾아오는 방문형 상담 8) 기타

31-4. 활동 영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선택해주시요.

영역	항목
활동	1) 동아리 활동에 관한 지원 2) 체육활동지원 3) 문화예술(그림, 사진, 악기 등) 활동 지원 4) 모임, 휴식, 놀이 등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자유공간 제공 5) 청소년 활동 바우처(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쿠폰) 제공 6) 교통비 지원 7) 또래 교류 프로그램 8) 기타

#### IV. 배경요인

32.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지 모두 응답해주시고, 직장 또는 학교 때문에 잠시 떨어져 지내는 가족을 포함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⑤ 혼자               | ② 어머니     |
| ① 아버지              | ④ (외)할머니  |
| ③ (외)할아버지          | ⑥ 친척      |
| ⑤ 형제, 자매           | ⑧ 친구, 선후배 |
| ⑦ 시설 및 기관 선생님      |           |
| ⑨ 남편, 아내           |           |
| ⑩ 기타(적어주세요: _____) |           |

33. 귀하의 가정 경제적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못산다 ←		보통수준		→ 매우 잘산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모든 설문이 종료되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발행일** 2024년 06월

**발행기관** 광주시

**발행처** 경기도 광주시 평생교육과 청소년정책팀  
(12738)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송정동)

Tel: 031-760-8949

**연구기관** (사)한국응용통계연구원

(07235)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4(여의도동)

Tel: (02) 785-6070, Fax: (02) 785-5150

E-mail : koris@koris.or.kr